노란 방의 비밀

Le Mystère de la chambre jaune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 (1868–1927)

190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 "Le Mystère de la chambre jaune" (L'Illustration 1907)

저자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 (1868–1927)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 Mystère de la chambre jaune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하되 추리의 긴장과 단서를 정확히 보존했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서, 조제프 룰타비유의 놀라운 모험담을 여기에 풀어놓을 수 없다. 그에게 있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그토록 단호하게 반대해 온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5년 사이 가장 흥미진진했던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릴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만약 최근 명망 높은 스탕제르송이 레지옹 도뇌르 그랑크르와(대십자장)에 서임되었다는 소식을 계기로, 한 저녁 신문이 무지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로 조제프 룰타비유가 영원히 잊히기를 원했던 끔찍한 사건을 다시 꺼내 들지 않았다면, 세상은 '노란 방' 사건에 얽힌 '모든 진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신비롭고 잔인하며 스릴 넘치는 드라마를 낳았으며, 내 친구는 그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노란 방!"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십수 년 전, 그 사건은 수많은 잉크를 흘렸지만, 파리는 잊기가 너무 빠르다. 나브 재판의 이름조차, 어린 메날도의 죽음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조차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당시 대중의 관심은 그 재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와중에 발생한 내각 위기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런데 그 '노란 방' 사건은 나브 사건보다 몇 년 앞선 것이었음에도,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온 세계가 수개월 동안 이 난해한 문제 앞에 몸을 기울였다. 내 기억에 유래 없는 가장 난해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프랑스 경찰의 통찰력과 우리 법관의 양심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해결책을 찾아 나선 이는 다름 아닌 전 세계인이었다. 마치 극적인 수수께끼를 앞에 둔 듯, 구대륙 유럽과 신대륙 아메리카가 그 해독에 열중했다.

사실, 나는 이렇게 말해도 좋다. "여기서 작가의 자존심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예외적인 자료에 기반해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실들을 단순히 기록할 뿐이다. 진실로, 나는 현실이든 상상력이든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이와 비교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모르그 가의 살인사건'을 쓴 작가(에드거 앨런 포)에게서조차, 혹은 포를 모방한 하위 작가들과 활달한 코난 도일에게서조차 말이다. 그 '노란 방'의 자연스러운 신비로움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열여덟 살의 젊은 조제프 룰타비유가 찾아냈다. 당시 그는 큰 신문의 작은 기자였다. 하지만 중범죄재판소에서 그가 이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쥐고 나왔을 때, 그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무고한 이를 석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드러냈을 뿐이다. 그가 침묵을 지킨 이유는 이제 사라졌다. 오히려 내 친구는 '말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긴 서론은 생략하겠다. 글랑디에 성의 비극이 일어난 다음 날, 전 세계가 목격한 그대로 '노란 방'의 문제를 당신의 눈앞에 제시하겠다.

1892년 10월 25일, <땅>지의 최후 특종으로 다음 기사가 실렸다.

글랑디에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생트주느비에브 숲 가장자리, 에피네쉬르오르그 위쪽, 스탕제르송 교수 집안에서였다.

어젯밤, 교수가 실험실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의 옆방에서 스탕제르송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스탕제르송은 그 방에서 쉬고 있었다. 의사들은 스탕제르송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파리를 사로잡은 그 감정을 상상해 보라. 이미 그 시절, 학계는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의 연구에 극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연구는 방사선 촬영에 시도된 최초의 시도였으며, 훗날 큐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하는 길로 이어졌다. 또한 스탕제르송 교수가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이론, 즉 '물질의 분해'에 관한 충격적인 논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이론은 오랜 세월 동안 '무엇도 사라지지 않고, 무엇도 창조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세워진 모든 공식 과학의 기초를 흔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이 비극으로 가득 찼다. 특히 <마탱>지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초자연적 범죄'.

다음은 『마탱』의 익명 기자가 전하는, 글랑디에 성 살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세부 사항들이다. 스탕제르송 교수가 처한 절망적인 상태와, 피해자 본인으로부터는 어떤 단서도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조사와 사법 당국의 조사는 그토록 어려워졌다. 그 결과, 지금 시점에서는 '노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노란 방에서는 스탕제르송 씨가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채 발견되었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과 인터뷰할 수는 있었다. 현지에서 '자크 신부'라 불리는 노인을 만나 본 것이다. 그는 스탕제르송 가문의 오

랜 하인이다. 자크 영감은 스탕제르송 교수와 동시에 노란 방으로 들어갔다. 이 방은 실험실과 이어져 있다. 실험실과 노란 방은 모두 성에서 약 300미터쯤 떨어진 공원 깊숙이 자리한 별채 안에 있다.

"자정 반, 그러니까 12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탕제르송 선생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발생했죠."

"저는 온종일 실험 기구들을 정리하고 닦느라 바빴습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이 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들 계획이었습니다. 마틸드 아가씨도 아버지와 함께 자정이 될 때까지 일했습니다. 실험실의 시계가 자정 열두 번을 치자, 마틸드 아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탕제르송 선생님께 입맞춤하고 좋은 밤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자크 아저씨!'라고 말한 뒤 '노란 방'의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을 잠그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가씨도 자물쇠를 두 번이나 잠그시네요. 분명히 '신의 짐승'이 무서운 거죠!'"

"하지만 스탕제르송 선생님은 너무 몰두해 계셔서 제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끔찍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신의 짐승'의 비명인 것을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였죠."

"'저 짐승이 오늘 밤도 잠을 못 자게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10월 말까지 '노란 방' 바로 위, 별채의 다락방에 살고 있습니다. 마틸드 아가씨가 밤새도록 공원 깊숙이 혼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틸드 아가씨는 좋은 계절을 별채에서 보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보다 훨씬 활기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립된 지 4년 동안, 그녀는 매년 봄이 되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마틸드 아가씨는 성으로 돌아갑니다. '노란 방'에는 난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탕제르송 씨와 나는 별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일을 마친 뒤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우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 덕분에 살인자는 우리가 이미 떠났다고 믿었을 테니까.

그때였다. 자정을 지나 반 시간이 지나가는 시계 소리가 들리는 순간, '노란 방'에서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틸드 아가씨의 목소리였다.

"살인자다! 살인자다! 도와줘!"

그와 동시에 권총 총성이 울려 퍼졌다. 책상과 가구가 넘어지고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듯한 소음이었다.

그리고 다시 마틸드 아가씨의 비명이 들렸다.

"살인자다… 도와줘… 아빠! 아빠!"

우리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스탕제르송 씨와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앞서 말했듯, 마틸드 아가씨가 안쪽에서 열쇠와 빗장으로 꼼꼼히 잠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을 흔들려 했지만, 문은 튼튼했다. 스탕제르송 씨는 미친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정말 그럴 만했다. 마틸드 아가씨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도와줘!… 도와줘!…" 스탕제르송 씨는 문을 두드리며 분노에 차서 울었고, 절망과 무력감에 떨고 있었다.

그때 내가 영감을 얻었다. "살인자가 창문으로 들어왔겠지!" 내가 외쳤다. "나는 창문으로 가겠어!" 그리고 나는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다.

문제는 '노란 방'의 창문이 시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공원을 둘러싼 담장이 별장 끝에서 막혀 있어, 나는 곧장 그 창문까지 다다를 수 없었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먼저 공원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나는 대문 쪽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 총성과 우리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관리인 부부인 베르니에와 그의 아내를 만났다. 나는 두 마디로

그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즉시 스탕제르송 씨에게 합류하라고 명했고, 그의 아내에게는 나와 함께 와서 공원 대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했다.

다섯 분 후, 우리는 관리인 아내와 함께 '노란 방'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손이 간 흔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 철창은 물론이고, 철창 뒤쪽에 있는 창문짝들도 내가 어제 밤, 그리고 평소 모든 밤마다 닫아두었던 그대로였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던 아가씨가, 스스로 닫아주겠다고 말하며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짝들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내가 신경 써서 걸어두었던 것처럼, 철제로 된 잠금장치가 '안쪽'에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즉, 살인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그곳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유일한 창문의 닫개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닫개 너머로는 철창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철창 사이로는 팔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구조를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별장 깊은 곳에서, 그분이 문을 흔들며 부수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관리인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는 별장으로 돌아갔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스탕제르송 씨와 베르니에의 격렬한 발차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격분한 노력 끝에 문은 열렸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 관리부가 실험실의 램프를 들고 있었는데, 그 램프는 강력해서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노란 방'은 정말 작습니다. 스탕제르송 양은 그곳에 꽤 넓은 철제 침대와 작은 책상, 침대 곁의 작은 탁자, 세면대, 그리고 의자 두 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아내가 들고 있던 큰 램프 불빛 아래, 우리는 한눈에 방 안의 전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탕제르송 양은 잠옷만 걸친 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운 바닥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모두 뒤집혀 있어, 그곳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온통 피투성이였고, 목에는 끔찍한 손톱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목의 살점이 거의 벗겨질 정도로 손톱이 파고든 것이죠. 오른쪽 관자놀이에는 피가 줄줄 흐르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피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스탕제르송 씨가 딸을 이런 상태로 발견했을 때, 그는 비명 같은 절규를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비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딸이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했고, 오직 그녀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을 죽이려 했던 악당 말입니다. 제가 맹세컨대, 우리가 그를 발견했다면 그에게 가혹한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미 도망친 것이죠.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침대 아래도, 가구 뒤도 뒤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그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벽과 문에는 피로 얼룩진 큰 남자 손자국이 있었고, 이니셜이 없는 빨간 손수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베레모도 있었고, 바닥에는 신선한 남자 발자국들이 무수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을 걸어간 남자는 발이 컸고, 구두 밑창은 뒤로 검은 재 같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선생님, 잊지 마십시오. '노란 방'에는 벽난로가 없습니다.

그는 문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은 매우 좁았고, 관리인 아내가 램프를 들고 문턱을 넘을 때, 저는 관리인과 함께 그 작은 방 안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좁은 공간이었죠. 더군다나 우리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문짝은 부서져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그 뒤에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철제 창살도 만져본 기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문으로 도망친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악마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닥에서 '내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제 권총이요… 그 순간, 비로소 현실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스탕제르송 양을 죽이기 위해 제 권총을 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는 먼저 다락방으로 올라와 서랍에서 제 권총을 훔쳐, 그걸로 자신의 사악한 꾀를 꾀한 것이죠.

그리고 탄약을 자세히 살펴보니, 살인자가 권총을 두 발 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monsieur.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스탕제르송 씨가 실험실에 계셨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셨으니까요. 만약 권총 사건만 있었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치닫았을지 모릅니다. 저라면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사법 기관은 한 남자를 단두대에 올리기 위해 그 정도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matin>의 편집자는 이 인터뷰에 이어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였다.

우리는 자크 영감이 '노란 방' 살인 사건에 대해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을 끝까지 듣기로 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되, 이야기 중간중간 끊임없이 늘어놓던 하소연은 생략했다.

알겠어요, 자크 영감! 알겠어요, 당신은 주군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총기가 발견된 이후로 특히

나 그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크 영감, 즉 자크루이 무스티에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소환되었다. 예심판사가 성의 큰 방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랑디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또한, 쁘레네(Chênaie)는 넓은 범위에 걸쳐 몇몇 형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별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발자취, 그리고 아마도 살인자의 발견에 이을 단서들을 간절히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또한 경비원들을 심문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성의 대문 근처 여관에서 코르베유의 예심판사 드 마르케 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5시 30분쯤, 그는 서기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마차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드 마르케 씨,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어떤 정보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드 마르케 씨가 대답했다. "게다가 이건 제가 겪어본 가장 기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드 마르케 씨에게 마지막 발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드 마르케 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말의 중요성은 누구에게나 분명할 것이다.

"오늘 검찰이 확인한 물리적 사실에 다른 단서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면, 스탕제르송 씨가 당한 끔찍한 테러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이유로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저는 4년 전 이 별장을 지은 시공자와 함께 노란 방의 벽, 천장, 바닥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논리만큼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어떻게 침입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으로 들어와 스탕제르송 씨가 올 때까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어떻게 빠져나갔는가입니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숨겨진 통로나 비밀 문, 작은 방, 혹은 어떤 형태의 구멍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벽을 조사하고, 심지어 철거까지 진행하는 과정(저와 스탕제르송 씨는 별장을 철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에서도 인간은 물론 그 어떤 존재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천장에 구멍이 없고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숨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마를 믿어야' 합니다. 자크 영감이 말한 대로요."

그리고 익명의 기고는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나는 이 기사를 그날 같은 사건에 대해 발표된 모든 기사 중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 선택했다.

예심판사가 마지막 문장에 어떤 의도를 담았다는 것이다.

"자크 영감이 말했듯이, 우리는 마귀를 믿지 않을 수 없다."

기사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자크 신부가 '하느님의 짐승의 비명'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뜻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여관 주인이 설명해 주었다. 그곳에서는 밤마다 때때로 울려 퍼지는, 특히 음산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그 고양이는 '아게누'라는 이름으로 현지인들에게 알려진 노파의 것이었다.

'아게누' 할멈은 숲 한가운데 있는 오두막에 사는 일종의 성인 같은 존재였다. 그 오두막은 '생트제네비에브 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 노란 방, 하느님의 짐승, 아게누 부인, 악마, 성녀 제네비에브, 자크 신부 ». 이토록 꼬인 살인 사건을 내일 벽을 파헤치는 곡괭이질 한 번에 풀어나갈 것이다. 예심판사의 말마따나, 적어도 '인간 이성을 위해서'라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사이, 스탕제르송 씨는 혼란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가 또렷이 내뱉는 말은 오직 하나다.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마침내, 마지막 시간의 같은 신문에 한 통의 전보가 실렸다. 수사국 국장이 런던에서 도난 증권 사건으로 파견되었던 유명한 형사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즉시 파리행으로 소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아침, 젊은 룰타비유가 내 방으로 들어온 장면이 선명하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시간은 여덟 시쯤 되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탱> 신문의 글랑디에 살인 사건 기사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친구를 독자에게 소개할 시간이 왔다.

나는 조제프 룰타비유를 그가 어린 기자였을 때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변호사로서 막 경력을 시작한 참이었다. 나는 종종 마자스 감옥이나 생라자르 감옥으로의 '통신 허가'를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복도를 누비곤 했는데, 그때마다 룰타비유를 마주쳤다.

사람들이 말하듯, 그는 '호감 가는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대포알처럼 동그랗게 생겼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 때문에 동료 기자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룰타비유를 봤니?" "어이쿠, 저 '대단한' 룰타비유가 있군!"

그는 자주 토마토처럼 붉어지곤 했다. 때로는 참새처럼 경쾌하고, 때로는 교황처럼 진지했다. 어떻게 그 나이에,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그는 열여섯 살 반이었건만, 이미 언론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를 가까이서 본 모든 이들이 그의 데뷔 과정을 알지 못했더라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오베르캉프 거리에서 시체가 토막 난 사건 당시, 그는 당시 <마탱>과 정보 경쟁을 벌이던 <레포크>지의 편집장에게, 끔찍한 잔해들이 발견된 바구니에서 빠져있던 왼쪽 발을 가져다주었다. 경찰은 그 왼쪽 발을 여드레 동안이나 찾아 헤맸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어린 룰타비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하수구에서 그 발을 찾아냈다.

그것을 위해 그는 파리 시정부가 센 대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에 동원했던 임시 하수청소부 팀에 합류해야 했다.

편집장은 그 귀중한 발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열여섯 살짜리 소년이 어떤 지적인 추론의 연쇄를 거쳐 그것을 발견해냈는지 깨닫자, 그는 두 가지 감정에 사로잡혔다. 하나는 열여섯 살 뇌에서 발휘된 그 놀라운 경찰적 재능에 대한 경외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문의 '시체 전시대'인 '모르그-비트린'에 '오베르캄프 거리 왼쪽 발'을 내세울 수 있다는 기쁨이었다.

"이 발 하나면, 내가 톱기사를 쓸 수 있겠군!"

그가 외쳤다.

그리고 편집장이 그 불길한 소포를 레포크 지에 소속된 법의관에게 넘겨준 뒤, 곧 룰타비유가 될 그 소년에게 물었다.

"소식부 기자로 들어오려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월급은 이백 프랑입니다."

젊은 남자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이런 제안을 받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랐다.

"이백 오십 프랑으로 해주마."

편집장이 대답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너는 한 달 전부터 우리 편집국에 소속됐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해. '오베르캄프 거리의 왼쪽 발'을 발견한 사람은 너가 아니라, 바로 '레포크'지."

편집장은 단호하게 덧붙였다.

"여기서는 개인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신문이 전부지!"

그리고 그는 새로 입사한 기자에게 물러가라고 했다.

그러나 문턱에 서 있는 그를 붙잡고 이름을 물었다.

"조제프 조제핀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름이 아니군."

편집장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기사에 이름을 싣지 않을 테니, 상관없어."

그때부터 수염 한 올 없는 젊은 기자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그는 남을 돕기를 좋아했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좋은 기운은 가장 투덜거리는 사람도 기쁘게 만들었고, 가장 질투심 강한 사람도 마음을 풀게 했다.

그는 당시 잡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모여, 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가서 하루의 범죄 현장을 찾으러 가기 전 모이던 '바로 카페'에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재치 있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평을 곧장 얻었고, 그 명성은 곧 형사국 국장실 문턱까지도 넘어갔다.

한 건의 사건이 그에게 걸맞을 때, 룰타비유—이미 이 별명을 얻은 상태였다—가 편집장으로부터 사냥감의 흔적을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는 종종 가장 저명한 형사들을 제치고 앞서 나갔다.

그와 더 깊이 교분(交分)을 쌓은 곳은 바로 카페였다. 형사 변호사와 기자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다. 변호사들은 홍보가 필요하고, 기자들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다를 떨었고, 나는 이 착실하고 작은 체구의 룰타비유에게 곧장 큰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지성이 너무도 날카롭고 독창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다시 만나지 못했던, 특이한 사고의 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크리 뒤 불바르'지에서 사법 부문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저널리즘의 세계로 들어온 나는, 이미 룰타비유와 맺고 있던 우정의 끈을 한층 더 단단히 묶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 새로운 친구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소속지인 '레포크'지에서 사법 관련 소규모 통신을 작성했고, 그 기고문에는 '비즈니스'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덕분에 나는 그가 필요로 하는 법률 정보를 자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거의 이 년이 흘렀다. 내가 그를 더 잘 알아갈수록, 나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겉보기에는 신나고 과격한 모습 뒤에, 나는 그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몇 번의 일이 있었다. 나는 그가 평소처럼 매우 신나 있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신난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기분 변화의 원인에 대해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매번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묻는 것을 듣지 못한 척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때 마침 '노란 방'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그를 단연코 최고의 기자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형사 반열에 올려놓았다. 같은 인물에게 두 가지 자질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

다. 일간 언론이 이미 변모하기 시작했고,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 즉 '범죄의 가제트'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이들은 이를 탓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와 맞서 싸울 무기는 공공이든 사적이든, 결코 많다고 느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비관론자들은 반박한다. 범죄를 지나치게 많이 다루다 보면, 결국 언론이 범죄를 조장하게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언제나 결론이 없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항상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그날 아침, 1892년 10월 26일이었다. 룰타비유가 내 방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속담대로 눈이 튀어나올 듯했고, 심한 흥분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는 손떨림을 멈추지 않은 채 「마탱」지를 휘두르며 외쳤다.

"자, 생클레르 형님… 읽으셨나요?"

"글랑디에 살인 사건 말입니까?"

"네. '노란 방' 사건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음… '악마'나 '하느님의 짐승'이 범인일 것 같군요."

"진지하게 말해 주시오."

"글쎄요. 벽을 타고 도망치는 살인자를 믿지는 않습니다. 자크 신부에게 실수가 있었죠. 범행 도구를 그대로 남겨둔 것 말입니다.

그는 스탕제르송 씨 방 바로 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심판사가 펼칠 그 건축학적 해부 작업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쥐어주겠지요. 그리고 곧 우리는 그 노인이 어떤 자연적인 구멍을 통해, 혹은 어떤 비밀의 문을 통해 다시 실험실로 돌아와 스탕제르송 씨 곁에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스탕제르송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테니까요.

뭐라 말씀드릴까요? 이건 가설일 뿐입니다!"

룰타비유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는 항상 손에서 놓지 않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잠시 동안 그는 침묵하며 담배를 피웠다. 분명히 그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그 열정적인 충동을 가라앉히려는 시간이었다.

그리고는 나를 업신여기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젊은이여!"

그가 말했다. 그의 어조는 내가 그 유감스러운 아이러니를 표현하려 애쓸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

"젊은이여…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유죄자를 무죄로 만들어 내는 당신의 재능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젠가 예심판사가 되어 수사를 맡게 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겠군요. 당신은 정말 재능이 풍부한 젊은이입니다."

그 말을 남긴 그는 힘차게 파이프 담배를 피워 물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어떤 숨통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란 방'의 신비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바로 그 점이 나를 끌어당긴다. 예심판사가 옳다. 이런 살인 사건은 결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살해자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생각해보셨나요?"라고 물었다.

"아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하지만 권총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권총은 살해자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사용된 것입니까?"

"글쎄요, 스탕제르송 씨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룰타비유는 어깨를 으쓱였다.

"마탱 신문의 기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나요?"

"아니, 전혀 아니야.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

"그렇다면, 자물쇠로 잠긴 문은 어때?"

"그건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부분일 뿐이야."

"정말요? 그렇다면 문고리 쪽의 빗장은요?"

"빗장은?"

"안쪽에서 빗장을 걸었다는 거야? 스탕제르송 양이 얼마나 신중하게 대비했는지 알겠지. 스탕제르송 양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했고, 심지어 자크 신부의 권총까지 가져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마도 그녀는 남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특히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 "스탕제르송 양이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그녀는 자신을 방어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녀는 권총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해 범인의 손을 다치게 했어. 그래서 벽과 문에 피 묻은 넓은 남자 손자국이 남았던 거야. 범인은 거의 더듬거리며 도망갈 출구를 찾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게 총을 쐈어. 오른쪽 관자놀이로 내려치는 치명적인 일격을 피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스탕제르송 씨의 관자놀이를 다치게 한 총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신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기는 스탕제르송 씨가 범인을 저격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관자놀이를 맞은 부상은 범인이 스탕제르송 씨를 쓰러뜨리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목 졸라 죽이려다 실패한 뒤, 그렇게 했

겠죠. 범인은 다락방에 자크 아저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소음이 없는 무기', 즉 몽둥이나 망치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의문입니다. 범인이 어떻게 '노란 방'에서 빠져나왔는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이지." 룰타비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유를 설명해야 하니까, 나는 글랑디에 성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너를 데리러 올게. 너도 같이 가자고."

"그래, 친구. 내가 너가 필요해. '레포크'가 이 사건을 내게 최종적으로 맡겼거든. 나는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로베르 다르자크가 글랑디에 성에 있어."

"맞아요… 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룰타비유는 이 말을 내게 놀랄 만큼 다른 어조로 내뱉었다.

"혹시… 혹시 그쪽에서 흥미로운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그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내 거실로 들어가며, 내 옷차림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바르베-델라투르 씨의 비서를 지낼 때,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 어느 민사 소송에서 큰 법적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다르자크 씨는 사십 전후의 나이에,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스탕제르송 가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일곱 해 동안 끈질기게 구애해 온 끝에, 마침내 스탕제르송 씨와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탕제르송 씨는 나이가 좀 든 편이었지만(서른다섯쯤 되었을 것이다), 여전히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옷을 입는 사이, 거실에서 답답해하며 서성이는 룰타비유에게 소리쳤다.

"살인자의 정체를 짐작이라도 가셨습니까?"

"네, 믿습니다. 비록 세련된 신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계급의 사람일 겁니다. 아직은 직감일 뿐이지만요."

"그런 직감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더러운 베레모와 평범한 손수건, 그리고 마루바닥에 남은 굵직한 구두 자국 때문이죠."

"이해합니다. '진실이 표현될 때'라면, 그 뒤로 이렇게나 많은 흔적을 남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너무 잘했군, 생클레르 군. 넌 무언가가 될 거야." 룰타비유가 결론을 내리며 말했다.

반 시간 뒤, 룰타비유와 나는 오를레앙 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우리가 에피네쉬르오르그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었다.

그때 코르베유 검찰청 측이 도착했다. 마르케 씨와 그의 서기가 대표로 나왔다. 마르케 씨는 전날 밤부터 파리에 머물러 있었다. 서기 역시 함께였다. 그들은 스칼라 극장에서 열리는 한 풍자극의 총연습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마르케 씨는 이 극의 숨은 작가였다. 그는 이 작품에 'Castigat Ridendo'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마르케 씨는 이제 기품 있는 귀족 노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평소 그는 예의 바르고 '우아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며, 평생 단 하나의 열정만을 품고 살아왔다. 바로 극장 예술에 대한 열정이었다.

법관으로서의 경력에서도,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 한 장면을 더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비록 적법한 가문 출신이라 최고 법관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낭만적인 생트마르탱 극장이나 사색에 잠긴 오데온 극장으로 가기 위한 '성공'만을 위해 일했을 뿐이었다.

이런 이상향은 그를 늦은 나이에 코르베유에서 예심판사로 이끌었고, 스칼라 극장에서 '웃음으로 교정한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다소 외설스러운 소극을 쓰게 만들었다.

‘노란 방’ 사건은 그 불가해한 면 때문에, 문학적 기질이 풍부한 정신이라면 누구나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케 씨는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법관으로서라기보다는 극적인 얽힘을 즐기는 아마추어처럼 몰두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사건의 미스터리에 집중시키지만, 막바지 장면에서 모든 것이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때 우리가 그를 만난 순간, 마르케 씨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서기에게 말했다.

“바라건대, 그 공사업자가 삽질 하나에 이 아름다운 미스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걱정 마십시오.” 말랭 씨가 말했다. “그 삽이 별장 정도는 무너뜨릴지 모르지만, 우리 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벽을 두들겨 보고 천장과 바닥도 살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잘 압니다.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상사를 안심시킨 말랭 씨는 은밀한 고갯짓으로 우리를 마르케 씨에게 가리켰다. 마르케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룰타비유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룰타비유는 이미 모자를 벗고 있었다. 마르케 씨는 급히 객차 문으로 달려간 뒤 기차 안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서기에게 속삭였다.

“절대 기자들은 못 들게 해!”

말랭 씨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아나는 룰타비유를 막아섰다. 그는 예심판사의 객차로 올라타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이 칸은 예약된 곳입니다……"

"실은 기자입니다. 레포크 지의 기자요." 젊은 친구가 겸손을 넘어설 듯한 예의를 다지며 말했다. "마르케 씨께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마르케 씨는 현재 수사 작업으로 매우 바쁘십니다……"

"아, 후작님의 수사는 저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하찮은 '사건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닙니다." 젊은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의 아래입술은 '사건 기사'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끝없는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는 극장 취재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스칼라 극장의 풍자극 평을 써야 하니까요……"

"오르십시오, 당신. 청컨대." 서기는 몸을 비키며 말했다.

룰타비유는 이미 객실 안에 있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서기(서기관)가 올라와 객차 문을 닫았다.

마르케 씨는 자신의 서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 각하. 룰타비유가 입을 열었다. '이 착한 사람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지시를 어긴 것은 각하께서 아니라, '웃음으로 교정하시

네!'라는 구호를 외치시는 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레포크 신문의 연극 평론가로서, 각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룰타비유는 먼저 나를 소개한 뒤,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마르케 씨는 불안한 기색으로 뾰족한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는 룰타비유에게 몇 마디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길 원한다고 전했다. 자신은 너무 겸손한 작가라, 자신의 필명 뒤에 가려진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기자의 열정이 극작가의 작품에 대한 것일 뿐, 'Castigat Ridendo'라는 필명의 주인공이 코르베유 예심 판사인 자신임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기를 바랐다.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덧붙였다.

"극작가의 작품이 법관의 업무에 해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지방에서는 아직 관습이 남아있으니까요."

"아니, 저의 침묵을 믿으십시오!"

룰타비유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외쳤다.

그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떠납니다!" 검사장이 우리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우리를 함께 타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검사님. 진리는 행진 중입니다……" 기자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랑디에 성으로 향하는 행진 중입니다. 마르케 씨,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모호한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뿐입니다, 룰타비유 씨. 바로 기자들이 나서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내 친구는 그 일격을 정확히 맞았다.

"네, 맞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간섭하죠. 제게는 우연히, 검사님, 순전히 우연히, 제가 검사님의 길목에 서게 되었고, 거의 같은 차실에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마르케 씨가 물었다.

"글랑디에 성이군요." 룰타비유는 태연하게 말했다.

마르케 씨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룰타비유 씨,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막으시려는 겁니까?" 내 친구가 이미 싸움 준비를 하며 물었다.

"아니요. 저는 언론과 기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씨가 문에 봉인을

했고, 누구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제 기자들은 단 한 명도 글랑디에의 철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저야말로 때마침 잘 온 셈이니까요."

마르케 씨는 입술을 꽉 다물더니, 고집스럽게 입을 닫고 있을 태세였다. 하지만 룰타비유가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자, 그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우리가 글랑디에로 향하는 이유는, 일생에 단 한 번 뵙고도 깊은 친분을 맺은 '친한 노교우'의 손을 꼭 잡기 위해서입니다."

룰타비유는 로베르 다르자크를 가리켜 이렇게 선언했다.

"불쌍한 로베르!" 젊은 기자가 말을 이었다. "불쌍한 로베르!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스탕제르송 부인을 그렇게도 아꼈는데 말입니다."

"로베르 다르자크의 고통은, 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마르케 씨는 마치 말을 아끼는 듯,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뱉었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부인이 구원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길 바라네… 어제 그녀의 아버지가 내게 말했어.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자신도 곧 그 뒤를 따라 묘지로 갈 것이라고… 과학계에 있어서는 측량할 수 없는 손실일세!"

"측두부의 상처가 심각합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행운이야. 그 충격은 엄청난 힘으로 가해졌어!"

"그렇다면 스탕제르송 씨를 다치게 한 것은 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룰타비유가 승리에 찬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마르케 씨는 매우 당황한 기색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치 우리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양 서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우리는 룰타비유를 이렇게 쉽게 내쫓지 못했다. 룰타비유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마탱』 신문을 꺼내 들이밀며 말했다.

"검사님, 저는 대수롭지 않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탱』의 기사를 읽어보셨나요? 그 기사는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란 방'에는 철창 난간이 달린 창문이 하나 있고, 그 난간 막대기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부수어 열렸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곳에서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니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룰타비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겨 어디론가 사라졌다. 15분이 그렇게 흘렀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룰타비유는 사건 담당 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저녁, 스탕제르송 부인의 머리는 어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르케 판사가 물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룰타비유가 재차 말했다. "앞머리를 내리 깔고 계셨죠?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날, 즉 사건이 일어난 날 밤, 그녀가 분명히 앞머리를 내리 깔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죄송하지만, 룰타비유 씨, 당신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판사가 답했다. "그날 저녁 스탕제르송 부인은 머리를 완전히 위로 말아 올린 곱슬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소 스타일이었겠지요. 이마를 완전히 드러낸 채로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고, 테러 이후로 머리는 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범행 당일 밤, 스탕제르송 씨가 '앞머리를 내린 머리'를 하지 않았다고요?"

판사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상처를 살피고 있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게 아직 귀에 선명합니다. '스탕제르송 씨가 평소 이마 위로 머리를 올리는 습관이 있어서 참 아쉽군요. 만약 앞머리를 내린 머리였다면, 관자놀이로 맞은 타격이 덜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그 점에 그렇게 중요성을 두는 것은 이상하군요……"

"아아, 만약 그녀가 앞머리를 내린 머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디로?"

룰타비유가 신음하며 말했다.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군."

그는 절망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관자놀이의 상처는 정말 끔찍한 건가요?"

"끔찍합니다."

"결국, 그 상처는 어떤 무기로 입혀진 것입니까?"

"이것은 수사상의 비밀입니다, 선생님."

"그 무기는 찾아내셨습니까?"

검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목구멍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이때 검사는 비로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목구멍의 상처는 매우 심각해서,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살인자가 그 목을 몇 초 더 조였다면, 스탕제르송 부인은 질식사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마탱 신문의 보도대로라면, 이 사건은 점점 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보입니다."

조제프 룰타비유는 집요하게 재차 물었다.

"검사님, 파빌리온의 출입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과 창문 모두요."

"다섯 개입니다." 마르케 씨가 두세 번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그가 진행 중이었던 사건의 놀랍고도 불가해한 전모를 드러내고 싶다는 충동을 더는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관 문이 있다. 이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현관 문은 항상 자동으로 잠겨 있다. 안쪽에서나 바깥쪽에서나 열리지 않으며, 오직 두 개의 특수 열쇠로만 개방할 수 있다. 이 열쇠들은 절대 파르자크와 스탕제르송 씨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이 열쇠가 필요 없다. 파르자크가 오두막에 상주하고 있고, 낮 시간 동안 그녀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사람이 마침내 현관 문을 부수고 '노란 방'으로 들이닥쳤을 때, 현관 문은 평소처럼 닫힌 채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의 두 열쇠는 각각 스탕제르송 씨와 파르자크 씨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오두막의 창문은 네 개이다. '노란 방'의 유일한 창문, 실험실의 두 창문, 그리고 현관의 창문이다. '노란 방'과 실험실의 창문은 전원을 향해 열려 있지만, 현관의 창문만이 정원을 향해 나 있다.

"저 창문으로 그가 별채에서 탈출했소!" 룰타비유가 외쳤다.

"어떻게 아시오?" 마르케 씨가 친구를 향해 묘한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살인자가 '노란 방'에서 어떻게 도망쳤는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지. 하지만 그는 현관 창문으로 별채를 떠났을 거요."

"다시 묻겠소. 어떻게 아시오?"

"하느님, 정말 간단합니다. '그'가 별채의 문으로는 도망칠 수 없다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갈 수 있는, 철망이 없는 창문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노란 방'의 창문은 농촌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실험실의 두 창문도 같은 이유에서 철망이 있을 것입니다.

‘살인자가 도망쳤으니’, 저는 그가 철망 없는 창문을 하나 찾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원을 향해 있는 현관의 창문, 즉 사유지 안쪽을 향한 창문일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마르케 씨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관 창문은 철창이 없는 유일한 창문인데, 단단한 철제 덧문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 철제 덧문은 안쪽에서 쇠 걸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인자가 바로 그 창문을 통해 별장에서 도망쳤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벽과 덧문 위에 있는 핏자국, 그리고 흙바닥에 남은 발자국. 그 발자국은 내가 ‘노란 방’에서 측정한 발자국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창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는 그림자처럼 ‘창문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살인자가 별장에서 도망치는 순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노란 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험실을 지나 현관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 조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룰타비유 씨, 이 사건은 환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열쇠를 당분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판사님,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마르케 판사가 바로잡았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도망친 뒤, 창문을 안쪽에서 다시 닫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룰타비유가 물었다.

"분명히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당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말입니다. 범행을 도운 동조자가 있거나, 혹은 여러 명이 공모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스탕제르송 씨가 오늘 정도면 interrogation(심문)을 받을 만큼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군요."

룰타비유는 생각에 잠긴 듯 계속 물었다.

"그럼 다락방은요? 다락방 쪽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세지 못했군요. 그러니 총 여섯 군데입니다. 지붕 위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락방의 작은 창호(lucarne)죠. 이 창호는 사유지 바깥쪽을 향해 있어서 스탕제르송 씨가 철창을 달아놓았습니다. 그 작은 창호와 1층 창문들의 철창은 모두 원상태로 남아 있고, 안쪽으로 열리는 덧문들은 여전히 안쪽에서 닫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다락방에서 살인자가 침입했을 만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는, 판사님, 살인자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알 수 없는 채로 현관 창문으로 도망쳤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는 셈이군요."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룰타비유가 진지하게 동의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다락방에서 살인자의 흔적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노란 방'의 마루에 남아 있는 그 검은 발자국 같은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살인자가 자크 신부의 권총을 훔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락방에는 자크 영감의 발자국만 있을 뿐입니다." 판사가 의미심장하게 고갯짓을 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다.

"자크 영감은 스탕제르송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크 영감의 권총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총이 스탕제르송 씨를 다치게 했기보다는 오히려 살인자를 다치게 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르케 판사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질문이 그를 당황하게 했을 테니까. 그는 우리에게 '노란 방' 안에서 두 개의 총알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하나는 붉은 손자국이 번져 있던 벽에 박혀 있었다. 바로 그 붉은 손자국, 바로 남자의 손이었다. 다른 하나는 천장에 있었다.

"오, 오! 천장에요?" 룰타비유가 중얼거렸다. "정말… 천장에? 이건 아주 흥미롭군요… 천장에…"

그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연기가 자욱한 구름에 둘러싸인 채였다. 우리가 에피니쉬르오르그 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툭 치며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곳에서 판사와 서기는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충분히 지켜봤으니 이제 물러나도 좋다는 신호였다. 그들은 곧장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올라탔다.

"이곳에서 글랑디에 성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립니까?" 룰타비유가 역무원에게 물었다.

"한 시간 반, 서두르지 않으면 한 시간 사십오 분쯤 걸립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룰타비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하늘의 상태를 마음에 들어 했다. 아마도 내 기분에도 맞았던 모양이다. 그는 내 팔을 끼더니 말했다.

"갑시다. 저는 걷고 싶군요."

"그래요? 잘 풀리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엉켜 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적어도 두 사람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공범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판사와 서기를 만나게 된 건 행운이었어… 아, 총에 대해 내가 뭐라고 했지?"

그는 고개를 도로 향해 숙인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쌍한 여자여…

— 스탕제르송 부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까?

— 그래, 아주 고귀한 여자야. 정말 동정할 만해. 아주 위대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야… 짐작하건데… 짐작하건데…

— 스탕제르송 부인을 아십니까?

— 나? 전혀 몰라. 단 한 번만 봤을 뿐이야.

— 왜 그녀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십니까?"

"그녀가 살인자에게 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장에 박힌 총알 때문이죠."

나는 룰타비유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그가 나를 장난 삼아 놀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갑자기 미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 젊은이가 웃으려던 기색이 조금도 없음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동그란 작은 눈에서 빛나는 지적인 광채는, 그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나는 그의 단편적인 말투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 말은 나에게는 종종 일관성 없는 신비로움으로만 들렸기 때문이다. 하

지만 그가 몇 마디 빠르고 단호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의 실마리를 건네줄 때면, 모든 것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때 그가 던졌던,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던 단어들이 순식간에 연결되었다. 그 연결의 자연스러움과 논리정연함에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나는 더 일찍 이해하지 못했을까.'

글랑디에 성은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중세 시대의 위대한 석조 건축물들이 우뚝 서 있다. 필리프 4세(벨) 치하에 숲 한가운데에 지어진 이 성은, 생트제네비에브데부아 마을에서 몽트레리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어지럽게 모여 있는 이 성채는, 중앙에 우뚝 선 망루가 압도한다. 방문자가 이 고대 망루의 흔들리는 계단을 올라 작은 플랫폼에 다다르면, 17세기에 글랑디에, 메종뇌브 등의 영주였던 조르주-필리베르 드 세키니가 세운 현재의 등대 모양 구조물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 양식은 끔찍할 정도로 로코코 양식이다.

그곳에서 3리(약 12km) 떨어진 곳을 바라보면, 계곡과 평야 위에 몽트레리의 자태 높은 탑이 보인다. 수백 세기가 흘러도 망루와 탑은 서로를 바라보며, 푸른 숲이나 죽은 나무들 위에 서서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설들을 속삭이는 듯하다.

글랑디에의 망루는 영웅적이고 성스러운 영혼, 즉 아틸라를 물리친 파리의 수호성인 성 게네비에브의 영혼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성 게네비에브는 성채의 오래된 해자(堀) 안에서 마지막 안식을 취하고 있다.

여름철, 연인들은 한 손으로 부주의하게 점심 바구니를 흔들며 풀밭에 앉아, 꽃으로 성스럽게 장식된 성인의 무덤 앞에서 몽상을 하거나 서로에게 맹세를 교환하곤 한다. 그 무덤 근처에는 기적적인 물을 담고 있다는 우물이 하나 있다. 어머니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이곳에 성 게네비에브의 동상을 세웠고, 그 발 아래에는 이 성스러운 물로 구원받은 아이들의 작은 신발이나 모자를 매달아 두었다.

이곳은 과거에 속한 곳처럼 보였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은 미래의 과학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 숲 한가운데 있는 고독함이 그들을 즉시 매료시켰다. 그들의 연구와 희망을 지켜볼 증인은 낡은 돌벽과 거대한 참나무들뿐이었다.

이곳은 예전에는 '글랑디에룸'이라 불렸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모아진 도토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참할 정도로 악명 높은 이 땅은, 소유자들의 무심함이나 방치 덕분에 원시적인 자연의 야생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오직 숨어 있던 건물들만이 기묘한 변신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세기가 거듭될 때마다 이곳에는 각 시대의 흔적이 새겨졌다. 끔찍한 사건이나 붉은 모험의 기억과 연결되는 건축물의 일부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과학이 피난처를 찾을 그 성채는, 공포와 죽음의 신비로운 사건들이 펼쳐질 무대로 딱 어울려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나는 한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생각은 다음과 같다.

글랑디에의 비참한 풍경을 조금 길게 묘사한 것은, 앞으로 독자의 눈앞에 펼쳐질 드라마에 필요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가능한 한 소박하게 쓰려 한다.

나는 작가라고 자부하지 않는다. 작가라 하면, 대개 소설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노란 방의 비밀'은 이미 현실의 비극적 공포로 가득 차 있어, 문학적 장식이 필요 없다. 나는 그저 충실한 '보도관'일 뿐이다. 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단지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짚어줄 뿐이다.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탕제르송 선생님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가 발생한 지 약 십오 년 전, 그가 글랑디에 영지를 매입했을 때 그곳은 이미 오랫동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오래된 성도, 14세기에 장 드 벨몽이 지은 그 성 역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코르베유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몇 채의 작은 집들과 한 곳의 여관, 즉 '돈죵' 여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관은 운송업자들에게 잠시 쉬어 가며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외딴곳에서

문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수도에서 몇 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한 고립이 스탕제르송 선생님과 그 딸이 이곳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스탕제르송 선생님은 이미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왔고, 그의 연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출판한 '전기적 작용에 의한 물질의 분해'라는 책은 전 세계 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은 프랑스인이었지만, 혈통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유산 문제로 인해 그는 몇 년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에서 시작했던 작업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큰 부를 쌓은 뒤 프랑스에 돌아와 그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그의 소송들은 모두 승소 판결이나 화해를 통해 유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부는 그에게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은 만약 원했다면, 새로운 염색 공정에 관한 자신의 화학적 발견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이 내려준 '발명'이라는 놀라운 재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항상 꺼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속한 것이었고, 그의 재능이 세상에 내놓은 모든 것은 자선적인 의지에 따라 공공의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 뜻밖의 부를 얻게 되어 기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한 과학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또한 다른 이유로 이 사실을 기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와 글랑디에를 샀을 때, 딸은 스무 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출산 중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파리적인 우아함을, 그리고 할아버지인 윌리엄 스탕제르송으로부터 젊은 미국 피의 찬란함과 풍부함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윌리엄 스탕제르송은 필라델피아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여성, 즉 훗날 저명한 스탕제르송 교수의 어머니와 결혼할 당시 가족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스탕제르송 교수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스무 살의 청순한 미인이었다. 금발에 푸른 눈, 우유빛 피부. 신성한 건강을 자랑할 만큼 빛나던 그녀는 구대륙과 신대륙을 통틀어 가장 손꼽히는 적령기 처녀였다.

그녀의 아버지로서는, 필연적인 이별이 가져올 아픔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면서도 결혼 문제를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게다가 지참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딸과 함께 글랑디에로 은거했다. 친구들은 그가 마틸드를 세상에 내놓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보는 놀라움을 자아냈다. 누군가 찾아와 의아해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질문이 쏟아지자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딸의 뜻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거절할 일이 없습니다. 글랑디에를 선택한 것도 그녀입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평온한 어조로 답했다. "우리가 그 고요함보다 더 잘 일할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이미 아버지의 사업에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녀의 과학에 대한 열정이 십오 년 이상이나 찾아오는 모든 구혼자를 쫓아낼 만큼 강렬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비록 두 사람은 거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몇몇 공식 행사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일 년 중 특정 시기에는 친한 살롱 두세 곳에서도 얼굴을 비쳤다. 그곳에서 교수의 명성과 마틸드의 미모는 큰 화제가 되었다.

젊은 여자의 극도로 냉담한 태도는 처음에는 구혼자들을 주저앉히지 못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은 지쳐갔다.

오직 한 사람만이 부드러운 끈기로 끝까지 버텼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영원한 약혼자'라는 별명을 받아들였다. 로베르 다르자크였다.

이제 마틸드 스탕제르송도 더는 젊지 않았고, 서른다섯이 되도록 결혼할 이유를 찾지 못한 그녀가 앞으로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아직 미혼인 채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논리는 로베르 다르자크에게는 무의미해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구혼을 멈추지 않았다. 서른다섯의 미혼 여성에게 끊임없이 정성스럽고 다정한 보살핌을 보내는 것을 '구혼'이라 부를 수나 있겠는가.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파리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소문이 돌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스탕제르송 양이 드디어 로베르 다르자크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다르자크 본인이 이 결혼설을 부인하지 않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 소문에 약간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스탕제르송 박사는 어느 날 과학 아카데미를 나서며 공식 발표했다. 딸과 다르자크의 결혼식은 두 사람이 '물질의 해리', 즉 물질이 에테르로 돌아가는 과정에 관한 그들의 모든 연구를 요약한 보고서를 완성하는 즉시, 글랑디에 성에서 친척들만 모인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고 했다.

새 부부는 글랑디에에 정착할 예정이었으며, 사위인 다르자크는 아버지와 딸이 평생을 바친 이 연구 작업에 협력할 것이었다.

과학계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아직 경황이 없었다. 스탕제르송 양이 살해당했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 살해 현장은 우리가 이미 열거한 것처럼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리고 성(城)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 정황을 한층 더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독자가 '노란 방'의 문턱을 넘을 때, 나와 동등한 정보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주저 없이 이 모든 회상적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의 교분을 통해 내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룰타비유와 함께 몇 분을 걷고 있었다. 우리는 스탕제르송 씨의 넓은 소유지를 둘러싼 벽을 따라 걷고 있었고, 이미 입구에 있는 철제 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은 땅에 반쯤 굽혀진 채로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때로는 몸을 숙이거나 거의 바닥에 엎드리는가 하면, 다시 일어나서 벽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손바닥을 향해 무언가를 살펴보고, 큰 걸음으로 걸어가거나 달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른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룰타비유가 손짓으로 나를 멈추게 했다.

"잠시만,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작업을 하고 있군. … 그를 방해하지 말자."

조제프 룰타비유는 그 유명한 형사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 나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금화 주조국 금괴 사건은 그가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해결했고, 크레디트 유니버설 금고 절도범 체포 사건은 그의 이름을 거의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때 조제프 룰타비유가 아직 독특한 재능의 놀라운 증거를 내놓지 않았을 때, 그는 가장 신비롭고 어두운 범죄들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통했다. 그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졌고, 런던이나 베를린, 심지어 미국의 경찰들도 국가적 형사들과 탐정들이 상상력과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인정할 때 종종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노란 방'의 신비한 사건이 시작된 초기부터 수경서장은 이미 런던에 있는 그의 소중한 부하에게 전보를 치는 것을 생각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큰 채권 도난 사건 때문에 런던에 파견되어 있었다. "빠르게 돌아오라." 수경서장에서 '큰 프레드'로 불렸던 프레데리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방해받으면 그의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렀다. 그래서 룰타비유와 나는 그날 아침 이미 그를 일하는 자리에서 발견했다. 우리는 곧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다.

그가 오른쪽 손바닥 오목한 곳에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것은 바로 그의 시계였다. 그는 분을 세느라 무척 바빠 보였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한 번 더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원의 철문 앞에서야 비로소 멈췄다. 시계를 다시 확인한 그는 주머니에 넣은 뒤, 실망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는 고개를 들었다. 철창 너머로 우리를 발견했다.

룰타비유가 뛰어나갔다. 나도 그를 따라갔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레드 씨," 룰타비유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그는 젊은 기자가 유명 형사에게 품고 있던 진심 어린 존경을 바탕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지금 성에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파리 변호사 협회의 친구 한 분이 그분과 면담하고 싶어 합니다."

"글쎄요, 룰타비유 씨. 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드가 내 친구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그는 과거 가장 난해했던 사건들을 수사하던 중 몇 차례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인들을 물어보면 알 수 있겠군요." 룰타비유가 문을 닫아걸고 창문도 봉해진 작은 벽돌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은 분명히 재산의 충실한 수호자들을 위한 집이었다.

"관리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룰타비유 씨."

"왜 그런가요?"

"반 시간 전부터 그들, 즉 관리인들이 연행됐기 때문입니다!"

"연행됐다고요!" 룰타비유가 외쳤다. "그들이 범인입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범인을 잡지 못할 때는, 최상의 아이러니를 담아 말하자면, 공범이라도 찾아내 그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법이지."

"프레드 씨, 그들을 연행하신 건 당신인가요?"

"아, 절대 그렇지! 내가 연행한 건 아닙니다. 첫째, 그들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거의 확신하기 때문이고, 둘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룰타비유가 초조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르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룰타비유는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공범 따위는 없다'는 뜻이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발걸음을 확 멈췄다. 그는 기자를 향해 흥미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 아! 그럼 그 사건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있는 모양이군. 그런데 젊은이,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소. 아직 이 곳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오."

"저는 들어갈 겁니다."

"그건 의심스럽구려. 지시가 분명하오."

"당신이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만나게 해준다면요. 제게 그걸 해주세요. 우리 둘은 오래된 친구잖아요. 프레드 씨, 간곡히 부탁합니다. '금괴' 기사에 대해 제가 써드렸던 훌륭한 기사가 기억나시죠?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 한 줄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룰타비유의 표정은 정말로 코믹했다. 그는 저 너머에서 기적 같은 비밀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문턱을 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얼굴 전체에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입과 눈뿐만 아니라 모든 표정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어서, 나는 억지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왔다. 프레데리크 라르상도 나만큼은 진지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철망 너머에서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차분하게 주머니에 열쇠를 다시 넣었다. 나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오십 전후의 나이로 보이는 남자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피부는 거무스름했으며, 단단한 인상의 이목구비를 가졌다. 이마는 돌출되어 있었고, 턱과 뺨은 깔끔하게 면도되었다. 수염은 없었지만 입술선은 정교하게 그어져 있었다. 눈은 다소 작고 동그란데, 사람을 정면

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 놀라움을 자아냈고,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키는 평범했지만 체격은 잘 잡혀 있었다. 전체적인 풍채는 우아하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졌다. 평범한 형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가였다. 그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대화 태도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다. 기이한 그의 직업 때문에 그는 수많은 범죄와 추악한 일들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그래서 룰타비유의 기묘한 표현대로, 그의 직업이 그의 감정을 조금 '무디게 만들지' 않았다면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르상이 뒤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에피네 역에서 예심판사와 서기를 태우고 달아났던 그 카브리올레를 알아봤다.

"자, 보세요!"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말했다. "당신이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저기 있습니다!"

카브리올레는 이미 대문 앞에 다다랐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라르상에게 정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급하다고, 에피네 역에서 파리행 다음 열차를 탈 수 있을 만큼의 시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때 그가 나를 알아봤다.

라르상이 문을 열 동안, 다르자크 씨는 왜 이런 비극적인 순간에 글랑디에에 왔는지 물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가 죽을 만큼 창백해져 있고, 얼굴에 끝없는 고통이 서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틸드 스탕제르송 여사는 호전되셨나요?" 내가 곧장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어쩌면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구해야 해요."

그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죽을 테지만"이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핏기 없는 입술 끝에서 문장이 떨리는 소리가 느껴졌다.

그때 룰타비유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그는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물었다. "열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문도 닫겠습니다."

라르상은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성 쪽으로 향했다.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장엄한 건물의 모습이 보였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눈썹을 찌푸리며 이미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나는 룰타비유를 훌륭한 친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가 이 젊은이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르자크 씨는 큰 비난을 담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20분 안에 에피네에 도착해야 한다는 핑계로 변명했고, 인사를 나눈 뒤 말에 채찍질을 가했다.

그러나 이미 룰타비유는 내 깊은 경악 속에 말의 고삐를 잡아채고, 힘찬 주먹으로 작은 마차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장을 읊조렸다.

"사제관은 여전히 그 매력을 조금도 잃지 않았고, 정원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소."

룰타비유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베르 다르자크가 몸을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이미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젊은이를 똑바로 응시했고, 말도 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즉시 마차에서 내려섰다.

“자, 가자! 자!”

그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분노에 찬 듯 외쳤다.

“자, 가자, 선생님! 자!”

그는 더 이상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다시 걸었다. 룰타비유는 여전히 말을 잡고 뒤따랐다. 나는 다르자크 씨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눈짓으로 룰타비유를 물었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성에 도착했다.

오래된 망루는 루이 14세 시대에 완전히 재건된 건물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또 다른 현대식 건물체가 이어져 있었는데, 그 양식은 비올레르뒤크 스타일이었다. 주 출입구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토록 독창적인, 아니 어쩌면 그토록 추악한,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기이한 건축 양식을 본 적이 없었다. 서로 다른 양식이 어우러진 그 기묘한 조합은 괴물 같았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문 앞을 거닐고 있는 두 명의 헌병이 보였다. 이 작은 문은 망루의 1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곧 알게 되었다. 이 1층은 과거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물건을 쌓아두는 방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관리인 베르니에 부부가 감금되어 있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우리를 거대한 '마르키즈'가 덮고 있는 넓은 문으로 안내해, 성의 현대식 부분으로 들여보냈다. 룰타비유는 말과 캐리지를 하인의 손에 맡긴 뒤였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순간도 다르자크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그의 시선을 따라가 봤다. 다르

자크 씨의 눈은 오직 소르본 대학 교수의 장갑 낀 두 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가 낡은 가구들로 가득한 작은 접견실에 들어섰을 때, 다르자크 씨는 조제프 룰타비유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다소 거칠게 물었다.

"말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죠?"

기자 출신인 룰타비유도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서요."

다르자크 씨는 뒤로 물러섰다.

"무슨 뜻이죠?"

물론이었다. 그는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친구가 그에게 끔찍한 흉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노란 방' 벽에 남은 피투성이 손자국이 그에게 선명하게 비친 것이다.

나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고고한 표정과 곧은 눈빛을 지녔던 그였는데, 지금은 어찌나 이상하게도 초점이 흐트러져 있는지. 그가 오른손을 내민다. 나를 가리키며 말한다.

"당신은 생클레르 씨의 친구 아닙니까. 그분은 정당한 일로 제게 뜻밖의 큰 도움을 베푸셨지요. 그러니, 손은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

룰타비유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놀라울 만큼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

"선생님, 저는 러시아에서 몇 해를 살았습니다. 거기서는 장갑을 벗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악수를 나누지 않는 습관이 있더군요."

소르본나의 교수님이 이제껏 참아오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격렬한 의지력을 발휘해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오!" 룰타비유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친구, 잠시 우리만 남게 해달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방금 본 것과 들은 것이 너무도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내 무례하고 모욕적이며 멍청한 친구를 문밖으로 내던지지 않은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장갑 사건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룰타비유의 의심을 품었던 그에게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성 앞을 약 이십 분간 거닐었다. 그날 아침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서로 연결해 보려 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룰타비유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로베르 다르자크를 살인자로 지목한 것일까. 며칠 뒤면 마틸드 스탕제르송과 결혼할 예정인 그 남자가, 어찌 노란 방에 숨어들어 약혼자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살인자가 어떻게 노란 방에서 빠져나왔는지,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하나, 귀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한 문장이 있었다.

"성직자 관사는 매력을 잃지 않았고, 정원은 빛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싶었다. 나는 서둘러 룰타비유와 혼자 만나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그때 젊은이가 로베르 다르자크와 함께 성채에서 나왔다.

놀랍게도, 나는 첫눈에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노란 방'으로 갑니다. 함께 오세요. 친구여, 당신을 하루 종일 데려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저와 함께 드세요, 선생님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돈죵' 여관에서 식사를 할 거예요…"

"거기는 매우 불편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거기에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기사를 작성하고, 당신은 그것을 편집국에 가져다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저와 함께 돌아오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잡니다."

나는 룰타비유를 돌아보았다. 그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고,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우리는 그때 망루를 지나고 있었는데,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룰타비유가 물었다.

"왜 저 사람들은 체포된 겁니까?"

"조금 제 탓이죠." 다르자크 씨가 말했다. "어제 심판관에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성을 듣고, 옷을 입고, 그들 숙소와 파빌리온 사이를 꽤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총성이 난 직후부터 자크 영감이 그들을 발견하기까지 2분 이상 흐르지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수상하군요." 룰타비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군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단단하고 따뜻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옷차림에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여성은 나무신을 신었지만, 남성은 '끈을 맨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소처럼 밤 아홉 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아침, 재판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과 같은 구경의 권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증거품인 범행용 권총에는 손대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기에게 '노란 방'의 창문과 문이 닫힌 채로 된 상태에서 권총을 두 발 사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비원들의 숙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경비원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파빌리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범행의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르케 씨는 그들을 즉시 체포했다.

"그들이 연루자였다면, '옷차림이 엉망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자신의 죄증을 온몸에 안고서 법정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건에 연루자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정에 밖에 나와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를 대라!"

"그들이 침묵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을 거야. 문제는 그 이득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지. 비록 그들이 공범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여전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이런 밤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중요하니까."

우리는 두브 강 위에 놓인 낡은 다리를 건너 '샤네'라 불리는 공원 구간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참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다.

가을은 이미 노랗게 시든 나뭇잎을 오므라들게 했고, 검은 뱀처럼 굽이치는 높은 가지들은 끔찍한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그것은 거대한 파충류들이 얽힌 매듭 같았으며, 고대 조각가가 메두사의 머리 위에 꼬아 넣었던 그 끔찍한 형상과도 같았다.

이곳은 스탕제르송 부인이 여름마다 즐겨 찾던 곳이었다. 그녀는 이곳이 활기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찾은 이 계절에는 그곳이 슬프고 장엄하게 변해 있었다. 땅은 검은색이었고, 최근 내린 비와 썩은 낙엽의 진흙으로 젖어 있었다. 나무 줄기도 검었고, 우리 머리 위의 하늘조차 애도하는 듯 무거운 구름을 몰고 왔다. 그리고 어둡고 황량한 이 은신처에서, 우리는 별채의 하얀 벽을 볼 수 있었다.

이상한 건물이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창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작은 문 하나가 그 입구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무덤 같았다. 버려진 숲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묘사(墓舍)처럼 보였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건물의 배치가 눈에 들어왔다. 이 건물은 남쪽, 즉 재산의 다른 쪽, 시골 쪽으로 필요한 모든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원을 향한 작은 문을 닫아 버리면, 스탕제르송 부부는 여기서 자신들의 연구와 꿈을 안고 살기에 이상적인 감옥을 얻게 될 터였다.

나중에서 설명하기보다, 지금 바로 이 별채의 평면을 제시하겠다.

이 건물은 몇 계단을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지상층과, 꽤 높은 다락방 —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다락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지상층의 평면도다. 그 단순함 그대로.

그 도면은 룰타비유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다. 나는 그 도면에 결함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 하나, 단서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면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을 통해 독자는 룰타비유가 처음 파빌리온에 들어섰을 때의 지식을 그대로 얻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궁금해했다. "살인자는 노란 방에서 어떻게 도망쳤을까?"

2. 실험실. 철창이 쳐진 두 개의 큰 창문과, 하나는 현관으로, 다른 하나는 노란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3. 현관. 철창이 없는 창문과 공원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

4. 화장실.

5.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

별채 문 앞의 세 계단을 올라가기 직전, 룰타비유가 우리를 제지했다. 그는 다르자크에게 거리낌 없이 물었다.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스탕제르송의 약혼자가 깊은 슬픔을 머금고 말했다. "손자국과 스탕제르송 씨 가슴과 목에 난 깊은 찰과상은, 그곳에 있던 비열한 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려 했음을 증명합니다."

"어제 그 상처를 검사한 전문가들은, 그 자국이 벽에 남아 있는 피범벅의 손자국과 같은 손에서 나왔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말 거대한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장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큰 손이요." 그는 쓴웃음과 함께 정의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붉은 자국은 스탕제르송 부인이 쓰러지는 순간, 벽에 부딪히며 피 묻은 손바닥이 미끄러져 남긴 흔적일 수는 없을까요?"

"스탕제르송 부인을 들어 올릴 때, 그녀의 손에는 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다르자크의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확실하군요. 스탕제르송 부인이 자크 영감의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범인의 손을 다치게 했으니까요. 그녀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다르자크가 룰타비유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때 룰타비유가 나에게 말했다.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친구. 마르케 씨라는 작은 비밀쟁이가 우리에게 숨기려 했던 것보다 수사가 훨씬 진전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수사는 이제 스탕제르송 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 권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탕제르송 씨를 공격하고 때린 무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즉시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다르자크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무기는 '양 뼈'였습니다.

도대체 마르케 씨는 왜 이 양 뼈를 그토록 신비롭게 감싸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보안국 요원들의 수사를 돕기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그는 이 끔찍한 살인 도구를 사용해 온 파리의 저급한 범죄자들 중 한 명을 곧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룰타비유가 경멸하는 듯한 조소 섞인 어조로 덧붙였다.

"그럼 노란 방에서 '양 뼈'를 찾아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각하." 로베르 다르자크가 침대 옆에서 말했다. "하지만 제발,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해 주십시오. 마르케 씨께서 비밀을 요구하셨거든요."

나는 반발의 제스처를 취했다.

다르자크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것은 양의 거대한 뼈조각이었습니다. 뼈의 머리 부분, 정확히 말해 관절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스탕제르송 씨에게 가한 끔찍한 상처의 피로 아직 선명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양뼈였습니다. 겉보기에 이미 몇몇 범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르케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그 뼈를 파리로 보내 시립 실험실에서 분석하게 했다. 마르케 씨는 그 뼈에서 최근 피해자의 신선한 피뿐만 아니라, 건조된 피 얼룩의 흔적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 얼룩들은 과거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양고기 뼈는 '숙련된' 살인자의 손에서 끔찍한 무기가 됩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무거운 망치보다 더 '유용'하고, 더 안전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참한 자는 이미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고통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양뼈가 스탕제르송의 이마에 가한 타격은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양뼈의 관절부가 상처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만약 살해자가 총을 쏘는 순간, 스탕제르송의 권총에 의해 반쯤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이 상처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손에 부상을 입은 살해자는 양뼈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다르자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불행히도, 양뼈로 내리친 그 한 방은 이미 발사되어 이미 도달해 있었습니다. 스탕제르송은 목이 졸릴 뻔한 끝에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스탕제르송이 첫 번째 권총 발사로 그 남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아마도 양뼈의 타격은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너무 늦게 권총을 집었을 겁니다. 게다가 격투 중 첫 번째 발사는 빗나갔고, 총알은 천장에 박혔습니다. 실제로 명중한 것은 두 번째 발사였습니다."

다르자크 씨는 그렇게 말한 뒤,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다.

현장, 즉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내 조바심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 둘까? 나는 떨리고 있었다. 양의 뼈에 얽힌 이야기가 지닌 거대한 흥미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길어지고 오두막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는 속이 타들어 갔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문턱에는 자크 신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예순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다. 긴 하얀 수염, 베레모를 쓴 하얀 머리카락, 닳아빠진 갈색 벨벳 정장, 그리고 나무신발. 그는 투덜거리는 표정을 짓고 있어 처음에는 다소 험상궂어 보였으나,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얼굴이 밝아졌다.

"친구들입니다." 안내인이 간단히 대답했다.

"파빌리온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자크 신부님?"

"저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로베르 씨. 하지만 물론 그 지시는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왜요? 형사들이 보고 싶은 건 다 봤잖아요. 그림도 많이 그렸고, 조사서도 많이 작성했어요. 이제 충분하죠."

"잠시만요, 자크 씨. 다른 질문보다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답할 수 있다면요."

"당신의 여주인이 '그날 밤'에 이마를 덮는 앞머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시죠, 이마를 덮는 앞머리요?"

"아니요, 작은 선생님. 제 여주인은 말씀하신 대로 앞머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다른 날도 모두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올

렸죠.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운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이마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이 말이죠."

룰타비유는 중얼거리더니 곧장 문을 살폈다. 그는 자동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이 문은 결코 열린 채로 둘 수 없으며, 열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복도로 들어섰다. 붉은 타일이 깔린, 제법 밝은 작은 방이었다.

"아, 여기가 창문이군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범인이 도망친 곳 말입니다."

"그들이야 그렇게들 말하죠, 선생님, 말이야 그렇게들 하죠! 하지만 만약 그가 그곳으로 도망쳤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정말요! 우리 눈이 멀었나요? 스탕제르송 선생님도, 저도,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넣은 경비원들도 말이죠."

"그럼 왜 저를 감옥에 넣지 않는 거죠? 제 권총 때문에요!"

룰타비유는 이미 창문을 열고 덧문을 살펴보고 있었다.

"범죄 당시 덧문은 닫혀 있었나요?"

"철제 고리에 걸려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자크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인자가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갔다는 것을요."

"피 얼룩이 있나요?"

"네, 보세요. 저기 돌 위에 바깥쪽에요. 하지만 무슨 피인지요?"

"아!" 룰타비유가 말했다. "발자국이 보입니다. 저기 길 위에요. 땅이 매우 젖어 있었군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자크 신부가 말을 끊었다. "범인은 저쪽으로 안 왔어요!"

"그럼, 어디로 왔다는 거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룰타비유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맡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현관 바닥 타일이 더럽혀진 것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자크 아저씨는 계속 말했다.

"아무것도 못 찾으실 거예요, 젊은 선생님. 우리도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더러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유리창을 닦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범행 당일에는 제가, 자크 신부가, 이 모든 것을 큰 물로 닦았어요. 만약 범인이 그 투박한 발로 저쪽으로 왔다면,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는 마들모아젤의 방에서 그의 투박한 구두 자국을 충분히 남겼어요!"

룰타비유는 일어나서 물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 타일을 닦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크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당일 오후 다섯 시 삼십 분쯤에요. 마틸드 님과 그녀의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기 전, 여기서 산책을 하셨던 때였죠. 그들은 바로 이 실험실에서 저녁을 드셨거든요.

다음 날 판사가 오셨을 때, 바닥에 남은 발자국 자국이 마치 흰 종이 위에 먹으로 그린 듯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험실도, 새 동전처럼 반짝반짝 깨끗한 현관도, 어느 곳에서도 그 남자의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발자국이 창가 밖, 즉 '바깥'에서 발견되었다니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노란 방'의 천장을 뚫고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다시 지붕을 뚫고 밖으로 나갔다가, 현관 창문으로 다시 내려와 매달려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노란 방' 천장에는 구멍이 없어요. 물론 제 다락방에도요.

자, 이제 보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요. 정말로 아무것도요. 그리고 영원히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마귀 같은 수수께끼입니다!"

룰타비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복도 깊숙이 자리한 작은 화장실 문 바로 앞이었다. 그는 그 자세로 적어도 일 분간이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일어나자 내가 물었다.

"어때?"

"아, 별것 아니야. 피 한 방울이지."

젊은이는 자크 신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실험실과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복도의 창문은 열려 있었나요?"

"방금 막 창문을 연 참이었어요. 주인님을 위해 실험실 난로에 숯불을 피웠거든요. 신문지로 불을 붙이다 보니 연기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실험실 창문과 현관 창문을 모두 열어 환풍구를 만들었죠. 그 후 실험실 창문은 닫고 현관 창문만 열어둔 채 잠시 성으로 가서 행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후 다섯 시 삼십 분쯤 돌아와서 타일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닦고 난 뒤에도 현관 창문은 열어둔 채로 다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빌리온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주인님과 아가씨가 실험실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죠."

"스탕제르송 씨와 아가씨가 들어갈 때 창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분들이 닫았는지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룰타비유는 작은 화장실과 다락으로 이어지는 계단장 안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우리 존재를 잊은 듯이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고백하건대, 그를 따라 들어가는 내내 심장이 철렁거렸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친구의 행동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노란 방'의 문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아니, 실험실 쪽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문이 절반쯤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문에 달려들던 이들의 격렬한 힘이 문을 부수고 만 것이다.

내 젊은 친구는 꼼꼼한 방법론으로 일을 처리하듯,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서 있는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넓고 환했다. 거의 창문이 아닌 거대한 개구부인 두 개의 큰 창문이 있었고,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광활한 시야가 펼쳐져 있었다. 숲을 뚫고 나온 듯한 그 전망은 계곡 전체와 평야를 조망했고, 멀리 끝자락에 자리한 큰 도시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맑은 날이면 그 도시가 분명히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땅 위는 진흙투성이였고, 하늘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이 방 안에는 피가 흘렀다.

실험실 한쪽 전체가 거대한 벽난로와 용기, 그리고 모든 화학 실험에 적합한 노들로 채워져 있었다. 유리구슬 병과 물리 실험 기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유리병과 종이, 서류 더미로 가득한 책상, 전기

기계, 전지들이 놓여 있었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말했다. 스탕제르송 교수가 "태양광의 작용 아래서 물질의 해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던 그 기구도 있었다.

그리고 벽을 따라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선반들은 가득 차 있거나 유리창이 달린 선반들이었다. 현미경과 특수 사진 장비,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결정들이 보였다.

룰타비유는 벽난로 깊숙이 코를 박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도가니 안을 뒤지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반쯤 타버린 작은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였다.

그는 창가 근처에서 수군거리고 있던 우리 쪽으로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보관해 두십시오, 다르자크 씨."

다르자크 씨가 룰타비유의 손에서 재가 앉은 종이 조각을 받아 들었다. 나는 그 위로 몸을 기울여 읽어 보았다. 남아 있던 글자는 다음과 같았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월 23일"

이 날 아침, 이 같은 미친 듯한 말이 두 번이나 내 귀를 때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이 소르본의 교수인 다르자크에게 어떤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지 내가 목격했다.

다르자크 씨의 첫 번째 행동은 자크 신부 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창가에 서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에, 우리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약혼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그는 종이를 그 안에 꼭 쥐어 쥐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주님!"

그때 룰타비유는 굴뚝 안으로 올라갔다. 그는 난로의 벽돌 위에 서서, 점점 좁아지는 굴뚝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머리 위 오십 센티미터 지점에서 굴뚝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벽돌에 박힌 철제 판들이 그 공간을 차단하고 있었으며, 그 판 사이로 지름 약 십오 센티미터인 세 개의 파이프만 남아 있었다.

"저기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군."

젊은이가 실험실 안으로 뛰어내리며 말했다.

"게다가 만약 '그'가 그 길을 시도했다면, 이 모든 철덩어리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을 거야. 아니야, 아니! 그쪽은 아니야.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다른 곳이지…"

룰타비유는 이어 가구를 살피며 찬장을 열었다. 그다음은 창문 차례였다. 그는 그 창문들이 넘기 어렵고, 이미 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두 번째 창문 근처에서 그는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자크 신부를 만났다.

"자크 신부, 거기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경찰 형사 놈이 연못 둘레를 계속 돌고 있구려… 다른 놈들보다 더 많은 걸 보진 못하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영리한 놈이로군."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모르십니까, 자크 신부?" 룰타비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 여기서 범인을 찾아낼 자가 있다면, 바로 그일 겁니다, 틀림없이."

룰타비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이를 다시 찾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이를 놓쳤는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자크 신부는 완고하게 되받았다.

드디어 우리는 '노란 방'의 문 앞에 다다랐다.

"바로 이 문 뒤에서 무언가 일어난 겁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숙함이 가득했고,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 태도는 오히려 코믹하게 보였을 것이다.

룰타비유가 노란 방의 문을 밀어 열자, 그는 문턱에 서서 멈춰 섰다. 그리고 나중에야 내가 그 감정의 의미를 깨닫게 될, 그런 깊은 감동을 머금고 말했다.

"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향기!"

방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자크 신부가 창문을 열려 했지만, 룰타비유가 그를 제지했다.

"그 사건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젊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드모아젤은 자기 책상 위에 등불을 켜두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매일 밤 자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켜주던 이는 바로 저였죠. 말하자면 저는 밤이 되면 거의 그녀의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짜 하녀는 아침에만 가끔 올 뿐이었으니까요. 마드모아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 등불이 놓인 책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네,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등불을 켤 수 있습니까?"

"등불이 깨졌고, 책상이 쓰러지면서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커튼만 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룰타비유는 실험실로 돌아와 두 창문의 판자와 현관문을 닫았다.

우리가 어둠속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초 모양의 성냥을 하나 켜서 자크 신부에게 건넸다. 그리고 신부에게 그 성냥불을 가지고 '노란 방' 한가운데로 가라고 일렀다. 그 밤에는 그 자리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현관에 나무신을 벗어두곤 하던 자크 신부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는 성냥불을 든 채 '노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죽어가는 작은 불빛에 희미하게 비친 방 안을 보았다. 바닥에는 넘어진 물건들이 있었고, 구석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 왼쪽, 맞은편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어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됐습니다! 덧문을 열어도 됩니다."

"특히나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크 신부가 간곡히 청했다. "신발로 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판사의 지시입니다. 이미 사건은 결론이 난 줄 알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지시가 나온 겁니다."

그가 커튼을 젖혔다. 창백한 낮빛이 방안으로 들어와, 사프란색 벽 사이로 처참한 혼란을 비췄다. 복도와 연구실은 타일로 깔려 있었지만, '노란 방'은 마루판으로 되어 있었다. 마루판 전체를 덮고 있던 노란색 짚모양 깔개는 침대와 화장대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화장대는 침대와 함께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가구였다.

가운데 있는 둥근 테이블과 침대 옆 테이블, 그리고 두 개의 의자는 모두 뒤집혀 있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이 노란 깔개 위에 있는 큰 피 얼룩을 가리지는 않았다. 이 피 얼룩은 스탕제르송 양의 이마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작은 피방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살인자의 발자국, 즉 크고 검은 발자국을 따라간 것처럼 보였다.

이 피방울들은 한때 붉은 손을 벽에 찍었던 남자의 상처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되었다. 벽에는 그 손의 흔적이 더 있었지만, 훨씬 덜 선명했다. 분명히 그것은 피투성이의 거친 남자의 손이 남긴 자국이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보십시오! 벽에 있는 이 피를요. 여기서 손바닥을 단단히 밀었던 남자는 당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문을 잡고 있다고 믿었죠. 문을 밀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게 눌렀고, 노란 벽지 위에 끔찍할 정도로 자백하는 듯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그런 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손은 크고 힘이 세며, 손가락들이 거의 모두 같은 길이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없습니다. 손바닥 자국만 남아 있죠. 그리고 이 손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나는 계속 말했다.

"이 손이 벽에 기대더니, 벽을 더듬거리며 문을 찾고, 마침내 문을 발견한 뒤, 자물쇠를 찾아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이지." 룰타비유가 비웃듯 웃으며 말을 끊었다. "하지만 자물쇠나 빗장에는 피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건전한 상식으로 대답했다. "그 남자는 왼손으로 자물쇠와 빗장을 열었을 거예요. 오른손이 다쳤으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는 아무것도 열지 않았다고!" 자크 신부가 다시 외쳤다. "우리가 미친 건 아니야! 우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는 우리 네 명이었어!"

"참 이상한 손이군. 그 이상한 손을 좀 보게!" 내가 말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손이에요."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그의 그림은 '벽을 미끄러지며' 왜곡되었을 뿐이다. "그 남자는 다친 손을 벽에 닦았을 거야. 그리고 그 남자의 키는 1미터 80센티미터야."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벽에 찍힌 손자국의 높이를 보고서요."

내 친구는 이어 벽에 난 총자국을 살폈다. 그 자국은 동그란 구멍 하나였다.

"이 총알은 '정면'에서 날아왔어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따라서 위쪽에서든 아래쪽에서든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지적했다. 총자국이 손자국보다 벽면에서 몇 센티미터쯤 아래쪽에 있다는 점이었다.

룰타비유는 다시 문 쪽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의 코는 자물쇠와 빗장 가까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바깥에서 문을 부수며 강제로 열었군요. 문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자물쇠는 잠겨 있고, 빗장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두 개의 걸쇠가 거의 뽑혀 나간 채, 나사 하나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기자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시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을 좌우로 살피며 확인했다. 빗장을 '바깥'에서 잠그거나 여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그리고 열쇠가 '안'쪽에서 잠금장치에 꽂혀 있다는 점을 말이다.

그는 또 한 번 확인했다. 열쇠가 안쪽에 꽂혀 있다면, 다른 열쇠로 바깥에서 그 잠금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침내 그는 문에 '자동 잠금 장치가 전혀 없으며, 매우 튼튼한 잠금 장치와 빗장이 달려 있어 모든 문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좀 나아졌군!"

그리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재빨리 신을 벗었다.

그는 양말만 신은 채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가 먼저 한 일은 넘어진 가구를 향해 몸을 굽히고, 극도로 세심하게 그것들을 살피

는 것이었다. 우리는 침묵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자크 신부는 점점 더 비꼬는 어조로 그에게 말했다.

"오, 내 어린아! 오, 내 어린아! 정말 고생이 심하군!"

그러나 룰타비유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한 말은 다 맞습니다, 자크 신부. 그날 밤 마담은 머리를 가르마를 타 양옆으로 빗어 내린 머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믿다니, 정말 멍청한 놈이었군요!"

그는 뱀처럼 유연한 몸으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때 자크 신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세상에, monsieur, 범인이 바로 그 아래 숨어 있었다니요! 제가 열 시에 덧창을 닫고 등불을 켜러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었어요.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스탕제르송 씨도, 마틸드 양도, 저 역시 실험실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침대 아래에서 룰타비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크 씨, 스탕제르송 씨와 마틸드 양은 몇 시에 실험실에 들어와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섯 시였습니다!"

룰타비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그 사람이 그 아래로 들어왔군요… 분명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는 그곳 말고 숨을 곳이 없었죠. 여러분 네 분이 들어오셨을 때, 침대 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즉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침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나서야 제자리에 놓았죠."

"그리고 매트리스 사이도요?"

"그 침대 위에는 마틸드 부인을 눕힌 매트리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과 스탕제르송 선생은 그 매트리스를 즉시 실험실로 옮겼죠. 매트리스 아래에는 금속 스프링 매트리스 프레임만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생님, 우리 넷이 함께 있었는데다, 방이 워낙 작고 가구가 거의 없었으며, 우리 뒤에 있는 빌라 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니, 아무것도 우리 눈앞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가설을 내놓았다.

"어쩌면 그는 매트리스와 함께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매트리스 안에 숨겨서 말이죠… 이런 수수께끼 앞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당황한 스탕제르송 씨와 관리인은 두 배의 무게를 나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관리인이 공범이라면요…" 이 가설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라며, 다만 이 설명이 많은 의문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험실과 현관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는데, 노란 방 안에는 발자국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틸드 양을 실험실에서 성채로 옮길 때, 매트리스가 잠시 창문 근처에 멈춰 섰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남자가 도망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룰타비유가 의도적으로 웃으며 침대 아래서 외쳤습니다.

나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정말, 도무지 알 수 없군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크 신부가 말했다.

"판사 조사관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매트리스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죠. 물론 그 아이디어는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의 친구가 웃고 있는 것처럼요. 그 매트리스가 이중 바닥일 리 없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매트리스 속에 사람이 숨어 있었다면, 분명히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터무니없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가!

내 친구만이 그 답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잠깐만요!" 기자가 다시 외쳤다. 여전히 침대 아래에 엎드린 채로. "이 카펫, 많이 움직였나요?"

"저희가요, monsieur." 자크 아저씨가 설명했다. "범인을 찾지 못하자, 저희는 바닥에 구멍이 있는지 의심했어요."

"구멍은 없습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지하실이 있나요?"

"지하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죠. 판사님, 특히 서기님은 지하실이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바닥판을 한 장 한 장 뜯어보며 샅샅이 뒤졌으니까요."

그때 기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눈은 빛나고 코는 벌름거렸다. 마치 성공적인 사냥터에서 돌아온 어린 동물 같았다. 그는 네 발로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였다. 솔직히 말해, 내 생각에 그를 비유할 만한 가장 적절한 존재는 놀라운 사냥개였다. 그는 어떤 놀라운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와 같았다. 그는 남자의 발자국을 맡았다. 바로 그 남자의 발자국을. 그는 그 남자를 자신의 주인인 레포크 신문 사장에게 데려가야 했다. 우리 조제프 룰타비유가 기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네 발로 바닥에 엎드린 채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는 모든 것을 맡아보며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화장대 테이블은 네 개의 다리에 얹힌 단순한 판자 하나였다. 일시적인 은신처로 변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찬장도 없었다. 스탕제르송 양의 옷장은 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룰타비유의 코와 손이 벽을 타고 올라갔다. 벽은 온통 두꺼운 벽돌로 되어 있었다.

벽을 다 뒤진 그는, 재빠른 손가락으로 노란 벽지 전체를 훑었다. 그러다 의자를 화장대 위에 올리고, 방 안을 구석구석 밀어 다니는 그 기발한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까지 닿을 수 있었다. 천장에서는 다른 총알의 자국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창가로 향했다. 철창과 창문이 차례로 그의 손길을 받았다. 모두 단단하고 흠집 하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 우리한테 그 불쌍하고 가여운 아가씨가 살해당할 때, 그녀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녀는 방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지!" 자크 신부가 신음했다.

"맞아요." 젊은 기자가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노란 방'은 정말 금고처럼 단단히 잠겨 있었죠."

"사실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놀라운 미스터리입니다.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말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 가의 살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품에는 이와 비슷한 요소가 없습니다. 범행 현장이 충분히 밀폐되어 있어 범인이 도망칠 수 없었지만, 창문이라는 통로는 있었습니다. 범인이 원숭이였기 때문에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개구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덧창도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 자체도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정말로요." 룰타비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이마를 닦고 있었다. 최근의 신체적 노력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보다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땀을 흘리는 듯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크고, 아름답고, 매우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하느님의 짐승'이요." 자크 신부가 투덜거렸다. "'하느님의 짐승' 그 자체라도, 만약 그 짐승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도망칠 수 없었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조용히!"

자크 신부는 우리에게 침묵할 것을 손짓하며, 팔을 뻗어 벽 쪽, 그리고 그 너머의 숲 쪽을 향해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녀석이 떠났네." 드디어 그가 입을 연다. "나중엔 반드시 그 녀석을 죽여야 해……."

"저 짐승은 너무 음흉해. 하지만 '하느님의 짐승'이니까." "저 녀석은 밤마다 성녀 주느비에브의 무덤에서 기도하거든. 아제누 할멈이 저주를 내릴까 봐,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해."

"'하느님의 짐승'이 얼마나 큰데요?"

"거의 큰 바셋 하운드 같죠… 제가 말하건대 그것은 괴물입니다. 아!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괴물이 우리 불쌍한 미스에게 달려들 때 그 발톱으로 목을 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짐승'은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총을 쏘지도 않으며, 벽에 남긴 저런 손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크 신부가 벽에 칠해진 붉은 손자국을 가리키며 외쳤다. "게다가 그 짐승도 사람과 똑같이 우리 눈에 띄었을 테고, 사람과 똑같이 방과 별관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내가 말했다.

사실 나는 '노란 방'을 직접 보기 전부터, 아제누 할멈의 고양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한 적이 있었다.

"당신도요!" 룰타비유가 외쳤다.

"그리고 당신은요?" 내가 물었다.

"나는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소. 『마탱』 신문의 기사를 읽고 난 뒤로, 그건 짐승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끔

찍한 비극이 벌어졌음을 실감합니다만, 자크 영감, 되찾은 베레모와 손수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판사가 가져갔소. 당연하지." 다른 한 남자가 망설이는 투로 말했다.

기자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손수건도, 베레모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똑똑하시군." 자크 영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수건은 붉은 줄무늬가 있는 굵은 파란색 손수건입니다. 그리고 베레모는 이 분처럼 낡은 바스크 스타일의 베레모죠." 룰타비유가 그 남자의 모자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정말 맞아요… 당신은 마법사군요."

자크 영감은 웃으려 애썼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손수건이 빨간 줄이 있는 파란색이라는 걸 아시오?"

"손수건이 빨간 줄이 있는 파란색이 아니라면, 애초에 손수건은 발견되지 않았을 테니까."

자크 영감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은 내 친구는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가위를 열어 발자국 위에 몸을 굽혔다. 종이를 발자국 하나 위에 대고 오려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윤곽이 또렷한 종이 밑창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는 그것을 내게 건네며 잃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다시 창문 쪽을 돌아보았다. 연못가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은 채 서 있던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가리키며, 그 경찰이 역시 '노란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니요." 로베르 다르자크가 말했다. 룰타비유가 그에게 태워진 작은 종이를 건넨 뒤로, 그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프레드는 노란 방을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범인은 노란 방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으며, 오늘 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렇게 말하는 로베르 다르자크의 말을 듣고, 룰타비유는 놀랍게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내가 막 느끼고 있는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건가? 그가 매우 강하다… 정말로 강하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경찰의 수법을 넘어선 무언가를, 즉 '경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해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정확히 말해, 하느님이 '2+2=4'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자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위대한', 바로 그 유명한 프레드가 '노란 방'의 수수께끼를 자신보다 먼저 풀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별장 입구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자, 진정하시오. 당신 만족스럽지 않소?"

"네, 그렇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다. "저는 매우 기쁩니다. 많은 것을 알아냈거든요."

"도덕적 차원입니까, 아니면 물리적 차원입니까?"

"도덕적 차원의 것이 몇 가지 있고, 물리적 차원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보십시오."

그는 급히 조끼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는 침대 밑으로 숨어들던 그 탐험 동안 그 종이를 주머니에 꼭 집어넣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이의 접힌 부분에는 금발 여성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끼워져 있었다.

다섯 분 뒤, 조제프 룰타비유는 현관 창문 바로 아래 정원에서 발견된 발자국 자국들을 살펴보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때 성의 하인일 듯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큰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별장에서 내려오던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향해 외쳤다.

"로베르 씨, 판사가 지금 아가씨를 심문 중입니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곧장 허겁지겁 변명이라도 하듯 말을 맺더니, 성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뒤를 한 사내가 바짝 따라붙었다.

“시체가 말을 건네면, 드디어 흥미진진한 국면이 될 겁니다.”

“무엇이든 알아내야 합니다.” 친구가 말했다. “성으로 갑시다.”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복도에 서 있던 헌병이 우리 일행을 막아섰다.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다.

그때, 피해자의 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족의 의사는 스탕제르송 씨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심문할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판사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판사는 즉시 짧지만 중요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심문에는 마르케 판사, 서기, 스탕제르송 씨, 그리고 의사가 참석했다. 나는 나중에 재판 당시 이 심문 기록을 입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아가씨, 당신이 당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허락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할 테니까요."

"네, 하세요, 선생님."

"당신의 그날 하루 일과는 어땠습니까? 가능한 한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가씨, 만약 너무 무리되지 않는다면, 그날 당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늦게 일어났어요. 열 시였죠. 어젯밤 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과학아카데미 대표단을 위해 연 만찬과 환영회에 참석했기 때문이에요."

"열 시 반에 방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실험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정오까지 함께 일했어요. 그 후 공원에서 반 시간 정도 산책했고, 성에서 점심을 먹었죠. 오후 한 시 반까지 매일 하던 대로 산책을 한 뒤, 아버지와 저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제 하녀가 방 청소가 끝난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노란 방'에 들어가 하녀에게 별일 아닌 지시를 내렸고, 하녀는 곧바로 별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일에 집중했죠."

"다섯 시가 되자, 저희는 별장을 나와 또 다른 산책과 차를 마시기 위해 나섰습니다."

D. – 다섯 시에 나가실 때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까?

R. – 아닙니다, 각하. 제 아버지가 제 청을 받아 제 모자를 찾으러 제 방에 들어가셨을 뿐입니다.

D. – 그런데 수상한 것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M. 스탕제르송. – 물론이지요, 각하.

D. – 더구나 그 시각에는 살인자가 침대 밑에 숨어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떠나실 때, 방 문은 자물쇠로 잠그지 않았습니까?

M. 스탕제르송. –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D. – 스탕제르송 각하, 당신 둘은 그 시각에 별장을 얼마나 오래 비우셨습니까?

R. – 대략 한 시간쯤 되었습니다.

D. – 그 한 시간 동안, 아마도 그 시간대에 살인자가 별장에 침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침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원을 보면 현관 창문에서 '나가는' 발자국은 발견되지만, '들어오는' 발자국은 없습니다. 나설 때 현관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R. – 기억나지 않습니다.

M. 스탕제르송. – 닫혀 있었습니다.

D. –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는요?

M. 스탕제르송. –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M. 스탕제르송. –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선명히 기억납니다. 돌아와서 저는 큰 소리로 "정말, 우리가 없는 동안 자크 영감이 창문을 열어둘 수도 있었겠군!"라고 말했으니까요.

D. – 기이합니다! 정말 기이합니다! 스탕제르송 씨,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안 계신 동안, 자크 영감이 나가기 전에 그 창문을 열어두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여섯 시에 실험실로 돌아와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스탕제르송. – 네, 그렇습니다.

D. – 그리고 그 이후로, 침실로 들어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실험실을 떠나지 않으셨나요?

스탕제르송. – 딸과 저 모두 그랬습니다. 너무 급한 작업이라 분초를 다투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은 아예 잊을 정도였으니까요.

D. – 실험실에서 저녁을 드셨나요?

스탕제르송. – 네,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D. – 평소에도 실험실에서 저녁을 드시는 편이신가요?

스탕제르송. – 아닙니다. 드물게 그렇게 합니다.

D. – 살인자는 그날 저녁 당신이 실험실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스탕제르송 씨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던 때, 오후 여섯 시쯤 되었을 때였죠. 그 순간 저는 실험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과 저 둘이요."

그때 우리 곁으로 산지기가 다가와 잠시 발을 묶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제가 베어내기로 결정한 숲 쪽으로 긴급한 순찰을 같이 가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대신 산지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가 성을 지나간다고 했으니, 집사에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저녁을 먹을 것임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지기는 그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고, 저는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별장 열쇠를 건넸고, 그녀는 그 열쇠를 외부 문에 걸어두었습니다.

딸은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D. 스탕제르송 양, 아버지가 계속 작업을 하시던 중, 어느 시점에 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스탕제르송 양. 자정입니다.

D. 자크 아저씨는 저녁 시간 중에 '노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까?

R. 매일 밤처럼, 창문을 닫고 등불을 켜기 위해요.

D. 수상한 것을 눈치채신 적은 없었습니까?

R. 만약 그랬다면 우리에게 말했을 거예요. 자크 아저씨는 훌륭한 분이고, 저를 정말 아끼시거든요.

D. 스탕제르송 님, 자크 아저씨는 이후 실험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내내 함께 계셨다고요?

M. 스탕제르송. 저는 그쪽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D. – 마들모아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쇠로 잠그고 빗장을 거셨습니까? 아버지와 하인인 자크 아저씨도 계신데, 그토록 조심하시다니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R. – 아버지는 곧 성으로 돌아오실 터였고, 자크 아저씨는 곧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D. – 그러니 자크 아저씨의 권총을 몰래 빌려 오셨군요. 그분께는 말씀조차 안 하셨다고요?

R. – 맞습니다. 아무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두려움이 터무니없이 유치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D. –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R. –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 밤 동안, 공원과 공원을 벗어난 곳, 그리고 파빌리온 주변에서 익숙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발소리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들렸죠. 습격이 있기 전날 밤, 엘리제 궁전에서 돌아와서 새벽 세 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던 그 밤, 저는 잠시 창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림자를 본 것만 같았습니다.

D. – 그림자가 몇 개였습니까?

"두 개의 그림자가 연못 주변을 맴돌았죠. 그러자 달이 구름 뒤에 숨어버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면 저는 매년 겨울을 보내기 위해 성의 제 방으로 돌아와 겨울철의 일상으로 복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할 '물질의 해리'에 관한 연구 요약 작업을 끝마칠 때까지, 저는 파빌리온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죠.

며칠 안에 완성이 코앞인 이 방대한 저작이, 우리의 즉각적인 생활 습관 변화로 인해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버지와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 입이 빠를 자크 아저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다만 자크 아저씨의 침대 머리맡 서랍에 권총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침대 머리맡 서랍에 숨겨 둔 것이죠."

D. – 적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R. – 전혀 없습니다.

D. – 자, 마들모아즈엘, 이토록 특별한 경계 조치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겠지요.

M. 스탕제르송. – 물론이지, 내 아이야. 정말 놀라운 조치들이었어.

R. – 아니요. 저는 이미 두 밤 동안이나 잠을 설쳤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M. 스탕제르송. – 그걸 나에게 말해야 했어.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만약 그랬다면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D. – '노란 방'의 문이 잠긴 뒤, 마들모아즈엘, 잠자리에 드시나요?

R. – 네. 그리고 지친 몸으로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D. – 밤새 켜두는 등불은 그대로 두셨나요?

R. – 네. 하지만 그 빛은 아주 희미했죠……

D. – 그렇다면, 마들모아즈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R. – 제가 얼마나 잠들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저는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M. 스탕제르송. – 그래, 끔찍한 비명이었지. "살인자다!" 하고 외쳤으니까.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맴돌고 있어.

D. – 당신은 큰 비명을 질렀습니까?

R. – 제 방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돌진해 목을 조르며 질식시키려 했습니다. 이미 숨이 막혀 올 때쯤, 침대 머리맡 서랍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손이 닿아 제가 미리 넣어둔 권총을 잡았습니다. 총은 바로 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저를 침대에서 굴러떨어뜨리고 머리 위로 무언가 둔기 같은 것을 휘두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총을 쏘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머리통을 강타하는 끔찍한 타격을 느꼈습니다. 판사님, 모든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 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D. – 기억이 안 난다고요! … 살인자가 어떻게 당신의 방에서 탈출했는지, 단서라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R. –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는 자신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D. "그 남자는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R. "나는 그 남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체 없는 그림자 하나만 보았는데, 그 그림자가 무척 위압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D. "우리에겐 아무런 단서도 줄 수 없는 겁니까?"

R. "죄송합니다, 선생님.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제게 덤벼들었고, 저는 그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로써 스탕제르송 씨의 심문은 끝이 났다. 조제프 룰타비유는 차분하게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도착을 기다렸다. 다르자크 씨는 곧 모습을 드러냈다.

스탕제르송 씨의 방과 인접한 방에서 그는 심문 내내 경청해 왔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친구에게 보고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기억력과 복종에 가까운 순종성을 보여 주었다. 나는 그의 태도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연필로 급하게 적어 둔 메모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거의 원문 그대로 재현해 냈다.

사실 다르자크 씨는 내 젊은 친구의 비서처럼 보였다. 그는 룰타비유에게 거절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모든 행동을 취했다.

'닫힌 창문'이라는 사실은 예심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과 마찬가지로, 기자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게다가 룰타비유는 다르자크 씨에게 사건 당일 스탕제르송 부녀가 예심판사를 앞에 두고 진술한 시간표를 다시 한번 들려줄 것을 요청했다. 실험실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정황이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두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오직 경비원만이 교수와 그의 딸이 실험실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비원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말이다.

다르자크 씨가 말을 멈추자, 내가 말했다.

"이 심문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는군."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다르자크가 동의했다.

"아니, 빛을 비춰준 거야." 룰타비유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파빌리온 쪽으로 되돌아갔다. 건물에서 약 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기자가 우리를 멈춰 세웠다. 그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작은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범인이 파빌리온으로 들어오기 위해 출발한 곳이야."

참나무들 사이에는 이와 비슷한 수풀이 더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왜 범인이 이 수풀을 선택했는지 다른 곳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물었다. 룰타비유는 대답 대신, 이 수풀 바로 옆을 지나 파빌리온 정문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이 길에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이 길을 지나 파빌리온으로 갔습니다. 부드러운 땅 위에 갈 때의 발자국이 없으니까요."

"그 남자에게 날개는 없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갈 위를 걸었기에 신발이 자갈을 굴렸을 뿐, 자갈에는 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갈은 파빌리온에서 성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라 많은 발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목 숲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살인자가 파빌리온으로 향할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수 있는 충분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 관목 숲에 숨어 스탕제르송 부녀와 자크 아저씨를 지켜보았습니다."

"현관 창문 근처까지 자갈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목했던, 벽과 평행한 그의 발자국—내가 이미 본 적이 있는 그 발자국—은 그가 현관 창문 앞에 서기 위해 단 한 번의 도

약만 했음을 증명합니다. 그 창문은 자크 신부가 열어둔 채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양 손목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려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내가 말했다.

"어쨌든, 뭐라고? 어쨌든, 뭐라고…?" 룰타비유가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다. 나는 그에게 무고하게 화를 돋워 준 것이다. "왜 '어쨌든,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격분해 있어 내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어떤 이들은 가장 간단한 문제조차도 신중한 의심을 가지고 멀리서 접근한다고. 그들은 결코 "이것이 그러하다" 또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지성은 마치 자연이 두개골 안쪽에 약간의 회색 물질을 채우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얻게 될 결과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고. 내가 상심한 기색을 보이자, 젊은 친구가 내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나는 그것을 너를 위해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특별히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론하지 않는 것은 때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갈을 이용해 추론하지 않는다면, 저는 풍선을 이용해 추론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조종 가능한 항공 과학은 아직 충분히 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살인자를 제 사고의 게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자가 어떻게 창문을 통해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후 5시의 산책 시간 동안 들어왔습니다. 교수와 그의 딸이 오후 1시 30분에 돌아왔을 때, 방금 '노란 방'을 청소한 하녀가 실험실에 있었다는 사실은, 오후 1시 30분에 살인자가 방 안에, 침대 아래에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녀가 공모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르자크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스탕제르송 씨의 하녀가 절대적으로 충실하며, 매우 정직하고 헌신적인 인물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다섯 시에 스탕제르송 씨가 딸의 모자를 찾으러 방에 들어왔잖아요." 그가 덧붙였다.

"그것도 있군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당신이 말한 시각에 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겠죠. 저는 그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왜 창문을 닫았습니까? 그 창문을 열어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선을 끌었을 텐데요."

"창문이 바로 닫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기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창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25미터 떨어진 지점의 자갈길을 따라 꺾이는 지형과, 그 곳에 우뚝 솟은 세 그루의 참나무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로베르 다르자크가 물었다. 그는 우리 뒤를 따라왔고, 룰타비유의 말에 숨이 턱 막힐 듯한 집중력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 가설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가 내뱉은 그 어느 말보다 중요한 진술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실로 드러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그 정체를 알 수 없을 겁니다. 보시죠, 이건 너무도 중대한 가설이어서, 단순한 가설 단계에서는 제가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범인에 대한 단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범인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베르 다르자크 선생님. '저는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매우 동요해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룰타비유의 그 단언이 그에게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그렇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범인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왜 그는 기자가 범인을 찾아내는 것을 돕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내 젊은 친구도 나와 같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거칠게 말을 이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 제가 살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싫지 않으신가요?"

"아! 내가 직접 그 놈을 죽여버리고 싶군!"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약혼자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놀라게 할 만큼 격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믿습니다."

룰타비유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 젊은 기자가 말해준 덤불 숲 곁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 누군가 숨어 있던 자취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곳을 가리켰다. 룰타비유는 한 번 더 맞았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진 인간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놈은 우리와 같은 수단밖에 쓰지 못해요. '결국 다 잘 될 거야!'"

말을 마치자 그는 나에게 맡겨두었던 종잇조각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리고 그 종이를 덤불 뒤쪽, 아주 선명하게 남은 발자국 위에 대었다. 그러곤 일어서며 말했다.

"참으로!"

나는 이제 그가 현관창에서부터 '도주한 살인자의 발자취'를 좇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왼쪽으로 꽤 멀리 이끌어가며 말했다.

"이 진흙탕에 코를 박고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 나는 이제 살인자가 도망친 전체 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네."

"그는 저기서 오십 미터쯤 떨어진 벽 끝까지 갔더군. 그리고 울타리와 도랑을 뛰어넘었지. 보라, 바로 맞은편에 연못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잖아. 그 길이 성을 빠져나가 연못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 거야."

"어떻게 그가 연못으로 갔다는 것을 아시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오늘 아침부터 이쪽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매우 흥미로운 단서가 있을 겁니다."

몇 분 후, 우리는 연못가에 다다랐다.

연못은 갈대들로 둘러싸인 작은 습지대였다. 그 위에는 죽은 연잎 몇 장이 여전히 떠다녔다. 거구의 프레드는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아마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듯했다. 그는 우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지팡이 끝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룰타비유가 말했다. '또 '도망가는 남자의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에서 연못을 돌아 다시 돌아와, 결국 이 연못 옆, 에피네로 이어지는 큰 길로 통하는 작은 길 바로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 남자는 파리를 향해 계속 도망쳤겠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소? 길에 남자의 발자국이 더 이상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바로 그 발자국 때문이지.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발자국이잖소!"

그가 손가락으로 매우 또렷한 '세련된 구두' 자국을 가리키며 외쳤다.

"보시오!"

그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불렀다.

"프레드 씨!"

"도로 위 그 '세련된 발자국'은, 살인사건이 발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소?"

라르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렇소, 젊은이. 우리가 신중하게 기록해 뒀소. 보시오. 가는 발자국과 돌아오는 발자국이 모두 있소."

"그 남자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군!"

기자가 외쳤다.

나는 자전거 바퀴 자국이 '세련된 발자국'을 오가며 이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때쯤 되면 나도 입을 열 때가 된 것 같았다.

"자전거가 살인자의 거친 발자국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말했다. "거친 발자국을 남긴 살인자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습

니다. 그의 동조자, 즉 '우아한 발자국을 남긴 남자'는 자전거를 가지고 연못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살인자가 그 우아한 발자국의 남자를 위해 행동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룰타비유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저는 이 발자국을 사건 초기부터 기다려 왔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자의 발자국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발자국들, 거친 발자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살인자의 발자국입니다."

"그럼 두 명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살인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조자도 없었습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자리에서 외쳤다.

"자, 보세요." 젊은 기자가 이어 말했다. 그는 굵은 발뒤꿈치 자국이 난 흙을 가리켰다.

"그 남자가 여기에 앉아, 법을 속이기 위해 신었던 거친 부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부츠를 가지고 함께 갔겠죠. 그리고는 자신의 발로 다시 일어서서, 태연하게 걸어서 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자전거를 들고 말입니다."

"이토록 험한 오솔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달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더구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반이 무른데도 자전거 자국이 가볍고 불안정하게 남아있다는 점 말입니다. 만약 그 자전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바퀴가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을 테니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직 한 명의 남자, 즉 보행 중인 살인자만 있었습니다."

"훌륭해! 훌륭해!" 큰 프레드가 다시 외쳤다.

그때 갑자기 그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로베르 다르자크 씨 앞에 섰다.

"만약 여기 자전거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이 젊은이의 추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

그가 물었다.

"성 안에 자전거가 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다르자크가 대답했다. "지난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에 왔을 때 제가 가져갔거든요. 나흘 전 일입니다."

"아쉽군요."

프레드가 극도로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룰타비유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대로 가면, 당신과 내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노란 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네." 내 친구가 말했다.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그래. 이 사건을 추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두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없지. 판사 앞에서 내 주장을 펼치기 전까지는, 상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 사법경찰국 국장이 오신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요. 모든 정황이 드러날 실험실에서의 대질 심문 때문입니다. 판사가 진행하시죠. 이 비극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유감이지만, 당신께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실 수 없군요."

"저는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룰타비유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당신은 나이에 비해 놀랍군요." 경찰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은 훌륭한 경찰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방법을 익힌다면 말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직감이나 이마의 융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이미 여러 번 봐 온 점입니다, 룰타비유 씨. 당신은 너무 많이 추리해요. 관찰에 충분히 이끌리지 않죠."

"피투성이 손수건과 벽에 남은 붉은 손자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당신은 벽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수건만 보았을 뿐입니다." "말해 보세요."

"하!" 룰타비유는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살인자가 스탕제르송 씨의 권총에 의해 손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 거칠고 본능적인 관찰이군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룰타비유 씨. 너무 '직접적으로' 논리만 쫓다 보면 논리가 오히려 당신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논리는 때로 다뤄야 합니다. 부드럽게, 멀리서 접근하듯 말이죠."

"룰타비유 씨, 스탕제르송 씨의 권총에 대해서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총을 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손을 다치게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틀렸소."

"저는 확신합니다!" 룰타비유가 외쳤다.

프레드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막으며 말했다.

"관찰력 부족이다! 관찰력 부족!"

손수건을 살펴보고, 발자국 자국 곳곳에 발견된 무수히 많은 작고 동그란 선홍색 얼룩들, 바로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찍힌 물방울 자국들까지. 이 모든 것이 내게 한 가지를 증명했다. 범인은 다친 적이 없다는 사실 말이다.

"범인, 룰타비유 씨, 코피를 흘렸던 겁니다!"

큰 프레드, 그 얼굴은 진지했다. 하지만 나는 참지 못하고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기자인 나는 프레드를 바라보았고, 진지한 표정의 프레드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프레드는 곧바로 결론을 내렸다.

"손수건과 손에서 코피를 흘렸던 남자는, 그 손으로 벽을 닦았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범인이 범인이기 위해 손에 다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룰타비유는 깊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님, 논리를 함부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경찰관들에게만 있는 특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선의에서, '논리를 자신의 관념에 맞게 부드럽게 구부린다'고 생각하지요.

프레 님, 당신은 이미 범인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범인이 손에 부상을 입었다면, 당신의 추론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단서를 찾았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프레 님. 정말로 위험합니다. 범인에 대한 자신의 상념에서 출발해, 필요한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이요. 그것은 당신을 매우 먼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프레 님. 잘못된 유죄 판결이라는 함정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룰타비유는 살짝 비웃는 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주머니에 손을 쑤셔넣고, 약간은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그는 자신의 작은 눈으로 큰 프레드를 응시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자신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이 아이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큰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큰 지팡이가 길바닥의 돌을 툭툭 치는 소리가 울렸다.

룰타비유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곤 젊은 기자가 우리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미 승리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내가 그를 이길 거야!" 그가 외쳤다. "그가 얼마나 강하다고 해도, 나는 큰 프레드를 이길 거야. 그들 모두를 이길 거야… 룰타비유는 그들 모두보다 더 강해! … 그리고 큰 프레드, 그 유명한, 천하의 거인 프레드… 유일무이한 프레드라곤, 그 녀석은 헌 신짝처럼 엉터리로 추론해! … 헌 신발처럼! … 헌 신발처럼!"

그는 발을 가볍게 튕겨 보이며 점프 동작을 취했다. 하지만 춤사위는 갑자기 멈췄다.

내 시선도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로베르 다르자크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진 채, 길에 찍힌 자기 발자국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우아한 발자국'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두 발자국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우리는 그가 쓰러질 줄 알았다. 공포로 눈이 커진 그가 잠시 우리를 피했다. 그의 오른손은 경련하듯 얼굴을 감싼 턱수염을 잡아당겼다. 그 수염은 정중하고 다정하며 절망적인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렸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변성된 목소리로 그는 성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그리고는 떠났다.

"젠장!" 룰타비유가 말했다.

기자도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흰 종이를 꺼내더니, 앞서 내가 본 바와 같이 가위로 잘라냈다. 그는 '우아한 발'이라는 살인자의 발 모양을, 바로 그 땅 위에 남겨진 모델에 맞춰 잘라냈다. 그리고 그 새로 잘라낸 종이 밑창을 다르자크 씨의 작은 부츠 자국 위에 올려놓았다.

완벽한 일치였다. 룰타비유가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젠장!"

나는 입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금 룰타비유의 머릿속에서 무슨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혔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끌고 '돈죤' 여관 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 여관을 약 일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보았다. 여관은 길가에 있었고, 작은 나무 무리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돈죤' 여관은 외관상 그리 볼 만한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낡은 건물을 좋아한다. 세월과 벽난로 연기로 검게 그을린 들보들이 있는 곳, 마차 시대의 여관들 말이다. 흔들리는 이 건물들은 곧 사라져 버릴 추억이 될 것이다.

이 여관들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역사와도 이어져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옛 가도(街道)에 얽힌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 시절에는 길 위에도 모험이 있었으니까.

나는 즉시 '돈죤' 여관이 적어도 두 세기, 어쩌면 그 이상은 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강인한 목조 골격에서 석회와 벽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떨어졌다. 그 골격은 X자나 V자 형태로 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허름한 지붕을 힘

차게 지탱하고 있었다. 지붕은 기둥 위에서 살짝 미끄러진 상태였다. 마치 술 취한 남자의 이마에서 모자가 미끄러지듯.

본관 문 위에는 가을 바람에 시달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는 철제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현지의 한 화가가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뾰족한 지붕과 등불이 달린 탑 모양의 그림이었다. 그것은 글랑디에 성의 본관 탑과 닮아 있었다.

간판 아래, 문턱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매우 거칠어 보였다. 이마의 주름과 거무스름한 눈썹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비로소 우리를 보고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이 아름다운 거처의 불친절한 주인이 틀림없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는 식량이 전혀 없다며 우리를 대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는데, 나는 그 시선이 왜 그리 경계심에 차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십시오, 룰타비유가 말했다. "우리는 경찰이 아닙니다."

"나는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손짓으로 친구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친구는 확실히 이 여관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는 남자의 어깨 사이로 슬쩍 빠져나와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오세요. 안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벽난로 안에서는 커다란 나무 장작이 활활 타고 있었다. 우리는 난로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을 펴고 따뜻한 기운을 쬐었다. 그날 아침부터 이미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했기 때문이다.

방은 꽤 넓었다. 두툼한 나무 테이블 두 개와 몇 개의 낮은 의자, 그리고 시럽과 알코올 병들이 줄지어 놓인 계산대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창문이 세 개 있어 도로가 내려다보였다. 벽에는 크로모 인쇄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거침없이 잔을 들어 올린 한 젊은 파리지엔의 모습 아래, 새로운 베르무트의 개운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었다.

높은 벽난로 난로판 위에는 여관 주인이 도자기와 석기 항아리들을 수북이 쌓아두었다.

"이렇게 큰 벽난로에 치킨을 구워 먹으면 정말 좋겠군." 룰타비유가 말했다.

"닭은 없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토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 어린 어조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제 피가 흐르는 고기, 즉 생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지."

나는 룰타비유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그는 이 사내에게 "이제 피가 흐르는 고기를 먹어야 할 판이군…"이라고 말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여관 주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욕설을 터뜨렸다가는 즉시 삼켰을까? 그리고 그는 마치 로베르 다르자크 본인이 "레프로크스에는 여전히 매력이 넘치고, 정원은 여전히 빛나고 있소"라는 운명적인 말을 들었을 때처럼 고분고분하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주었던 것일까?

분명히 내 친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 점을 지적했고,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가 뭔가 설명을 해줄 것을 바랐지만,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다. 이는 그가 말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침묵을 권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 사이, 사내는 작은 문을 열고 "계란 여섯 개와 '가짜 등심'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외쳤다. 그 임무는 금방 끝났다. 아주 싹싹한 젊은 여자가 계란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금발 머리와 큰 눈으로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여관 주인장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가라! 그리고 녹색 옷 입은 자가 찾아온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녀는 사라졌다.

룰타비유는 그릇에 담아 온 계란과 접시에 담겨 나온 고기를 거머쥐었다.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벽난로 옆에 놓았다. 그리고 벽난로에 걸려 있던 프라이팬과 그릴을 내려, 스테이크를 굽는 동안 오믈렛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사과주 두 병을 더 주문했다. 그는 주인에게 무관심한 듯했고, 주인 역시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남자는 때로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때로는 불안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남자는 우리가 요리를 하는 내내 내버려 두었고, 우리의 식탁을 창가 옆에 마련해 놓았다.

그때 갑자기 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 저기 오는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더 이상 끔찍한 증오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바싹 붙어 도로를 응시했다.

나는 룰타비유에게 경고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 젊은이는 이미 오믈렛을 내려놓은 뒤, 주인과 함께 창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도 그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녹색 벨벳 옷을 온통 입은 한 남자가, 같은 색의 둥근 모자를 머리에 쓴 채, 담배 파이프를 물고 차분한 걸음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

었다. 어깨에는 총을 메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에는 거의 귀족적인 여유로움이 드러나 있었다. 그 남자의 나이는 사십오 살쯤 되어 보였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회색이 섞인 색이었다. 그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가 여관 옆을 지나갈 때,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며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다. 우리 쪽을 한 번 내려다보더니, 파이프에서 몇 번 연기를 뿜어내며 게으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룰타비유와 나는 주인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번뜩이는 눈, 꽉 쥐어진 주먹, 떨리는 입술이 그에게 일어난 격렬한 감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들어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가 쉭 하고 내뱉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룰타비유가 되묻고, 다시 자신의 오믈렛으로 돌아갔다.

"'초록색 남자'다!" 여관 주인이 으르렁거렸다. "그 사람 모르는 게 다행이야.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될 상대라니까. 글쎄, 그 사람은 스탕제르송 경의 경호원이야."

"당신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자가 오믈렛을 프라이팬에 부으며 물었다.

"그곳에서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는 자존심이 세고, 예전에는 부자였을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살

기 위해 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처지를 두고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비원은 다른 하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 말입니다. 마치 그가 글랑디에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땅과 숲이 그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풀밭 위에서 빵 한 조각으로 점심을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풀밭 위에서!'라고 말입니다."

"그가 가끔 여기 오나요?"

"그가 너무 자주 찾아와요. 하지만 제가 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겠습니다. 고작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거든요! '돈죵' 여관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는 생미셸의 '트와 리' 여관 여주인에게 구애를 해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연애에 금이 간 뒤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자 사냥꾼, 치마 끝을 잡는 놈, 나쁜 놈… 그런 남자를 견딜 만한 정직한 사람은 없어요… 아, 성의 관리인 부부는 그 '초록색 남자'를 정말 싫어했죠."

"그렇다면 성의 관리인 부부는 정직한 분들이시군요, 여관주인님?"

"그냥 마티외 영감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그게 제 이름이니까요… 어휴, 제 이름이 정말로 마티외인 이상, 네, 선생님, 저는 그들이 정직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포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한 그 소녀의 살해 사건을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저도 상관할 바가 아닙니까?" 룰타비유가 재차 묻자

여관 주인은 곁눈질로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믈렛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침묵을 지키며 식사를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문턱에 낡은 옷을 걸친 노파가 나타났다. 지팡이에 기대어 몸을 의지한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고, 더러운 이마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거무튀튀한 덩어리처럼 늘어져 있었다.

"아, 아제누 어머님이시군요! 오랫동안 뵙지 못했네요." 우리 집주인이 말했다.

"정말 아팠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노파가 대답했다. "혹시 '하느님의 짐승'을 위해 남는 음식이라도 있다면요?"

그녀는 여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를 따라 온 고양이는 너무 커서, 나는 그런 크기의 고양이가 실제로 존재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고양이가 우리를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오한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토록 처량한 비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비명을 들은 듯, 한 남자가 노파 뒤로 들어섰다. 바로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모자에 손을 얹어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우리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다.

"마티외 아저씨, 사과주 한 잔 주세요."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을 때, 마티외 아저씨는 온몸으로 그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곧 자신을 가라앉히며 대답했다.

"사과주는 없습니다. 마지막 병들을 이분들에게 다 드렸거든요."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말했다.

"그럼 흰 포도주 한 잔 주세요."

"흰 포도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티외 아저씨는 낮은 목소리로 되뇔 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티외 부인, 잘 지내시죠?"

"녹색 옷 입은 남자"의 그 질문에 대해 여관 주인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 남자를 향해 섰다. 얼굴이 너무도 흉포해서, 내가 곧바로 때릴 줄 알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잘 지내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우리가 방금 전 본, 다정하고 큰 눈을 가진 그 젊은 여인이 바로 이 무식한 농부의 아내라는 사실을. 그의 외모에는 온갖 결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결점은 단연 '질투'였다.

여관 주인은 문을 세게 닫고 방을 나갔다. 아제누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녹색 옷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제누 어머님, 편찮으셨나요? 거의 일주일째 모습이 보이지 않던데요."

"네, 경비님. 저는 성녀 주느비에브, 우리들의 자비로운 수호성인에게 기도하러 일어나는 것, 단 세 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내 낡은 이불 위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며 간호해 준 이는 '하나님의 짐승'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짐승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천국만큼이나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아제누, 범행의 밤 내내 '하나님의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렸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니 아제누는 경비 앞으로 가 떡 버티고 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힘차게 내리쳤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그 소리를 내는 동물은 두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범행이 있던 밤, 밖에서 '신의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제 무릎 위에 앉아 있었죠, 경비님. 맹세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전 마치 악마의 소리라도 들은 듯 성호를 그었습니다."

나는 그 경비가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 그를 바라보았는데, 내가 잘 못 본 게 아니라면 그의 입가에 심술궂게 비웃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간 것을 포착했다.

그때 날카로운 다툼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왔다. 더구나 우리는 무언가 둔탁한 타격음도 들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다. 누군가를 폭행하는 소리였다.

'초록색 옷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 옆 문으로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여관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경비병에게 말했다.

"겁내지 마십시오, 경비관님. 제 아내가 치통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는 비웃듯 웃었다.

"여기, 아제누 할멈, 고양이한테 줄 허파 고기야."

그는 노파에게 작은 포장을 건넸다. 노파는 그것을 탐내듯 받아들고서는 자신의 고양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초록색 옷의 남자'가 물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겁니까?"

마티외 아저씨는 더 이상 증오를 감추지 못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꺼져요!…"

"녹색 옷 입은 남자"는 태연하게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 넣었다. 담배 불을 붙인 그는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 뒤 문을 나섰다.

그가 문턱을 넘기도 전에, 마티외가 그의 등 뒤로 문을 쾅 닫아 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혈관들이 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거품이 일었다. 그는 막 닫힌 문, 즉 자신이 증오하던 남자가 사라진 그 문을 향해 주먹을 내밀고는 헐떡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누구건, 지금부터는 '핏물이 흐르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내게 말하러 온 너희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너희가 궁금하다면 들어라. 범인은 바로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 마티외는 곧장 자리를 떴다.

룰타비유는 벽난로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우리 스테이크를 구워 먹자. 사이다는 어때? 내 취향대로 조금 거칠지만."

그날, 우리는 마티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여관을 떠날 때, 우리 식탁 위에는 오 프랑을 남겨두었다. 우리의 만찬 대금으로. 여관 안은 큰 침묵에 잠겨 있었다.

룰타비유는 즉시 나를 데리고 스탕제르송 교수의 소유지 주변으로 약 1리(약 4km)를 돌았다. 그는 생트제네비에브 숲의 일부, 에피네에서 코르베유로 가는 길에 맞닿은 곳에 있는 숯 굽는 사람들의 오두막 옆, 검댕으로 뒤덮인 작은 길 모퉁이에서 열 분 정도 멈춰 섰다. 그리고는 나에게, 살인자가 반드시 이 길을 지났다고 확신했다. "거친 신발의 상태가 그걸 말해주니까." 살인자는 이 곳을 지나 성내로 들어갔고, 작은 숲속으로 숨어들어갔다.

"당신은 경비가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요?" 내가 끼어들었다.

"그건 나중에 보자고." 그가 대답했다.

"지금 당장 내가 신경 쓰는 건 여관 주인이 그 남자에 대해 한 말이 아니야. 그는 증오에 찬 어조로 그 이야기를 했지. 내가 당신을 '돈좋' 여관으로 점심 식사하러 데려온 것은 '녹색 옷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룰타비유는 신중하게 몸을 낮추었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대문 근처에 있던, 바로 그날 아침 체포된 관리인들의 숙소로 쓰이던 작은 건물로 다가갔다.

룰타비유는 감탄할 만큼 재주 넘게, 뒷면의 창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열려 있던 작은 창문이었다. 그는 열 분 후에 다시 밖으로 나왔고,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마디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참으로!"

우리가 성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대문 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한 대의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고, 성에서는 사람들이 그 마차를 맞이하러 나가고 있었다. 룰타비유가 내게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시오. 사법경찰청장입니다. 이제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명해 보이는지 살펴볼 참입니다."

사법경찰청장의 마차 뒤로는 세 대의 마차가 더 따랐다. 안에는 기자들이 가득 탔다. 그들도 정원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대문에는 두 명의 헌병이 배치되어,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엄명을 받고 있었다. 사법경찰청장은 그들을 달래기 위해, 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날 밤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가진 자료들을 뒤져보면, 「노란 방의 비밀」과 관련된 수많은 문서와 증언, 신문 발췌문, 사법 기록들이 한가득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조각이 하나 있다.

바로 그 오후, 스탕제르송 교수의 실험실에서 열린 유명한 심문 장면이다. 그 자리에는 사법경찰청장도 함께 있었다. 이 심문 기록은 법정 서기 말랭 씨가 남긴 것이다. 그는 판사처럼 틈이 나면 문학을 쓰는 사람이었다.

이 기록은 한 권의 책에 실릴 예정이었다. 책 제목은 「나의 심문들」이었다. 하지만 그 책은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이 기록은 그 독특한 재판이 끝난 지 얼마 뒤, 서기 본인이 나에게 건넸다.

드디어 등장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건조한 기록이 아니다. 서기(書記)는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자주 덧붙여 서술한다.

"한 시간 전부터," 서기가 말했다. "법관과 저, 그리고 스탕제르송 교수의 설계도에 따라 이 별장을 지은 시공사 대표가 함께 '노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시공사 대표는 일꾼 한 명을 데리고 왔죠. 마르케 씨가 벽지를 완전히 벗겨내라고 지시했고, 일꾼이 벽에 붙어 있던 종이를 모두 떼어냈습니다.

곳곳에서 곡괭이와 피크로 벽을 두드려 보았지만, 숨겨진 문이나 통로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닥과 천장도 길게 걸쳐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찾을 것도 없었죠.

마르케 씨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이런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군, 시공사 대표 양반! 우리가 이 살인범이 어떻게 그 방에서 빠져나왔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마르케 씨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가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다고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헌병대 반장을 불렀다.

"반장," 그가 말했다. "성으로 가서 스탕제르송 씨와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불러오시오. 그리고 자크 신부도 함께 오게 하시고, 당신의 병사들로 하여금 두 관리인도 데려오게 하시오."

다섯 분 후, 사람들은 모두 실험실에 모여 들었다. 막 도착한 사법경찰청장도 이윽고 우리 곁에 합류했다.

나는 스탕제르송 씨의 책상 앞에 앉아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마르케 씨가 우리에게 뜻밖에도, 그리고 매우 특이한 연설을 시작했다.

"원하신다면, 여러분. '심문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번만은 그 낡은 심문 방식을 버립시다. 여러분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내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두 여기서 함께 머물겠습니다. 스탕제르송 씨, 로베르 다르자크 씨, 자크 신부님, 두 명의 관리인님, 사법경찰청장님, 서기님, 그리고 저까지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여기 있게 됩니다. 관리인 여러분은 잠시나마 자신이 구금된 신분임을 잊어주십시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낸 이유도 바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합시다!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풍부하게, 지적으로, 혹은 어리석게도 좋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말해 주십시오!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방법 따위는 버리고 말합시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우연'의 신, 즉 우연의 신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그는 내 앞을 지나치며 낮게 말했다.

"이봐요, 믿으실 수 있나요? 정말 엄청난 장면이었어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것을 소극장용 단막극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는 손바닥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스탕제르송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의사가 스탕제르송 씨가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그에게 희망이 생겼음에도, 그의 고귀한 얼굴에서 가장 깊은 고통의 자취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 남자는 딸이 죽었다고 믿었고, 그 충격은 아직까지 그를 온통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푸르고 맑았지만, 그때는 끝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여러 차례 공공 행사에서 스탕제르송 씨를 본 적이 있다.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그의 시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눈은 너무도 순수해서 마치 아이의 눈처럼 보였다. 그것은 몽상가의 눈이자, 발명가든 광인이든 간에 초월적인 존재의 눈과도 같았다.

그 의식들 뒤쪽이나 옆에는 언제나 그의 딸이 있었다. 그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수년간 같은 일을 함께 나누며 말이다.

그 처녀는 당시 서른다섯 살이었지만, 서른 살도 되지 않아 보였다. 온전히 과학에 헌신한 그녀는, 주름 하나 없이 시간과 사랑에 승리한 위엄 있는 아름다움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때 내가 며칠 후, 내 서류 더미와 함께 그녀의 병상 곁에 서 있게 될 줄, 또 그녀가 거의 숨을 거두는 상태에서, 내 경력 중 가장 끔찍하고 신비로운 습격 사건을 애써 설명해 줄 것을 누가 알려주었으랴?

또 그 오후처럼, 딸의 살인자가 어떻게 자신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아버지와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렇다면 숲속 어둠 깊은 곳의 고요한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 만약 그것이 인생과 죽음의 거대한 재앙, 즉 보통 도시의 정사에 관여하는 자들에게나 으레 닥치는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자, 스탕제르송 씨." 마르케 부장이 위엄 있는 어조로 말했다. "따님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당신 곁을 떠났던 그 자리로 정확히 가 주십시오."

스탕제르송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노란 방' 문에서 정확히 오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억양도, 색깔도 없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죽은 소리'라고 부르겠다.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열한 시쯤 되어서, 실험실의 난로 위에서 짧은 화학 실험을 마친 저는 책상을 이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자크 신부가 저녁 내내 제 장비를 청소하느라 제 뒤쪽 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녀가 일어

나 야크 신부에게 인사를 나누고 밤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제 책상과 문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데 꽤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곧 일어날 범죄 현장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상은요?" 내가 끼어들었다. 상사의 의도를 읽으며, 이 '대화'에 동조하는 척하며 묻는 것이었다. "스탕제르송 씨, '살인자다!'라는 비명이 들리고 권총 소리가 터진 직후, 그 책상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자크 신부가 대답했다.

"문 앞에 우리가 몰려갈 수 있도록, 그 책상을 벽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그 책상이 서 있는 곳과 거의 비슷한 위치였죠, 서기 각하."

나는 내 추론을 이어갔다. 물론 나는 그 가설이 지닌 무게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약한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책상이 방 문과 그렇게 가까웠다면, 방에서 나온 남자가 허리를 굽힌 채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면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항상 잊으시죠, 스탕제르송 선생님이 피곤한 어조로 말을 끊었다. "내 딸이 문에 열쇠를 채우고 빗장을 걸었다는 사실을. 문이 닫힌 채로 있었다는 것도. 살인이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문과 씨름해 왔다는 것도."

"살인자가 내 불쌍한 아이와 싸우는 동안, 우리는 이미 문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도 잊으셨군요. 그 싸움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고, 목에 피투성이 자국이 남은 손에 의해 질식해 비명처럼 신음하는 딸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요."

공격이 얼마나 빠르더라도,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신속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그 참극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던 문 뒤에 서 있었다."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그 문을 다시 한 번, 아주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섰다. 실망스러운 손짓을 하며 중얼거렸다.

"만약 이 문의 아래 판자가, 문이 열릴 필요 없이 열릴 수 있었다면, 문제는 해결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문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가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문은 튼튼하고 두꺼운 참나무로 만들어졌다. 한 덩어리처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침입자들이 문을 부수며 입힌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그 단단함은 여전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아, 그건 성에서 가져온 오래되고 튼튼한 문이오. 요즘은 이런 문은 더 이상 만들지 않죠."

자크 신부가 말했다.

"우리 네 명이서 철제 막대를 들고 힘을 합쳐야 비로소 그 문을 부술 수 있었소. 경비 부인도 그 일에 동참했거든. 착한 분이라서 말일세, 판사님."

그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지금 그들을 감옥에 가두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

자크 신부가 자비와 항의를 담은 그 말을 내뱉자마자, 두 경비 부부의 울음소리와 한탄이 다시 터져 나왔다. 나는 이렇게 눈물 많은 피의자는 처음 봤다. 나는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비록 그들의 무죄를 인정한다 해도, 한 번의 불행 앞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격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는 모든 눈물과 모든 절망보다 단호한 태도가 더 낫다. 대부분의 눈물과 절망은 위선적이고 가짜이기 때문이다.

"야! 마르케 씨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렇게 울부짖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네 자신을 위해 말해라. 네 여주인이 살해당한 그 시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파빌리온 창문 바로 아래서 말이야. 자크 아저씨가 너를 만나던 그때, 너는 파빌리온 바로 근처에 있었잖아."

"우리는 구하러 왔어요!" 그들이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여인은 흐느낌 사이로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아! 만약 우리가 그 살인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에게 빵 맛을 다시는 못 보게 할 거야!"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들로부터 제대로 된 문장 두 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총성 하나를 들었을 때 자신들이 침대에 있었다고, 신과 모든 성인들에게 맹세하며 끝까지 부인했다.

"총알이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한 발은 들었으면서도 다른 한 발은 듣지 못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판사님, 우리는 두 번째 총성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우리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발을 쏜 게 확실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 권총의 탄환은 모두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탄피 두 개와 총알 두 개를 수습했고, 문 뒤에서 총성 두 번을 들었습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가 대답했다. "총성 두 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둔탁한 소리, 그다음에 또렷한 폭발음이 들렸죠."

"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케 씨가 경비부부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경찰을 당신들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정황이 사건 당시 당신이 파빌리온 근처에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공범성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저에 관해서는," 그가 스탕제르송 씨

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살인자의 도주가 이 두 공범의 도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깨지자마자, 스탕제르송 씨가 불쌍한 딸을 돌보는 사이, 경비부와 그의 아내는 뒤따라오는 비굴한 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는 복도 창문까지 기어와서 정원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비부는 그자의 뒤로 창문과 덧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이 덧문들이 스스로 닫히지는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찾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상상한 사람이 있다면 말하십시오!”

스탕제르송 씨가 나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경비부 부부가 범인이라거나 공모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비록 밤늦은 시각에 그들이 공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비 부인이 등불을 들고 방 문턱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순간, 저는 이미 아이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그 좁은 문으로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간다면, 제 딸의 시신을 넘어야 했고, 저를 밀쳐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크 신부와 경비부 아저씨가 제가 들어갔을 때처럼 방 안과 침대 밑을 한눈에 살펴보기만 해도, 방 안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제 딸이 죽어가는 모습만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 다르자크 씨.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자크 씨는 아무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럼 당신, 치안국 국장님은요?"

치안국 국장인 다크 씨는 지금까지 오직 경청하고 현장을 살피는 일에만 집중했다. 드디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범죄자를 찾기 전이라도, 우선 이 범죄의 동기를 밝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길입니다."

치안국 국장님, 이 범죄는 저급한 정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케 씨가 말했다. "범인이 남긴 흔적, 거친 손수건과 추악한 베레모를 보면, 범인이 상류층에 속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경비원들이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까요?"

치안국 국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는 스탕제르송 씨에게로 몸을 돌렸고, 그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 어조는 내 생각에, 견고한 지성과 단단히 단련된 성품을 가진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따님은 곧 결혼하실 예정이 아니었습니까?"

교수는 로베르 다르자크를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제 친구와요. 저는 그를 아들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아끼고 있었죠…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요."

"따님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고, 부상도 곧 완쾌되실 겁니다. 결혼이 단지 조금 늦춰진 것뿐이죠, 맞습니까?" 치안국 국장은 재촉하듯 물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확신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스탕제르송 씨는 입을 다물었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그의 손목시계 사슬 위를 떠는 손가락으로 나는 그 사실을 눈치챘다. 나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다크 씨도 마르케 씨가 당황했을 때처럼 기침을 했다.

"스탕제르송 씨,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꼬인 사건에서는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희생자와 관련된 가장 사소한, 가장 하찮은 일까지도 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스탕제르송 양이 살아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혼이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대는 저에게는 의심으로 비칩니다. 왜 의심하는 겁니까?"

스탕제르송 씨는 자신을 억누르기 위해 분명한 노력을 기울였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연다. "당신이 옳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숨긴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처럼 보일 테니까요. 알고 계신 게 낫습니다. 다르자크 씨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때 다르자크 씨의 얼굴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나로서는 다르자크 씨가 말 대신 손짓으로만 답한 이유가 명확했다. 그는 단 한 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수배국장님,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딸은 절대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지키려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나 설득하며 결혼을 권했음에도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다르자크 씨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잠시 동안은 제 딸도 다르자크 씨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최근 제 딸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드디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결혼을 승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고령입니다. 하지만 제 사후에 제 딸 곁에 남아 딸을 사랑하며 저희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 줄 인물을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은 축복받은 시간이었죠. 그 인물은 제게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넓은 마음과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수배국장님. 범행 이틀 전, 제 딸은 자기의 의지가 어떤 이유로 돌아섰는지 모르겠지만,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은 매우 중차대했다. 닥스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스탕제르송 양도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말씀조차 없었나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결혼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충분히 고민도 해봤다고요. 스탕제르송 양은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존경하고, 심지어 사랑까지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다르자크 씨와의 순수한 우정의 끈이 우리를 더 가깝게 묶어주길 바라신다고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는 이제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셨죠."

"참 이상하군요!" 닥스 씨가 중얼거렸다.

"이상하다니요." 드 마르케 후작이 되뇌었다.

스탕제르송 mons는 창백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를 저지른 동기는 그쪽 방향에서 찾으실 일이 아닙니다, 각하."

"어쨌든, 동기가 도둑질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오, 그건 저희도 확신합니다!"

판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며, 헌병대 병장이 한 장의 명함을 판사에게 건넸다. 마르케 후작은 명함을 받아 읽고는 낮게 탄식을 흘렸다.

"아, 이건 너무하다!"

"무슨 일입니까?"

수배국장이 물었다.

"레포크 신문의 젊은 기자, 조제프 룰타비유 씨의 명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적혀 있군요. '죄를 저지른 동기 중 하나는 도둑질이었다.'"

수배국장이 미소를 지었다.

"아, 아. 젊은 룰타비유군…… 나도 이미 들은 적이 있다. 영리하다는 평을 받더라. 판사 각하, 그를 불러주시오."

그때 조제프 룰타비유 씨가 들어왔다.

그날 아침, 우리 둘을 에피네쉬르오르그로 데려다준 기차 안에서 나는 그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는 거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승무실로 들어와 있었다.

나는 곧바로 말해야겠다. 그의 태도와 거만함, 그리고 형식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법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을 자신이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나를 그에게 적대감을 품게 했다.

나는 기자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이 어수선하고 저돌적인 자들이며,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존재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겪어야 할 번거로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는 겨우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벌이는 데 있어 너무도 당당했다. 그 무례함이 그를 특히 혐오스럽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우리를 조롱하듯 말하는 특유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레포크』지가 영향력 있는 기관이며, 그들과 어느 정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레포크』는 자신의 기자들을 젖먹이 시절부터 데려다 쓰지 않는 편이 좋겠다.

조제프 룰타비유가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 뒤, 마르케 판사가 자신의 해명을 요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당신은 범행의 동기가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는군요, 선생님." 판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모든 증거에 정면으로 위배되게도, 바로 그 도둑질이라는 거요?"

"아닙니다, 재판관 각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도둑질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카드는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도둑질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소?"

"이것입니다. 만약 저를 따라와 주신다면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우리를 따라 복도로 오라고 청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따랐다.

그곳에서 그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르케 판사와 조제프 룰타비유에게 자신 옆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청했다. 이 화장실은 유리문이 있는 문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방을 완벽하게 밝히기에 충분했다.

마르케 판사와 조제프 룰타비유는 문턱에 무릎을 꿇었다. 젊은이는 바닥 돌판 한 곳을 가리켰다.

"조제프 룰타비유가 말했다. '자크 영감이 세면장의 타일을 닦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타일 위에 낀 먼지 층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자리에선 두 개의 넓은 밑창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국 사이사이에 검은 재가 박혀 있죠. 이 재는 바로 살인자가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피네에서 글랑디에로, 숲을 가로질러 직접 오는 길 위에 깔린 석탄 가루입니다. 그 길가에 작은 탄광촌이 있고, 거기에선 대량으로 숯을 만든다는 것도 아시죠. 살인자가 저지른 수법은 이렇습니다. 그는 오후, 별장이 비어 있을 때 이곳에 침입해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절도 사건입니까? 어디서 절도를 보셨습니까? 누가 절도가 있었음을 증명합니까?" 우리는 모두 일제히 외쳤다.

"절도의 단서를 찾아낸 것은…" 기자가 말을 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케 후작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말을 끊었다.

"당연하지." 룰타비유가 말했다.

마르케 후작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돌판 위의 먼지 위에는 두 발바닥 자국 옆에, 무거운 직사각형 포장의 신선한 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그 포장을 감싸고 있던 끈의 자국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룰타비유 씨,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자크 영감에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가 파빌리온을 지켰거든요."

"자크 영감을 꾸짖지 마십시오. 저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요?" 마르케 후작이 불쾌한 어조로 외쳤다. 그는 옆을 흘겨다보며 다르자크를 바라봤다. 다르자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밑창 자국 옆에서 소포 자국을 보았을 때, 저는 절도가 있었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룰타비유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소포를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범인은 이 방 안에서, 아마도 훔친 물건들로 소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 이를 다시 챙기려다 그 구석에 내려놓은 것이죠."

"그는 자신의 무거운 신발도 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세요. 이 신발로 이어지는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발 바닥이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은, 마치 발을 벗어낸 채로 쉼을 취하는 신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범인이 '노란 방'에서 탈출할 때 실험실이나 현관 통로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신발을 신고' 노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놓았습니다. 아마도 신발이 발에 거슬렸거나, 최대한 소음을 줄이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관 통로와 실험실을 지나던 범인의 '방문' 흔적은, 자크 영감이 이후 행한 청소로 인해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줍니다. 범인은 자크 영감이 오후 다섯 시 반에 청소를 하기 전, 즉 첫 번째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관 통로의 열린 창문을 통해 별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신발을 벗어 던진 뒤, 분명히 발을 조이고 있었기에 손으로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턱에 신발을 내려놓았죠. 화장실 바닥의 먼지 위에는 맨발이나 양말, 혹은 다른 신발을 신은 발자국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짐 옆에 신발을 놓았습니다. 이때 이미 절도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 뒤 그 남자는 '노란 방'으로 돌아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바닥 위에는 그의 몸이 지나간 자국이 또렷하게 보였고, 심지어 그 자리에 살짝 말려 있고 심하게 구겨진 짚으로 만든 깔개 위에도 자국이 남았습니다. 갓 뽑아낸 짚대들도 범인이 침대 밑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네, 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마르케 후작이 말했다.

"침대 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은, 이 놀라운 소년 기자가 이어 말했다. '강도가 유일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현관 창문을 통해 자크 신부나 스탕제르송 부녀가 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가 곧장 그곳으로 숨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다락

방으로 올라가 숨어 있다가 도망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만약 그의 의도가 단순히 도망치는 것뿐이었다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인자는 노란 방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형사국장이 개입했다.

"젊은이, 그건 나쁘지 않아! 축하해… 아직 살인자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어. 그는 도둑질했지. 하지만 그는 무엇을 훔쳤을까?"

"아주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기자가 대답했다.

그때 실험실 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우리는 달려가 그곳에 도착했고, 스탕제르송 씨를 발견했다. 그는 눈이 흐릿하고 몸이 떨리며, 방금 열어 본 책장 모양의 가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가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책상 앞에 놓인 큰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신음했다.

"또다시… 내가 도둑맞았어…"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흘렀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대해 제 딸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저보다 더 큰 슬픔을 느끼실 테니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어조로 덧붙였다.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살아있다면요……"

"그녀는 살아남을 겁니다." 로베르 다르자크의 목소리는 묘하게도 감동적으로 들렸다.

"우리는 훔쳐간 물건을 찾아내겠습니다." 다크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 가구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스무 해의 제 인생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딸과 제 인생의 스무 해죠."

이름 높은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먹먹했다.

"스무 해 동안 우리 두 사람이 모은 가장 귀중한 자료들, 실험과 연구에 관한 가장 비밀스러운 기록들이 모두 그곳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 방은 수많은 문서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엄선된 것들이었죠.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과학계 전체의 손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질의 소멸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에 도달하기까지 제가 거쳐야 했던 모든 단계들이, 우리 두 사람에 의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각 단계마다 라벨을 붙이고, 주석을 달고, 사진과 도면으로 보충했죠. 모든 것이 그곳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수의 말이 이어졌다.

"새로운 장치 세 대의 설계도도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미리 전기화된 물체가 손실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꽃 속 가스에 포함된 분해된 물질 입자의 작용 하에서 전기적 손실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독창적인, 새로운 차동 축전기식 전계측기였죠."

"또한 중량 물질과 무중량 에테르 사이의 중간 물질이 지닌 근본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모든 곡선 자료집, 원자 내부 화학과 물질의 미지의 평형에 대한 스무 해간의 실험 기록, 그리고 '고통받는 금속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던 원고까지요."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대체 누가 알겠어요? 그곳에 나타난 남자가 우리 것을 모두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제 딸을, 그리고 제 작품을. 제 마음을, 제 영혼을 모두요."

위대한 스탕제르송이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비탄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교수님이 쓰러진 안락의자에 팔을 기대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 모습은 잠시 동안 나로 하여금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할 뻔했다. 그가 보여주는 기이한 태도와 종종 설명되지 않는 동요가 나에게 준 본능적인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조제프 룰타비유는 혼자였다. 그의 귀중한 시간과 이 땅에서의 사명이 인간사의 비참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듯했다. 그는 매우 평온한 표정으로 빈 가구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형사국장에게 그 가구를 가리키며, 우리가 위대한 스탕제르송의 절망에 바치던 경건한 침묵을 곧 깨뜨렸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었다. 우리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는 화장실에서 내가 앞서 말한 흔적을 발견한 것과 실험실에서 이 귀중한 가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냈기 때문에, 강도 사건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험실에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첫 번째 것은 바로 그 가구의 기묘한 형태였다. 튼튼한 철제 구조는 불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도록 설계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철제 문에는 '열쇠'가 있었다.

"보통 금고는 열어 둔 채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열쇠, 구리 머리의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열쇠는 우리의 눈을 피했다. 반면 조제프 룰타비유의 시선을 끌었다.

우리는 아이가 아니므로, 가구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안전감을 준다. 하지만 조제프 룰타비유는 분명히 천재다. 호제 뒤피가 『글래디에이터의 5억 프랑』에서 말했듯이.

"어떤 천재인가! 어떤 치과의사인가!"

그에게 있어 자물쇠에 걸린 열쇠는 강도의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전에, 그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보고해야겠다. 마르케 씨는 매우 난감해 보였다. 어린 기자가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그 공로가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낙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듯했다.

우리의 직업에는 이런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겁해져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 발로 짓밟아야 한다.

마르케 씨는 결국 그런 마음을 이겨냈다. 그리고 드디어 다크 씨의 찬사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다크 씨는 룰타비유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소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별일 아닌데요!"

그가 덧붙이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통쾌하게 그에게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마르케 씨, 그 열쇠를 평소 맡고 있던 분이 누구인지 스탕제르송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겠소."

"내 딸이요." 스탕제르송이 답했다. "그 열쇠는 그녀가 절대 놓지 않았소."

"아! 그렇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구려. 룰타비유 씨의 추측과는 전혀 맞지 않군." 마르케 씨가 외쳤다. "만약 스탕제르송 양이 그 열쇠를 절대 놓지 않았다면, 살인자는 그날 밤 스탕제르송 양의 방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열쇠를 훔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난은 '살인 이후'에야 일어났다는 말이죠. 하지만 살인 이후에는 실험실에 네 명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마르케 씨는 절망적인 분노를 담아 다시금 말했다. 그 분노는 그에게 일종의 최상급의 쾌락이었을 터였다. 내가 이미 언급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할 때야말로 가장 행복했기 때문이다.

"…… 더 이상은 없습니다!"

"강도는 살해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기자가 재촉하듯 말했다. "당신이 믿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믿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해자가 파빌리온에 침입했을 때, 그는 이미 구리 머리 자물쇠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스탕제르송이 나직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가능합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맹랑한 녀석이 주머니에서 10월 21일 자 <레포크> 신문을 꺼냈다. (사건은 24일 밤에서 25일 새벽 사이에 일어났음을 상기한다.) 그가 우리에게 한 광고를 가리키며 소리 내어 읽었다.

"어제 루브 백화점에서 검은색 새틴 주머니를 분실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구리 머리 작은 열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아주신 분에게는 후한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우체국 사서함 제40번으로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M. A. T. H. S. N."

기자가 계속했다.

"이 글자들이 스탕제르송 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구리 머리 열쇠가 바로 이 열쇠가 아닙니까? 저는 항상 광고란을 봅니다. 판사의 직업이든 제 직업이든, 항상 개인 광고란을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음모들이 발견됩니까! 그리고 어떤 음모의 열쇠들이요! 항상 구리 머리는 아니지만, 결코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광고는 열쇠를 분실했다는 여성이 사소한 물건을 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로 둘러싸여 있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열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녀는 얼마나 큰 사례금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저는 이 여섯 글자 M. A. T. H. S. N. 을 생각했습니다. 네 글자는 바로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분명히, 매티, 마틸드… 구리 머리 열쇠를 새틴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분실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마틸드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두 글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던지고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4일 후, 저녁 신문에 거대한 헤

드라인으로 마틸드 스탕제르송 씨의 살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마틸드라는 이름은 제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광고의 글자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금 호기심이 생기자 저는 그 날의 신문을 관리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두 글자 S. N. 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았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탕제르송!…' 저는 택시를 타고 제40번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주소 M. A. T. H. S. N. 으로 된 편지가 있습니까?' 직원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고, 간청하고, 빌며 다시 찾아달라고 하자, 그는 '아, 이봐요, 이건 장난이군요!… 네, 저는 M. A. T. H. S. N. 의 글자로 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일 전에 그 편지를 요구한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 편지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한 남자가 같은 무례한 고집으로 그 편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장난에 지쳤습니다…' 저는 이미 편지를 요구한 두 인물에 대해 직원에게 질문하려 했지만, 그가 직업 비밀을 뒤로 숨기려 했는지 – 그는 아마도 이미 너무 많이 말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 또는 정말로 가능한 장난에 지쳤는지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룰타비유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 모두 고요해졌다.

누구든 이 기묘한 유치우편 사건에서 자신에게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려 애썼다. 이제껏 '잡히지 않는' 사건으로 치부되던 것을, 이제야 단단한 실마리를 잡은 듯했다. 그 실을 따라가면 사건을 좇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스탕제르송이 말했다.

"내 딸이 그 열쇠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녀는 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열쇠를 찾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유치우편으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녀는 우리가 주소를 밝히면, 그 일이 우리 주변에 파장을 일으켜 결국 내게 열쇠 분실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저는 이미 도둑맞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전국장(보안국장)이 물었다.

"어디서요? 언제였죠?"

"오, 그건 수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실험실에서 두 가지 발명의 비결을 도둑맞았죠. 그 두 발명은 한 나라의 부를 일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도둑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알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소식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를 털어간 자의 계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그 두 발명을 이미 공개 영역에 내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절도는 무의미해졌죠.

그때부터 저는 매우 의심 깊어졌고, 일할 때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창문들의 모든 철창, 이 별채의 고립, 제가 직접 제작한 이 가구, 그리고 이 특별한 자물쇠와 유일한 열쇠. 이 모든 것은 슬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의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다크 씨가 말했다. "정말 흥미롭군요!"

조제프 룰타비유는 그 손가방(레티큘)의 행방을 물었다. 스탕제르송 씨도 자크 신부도 최근 며칠 동안 스탕제르송 양의 손가방을 보지 못했다.

몇 시간 뒤, 우리는 스탕제르송 양 본인의 입으로 그 손가방이 도난당했거나 그녀가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의 경위는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설명한 그대로였다.

10월 23일, 그녀는 우편국 제40번 지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그 편지가 장난꾼이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편지를 즉시 불태워버렸다.

우리 심문, 아니 '대화'로 다시 돌아가자.

수사국장이 스탕제르송 씨에게 물었다. 딸이 어떤 사정으로 10월 20일, 즉 지갑을 잃은 날 파리로 갔는지 말이다.

그 대답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랐다. 딸은 로베르 다르자크와 함께 파리로 향했다는 것이다. 다르자크는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살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성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지갑이 사라졌을 때, 로베르 다르자크가 스탕제르송 양과 함께 루브 백화점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단서였다. 우리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렇게 검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그리고 기자가 나눈 대화는 막 끝날 무렵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다. 드 마르케 씨에게 만큼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순간이었다.

우리를 찾아온 기마경찰대 병장이 소식이 있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입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요청은 즉각 받아들여졌다.

라르상은 손에 진흙투성이인 거친 신발 한 켤레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신발을 실험실 한가운데 던져놓았다.

"보세요, 이것이 살인자가 신고 다녔던 신발입니다!" 라르상이 말했다. "자크 신부님, 이 신발이 맞습니까?"

자크 신부는 악취 나는 그 가죽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는 깜짝 놀라, 이미 제법 전에 다락방 구석에 버려둔 자신의 낡은 신발임을 알아봤다. 그는 너무 당황해 감정을 감추려 코를 풀어야 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자크 신부의 손수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손수건은 '노란 방'에서 발견된 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아, 그건 저도 압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크 신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말을 이었다. '노란 방' 안에서 발견된 그 낡은 바스크 베레모는 예전에는 자크 신부의 머리를 덮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즉 안주 총경 각하와 조사 판사 각하께 말씀드리건대,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모두를 증명합니다. 잠시만 힘을 내십시오, 자크 신부! 라르상은 쓰러질 듯한 자크 신부에게 그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 이 모든 것은 살인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소 투박한, 아니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인자가 스탕제르송 씨를 떠나지 않은 자크 신부가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밤 스탕제르송 씨가 밤을 새우지 않았다면? 딸을 떠난 후 성으로 돌아갔다면? 실험실에 아무도 없고 자크 신부가 다락방에서 잠들었을 때 스탕제르송 씨가 살해당했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자크 신부가 범인이라고 단정했을 것입니다! 자크 신부가 구원받은 것은 사건이 너무 일찍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옆방의 정적 때문에 실험실이 비어 있고, 행동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롭게 이곳에 침입하고 자크 신부에게 혐의를 씌우려 그토록 용의주도하게 대비한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집안의 친숙한 사람이었습니

다. 그는 정확히 몇 시에 침입했을까요? 오후였을까요? 저녁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별채의 사물과 사람에 익숙한 존재라면, 그 역시 자신의 시간에 '노란 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험실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드 마르케 씨가 외쳤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건대, 실험실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고, 식기 반입 반출로 사람들이 오가며 바빴죠. 그리고 열에서 열한 시 사이, 스탕제르송 씨와 그의 딸, 그리고 자크 신부가 벽난로 옆 높은 구석에 모여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살인자는 친한 사이, 즉 내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화장실에서 신발을 벗어 두고, 그 틈을 타서 '노란 방'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탕제르송 씨가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단정 짓지 않지. 다만 그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느냐는 또 다른 문제야. 어떻게 도망쳤다는 거지? '아주 자연스럽게!'"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열망으로,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저는 노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도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문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살인자는 바로 그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다른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입니다. 언제? 가장 쉬운 순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순간에, 다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범행 직후의 '시간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탕제르송 씨와 자크 신부가 문 앞에 서서 살인자의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크 신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탕제르송 씨가 문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탕제르송 씨에게 집사가 합류한 때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탕제르송 씨, 집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크 신부가 모두 문 앞에 있던 때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문이 부수어지고 노란 방이 점령당한 때입니다.

'도피가 가장 합리적인 순간은 문 앞에 사람이 가장 적은 순간입니다.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스탕제르송 씨가 문 앞에 혼자 남았던 때입니다.'

만약 자크 신부가 공모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크 신부는 살인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았더라면, 노란 방의 창문을 확인하러 정자로 나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따라서 문은 스탕제르송 씨 혼자 있을 때만 열렸고, 그 남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탕제르송 씨가 살인자를 잡거나 체포하지 않은 데에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살인자를 현관 창문 쪽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서 창문을 닫아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끝나자, 자크 신부가 다시 들어와 '현장을 원래대로' 발견해야 했습니다. 스탕제르송 양은 심하게 다쳤지만, 아마도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힘입어, 노란 방의 문을 다시 잠그고 빗장까지 채우는 힘을 간신히 냈습니다. 그러고는 죽어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스탕제르송 부녀가 어떤 비열한 자의 희생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너무 끔찍해서, 아버지는 죽어가는 딸이 스스로 문을 닫아건 그 뒤에 그녀를 내버려 두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살인자를 놓쳐버렸죠.

'노란 방 살인자의 도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해설이 끝난 뒤의 침묵은 끔찍할 정도였다. 우리는 모두 이 저명한 교수님을 위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냉혹한 논리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라르상은 그에게 자신의 고난의 진실을 고백하거나, 혹은 더 무서운 침묵을 지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가 일어섰다. 고통으로 얼어붙은 한 사람의 동상 같은 그였다. 그가 손을 뻗는 제스처는 너무도 장엄해서, 우리는 마치 신성한 것을 마주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맑고 힘찼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제 죽어가는 딸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 아이가 절규하는 비명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이 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험실 안에 홀로 있을 때 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제 늙은 하인이 '노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살인자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인자를 모릅니다. 맹세합니다!"

물론, 이런 엄숙한 맹세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탕제르송 씨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방금 진실을 살짝 비춰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그리 쉽게 놓아버릴 생각이 없었다.

마르케 씨가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며, 우리가 실험실을 떠나려 할 때였다. 그때 젊은 기자, 조제프 룰타비유라는 그 소년이 스탕제르송 선생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가장 큰 존경심을 담아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코르베유 법원의 서기인 말랭 씨의 진술을 인용한 내용을 끊는다. 독자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실험실에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은 룰타비유 자신이 곧바로, 그리고 충실히 나에게 보고해 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저녁 여섯 시쯤이 돼서야 성을 떠나려 준비했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우리 편으로 내어준 작은 응접실에서, 친구가 서둘러 써 내려간 기사를 품에 안고 말입니다.

기자는 성에 묵게 됐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베푼 그 설명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아들인 것이죠. 슬픈 이 시기에 스탕제르송 씨는 모든 집안일을 다르자크 씨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에피네역까지 배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원을 지나면서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정말로 실력이 출중하다. 그의 명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자크 신부의 신발을 찾아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우아한 발자국'의 흔적과 투박한 신발 자국가 사라진 곳을 발견했던 곳 근처, 신선한 흙에는 직사각형의 오목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는 최근 그곳에 돌이 놓여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라르상은 그 돌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는 곧 그 돌이 살인자가 연못 깊숙이 숨긴 신발을 눌러두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프레드(Fred)의 계산은 훌륭했고, 그의 수색 결과는 그 사실을 입증했다. 이 점은 내가 놓쳤던 부분이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살인자가 남긴 수많은 허위 증표, 그리고 '노란 방'의 마루판 위에서 내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측정한 검은 발자국과 자크 신부의 발자국 사이의 일치성. 이 모든 것

이 내게는 이미 확실한 증거였다. 살인자가 혐의를 이 노종에게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노종에게, 기억나겠지만, "치명적인 방에서 베레모가 발견되었으니 그것은 당신의 것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이며, 내가 그를 보았던 손수건과 똑같은 손수건의 묘사를 들려준 이유다.

라르상과 나는 그 지점까지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갈라선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는 선의로 오해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 오해를 물리쳐야 한다!

나는 젊은 친구가 이 마지막 말들을 아주 무겁고 깊은 어조로 내뱉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네,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 하지만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때 우리는 성 뒤를 지나고 있었다. 밤이 내렸다. 2층 창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약한 빛이 그 틈으로 새어 나왔고, 몇 가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창문 바로 아래에 있는 문 모퉁이에 다다랐다. 룰타비유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한 마디를 건넸다. 그 창문이 스탕제르송 양의 방으로 통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를 멈추게 했던 소리가 잠잠해졌다. 그러다 잠

시 후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stifled groans, 즉 억눌린 신음소리였다. 우리는 그 소리의 일부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단 세 마디였다. "내 불쌍한 로베르!" 룰타비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말했다.

"만약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오가는지 알 수만 있다면, 내 수사는 금방 끝날 텐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녁 그림자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성 뒤로 늘어선 나무들이 우거진 좁은 잔디밭 너머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신음 소리는 다시 잠잠해졌다.

"들을 수 없다면, 적어도 볼 수는 있겠지." 룰타비유가 계속 말했다.

그는 내게 발소리를 죽이라고 손짓하며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잔디밭을 지나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흰 줄기가 보이는 굵은 자작나무 줄기까지 갔다. 이 자작나무는 우리가 주목하던 창문 바로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첫 번째 가지들은 성채의 2층 높이쯤에 닿아 있었다.

이 가지들 위에 오르면 스탕제르송 양의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룰타비유의 생각도 정확히 그와 같았다. 그는 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한 뒤, 젊은 팔로 나무 줄기를 껴안고 힘차게 올라갔다.

그는 곧 가지들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큰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곳, 내 정면에 있는 창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빛 위를 아무 그림자도 지나가지 않았다.

내 위에 있는 나무는 고요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 귀에 나무 사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어왔다.

"먼저 가십시오!"

"아니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양보하는 소리였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나무의 매끄러운 줄기를 타고 두 개의 인간 형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땅에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룰타비유가 혼자서 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둘'이 되어 내려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생클레르 씨!"

그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이었다.

경찰관은 이미 내 젊은 친구가 혼자서 그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관찰 지점을 점령하고 있었다.

물론 둘 다 내 당혹스러운 표정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감시소 위에서, 침대에 누운 스탕제르송 여사와 그 옆 무릎을 꿇고 있는 다르자크 씨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정과 절망이 교차하는 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은 각자 매우 신중하게, 하지만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 장면이 룰타비유의 마음속에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라르상에게 그것은, 스탕제르송 여사의 약혼자가 지닌 뛰어난 위장술로 완벽하게 뒷받침된, 지극한 위선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했다.

우리가 공원 철조망 입구에 다다랐을 때, 라르상이 우리를 멈춰 세웠다.

"내 지팡이를!" 그가 외쳤다.

"지팡이를 잊어버리셨나요?" 룰타비유가 물었다.

"네." 경찰이 대답했다. "저기 나무 옆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따라오겠다고 말하며 우리와 헤어졌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지팡이를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둘이 된 순간, 기자가 물었다.

"아주 새것 같은 지팡이였어요. 제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몹시 아끼는 기색이었습니다. 잠시도

지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죠. 마치 그 지팡이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전에는 라르상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했다.

"그 지팡이를 어디서 구한 걸까요? 글랑디에의 사건 다음 날, 평소에는 지팡이를 쓰지 않던 남자가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걷지 못하다니, 이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에 도착했을 때, 그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시계를 주머니에 넣더니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공원을 벗어났다. 룰타비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틀림없이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지팡이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에피네 언덕을 내려올 때, 그가 내게 말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나보다 먼저 글랑디에에 도착했다. 나보다 먼저 수사를 시작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될 시간도 가졌고, 내가 찾지 못한 물건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물었다.

"그는 도대체 그 지팡이를 어디에서 찾았을까?"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의심, 아니 의심보다 더한 추론이 로베르 다르자크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그가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증거를 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만져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만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 지팡이가 그 증거일까?"

"도대체 그는 그 지팡이를 어디에서 찾아냈단 말인가?"

에피네에서는 기차를 타기까지 스무 분을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한 주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우리 뒤에서 문이 다시 열리며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나타났다. 그는 유명한 지팡이를 휘두르며 나타났다.

"찾았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룰타비유는 그 지팡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너무 깊이 몰입해 있어, 라르상이 옆에 있던 철도 직원에게 건넨 눈짓을 보지 못했다. 그 직원은 아주 젊은 남자로, 턱에는 빗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금발의 작은 수염이 자라 있었다.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신 값을 치르고,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갔다.

나 자신이라면 그 눈짓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몇 달 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에서 그 금발 수염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그 금발 수염은 라르상의 첩자였다는 사실을. 라르상은 에피네쉬르오르즈 역에서 오가는 여행객들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그에게 맡겼다. 라르상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룰타비유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프레드 씨! 언제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니시는 분이셨잖아요!"

"선물이에요." 경찰이 대답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룰타비유가 재촉했다.

"아니요. 런던에서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런던에서 오셨군요, 프레드 씨. 지팡이를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프레드가 지팡이를 룰타비유에게 건넸다. 그것은 노란색 대나무로 만든 긴 지팡이였으며, 끝부분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고리가 하나 장식되어 있었다.

룰타비유는 그것을 꼼꼼히 살폈다.

"음, 그러고 보니 런던에서 프랑스제 지팡이를 선물로 받으셨군요." 그가 장난기 어린 얼굴을 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프레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 "여기 작은 글씨로 새겨진 표기를 읽어 보세요. '카세트, 6 bis, 오페라…'"

– "런던에 빨래를 보내 세탁하기도 하잖아요. 프레드 씨가 말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지팡이를 파리에서 사도 괜찮아요.'"

룰타비유는 지팡이를 내게 돌려주었다. 그가 내 구석 칸으로 나를 데려다 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주소 기억나셨죠?"

"네, '카세트, 6 bis, 오페라…'" 내가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편지 한 통 받으실 겁니다."

그날 저녁, 파리에 있는 나는 지팡이와 우산을 파는 상인 카세트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생김새와 정확히 일치하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키는 같고, 약간 굽은 등이었으며, 턱수염 모양도 같았습니다. 매스틱색 코트를 입고 중산모를 썼죠. 그 남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날 밤, 여덟 시쯤에 우리와 관심 있는 것과 똑같은 지팡이를 하나 사갔습니다."

"카세트 씨는 지난 이 년 동안 이와 같은 지팡이를 단 한 개도 판 적이 없습니다. 프레드의 지팡이는 새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가 손에 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런던에 머물고 있었으니, 그가 이 지팡이를 산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즉, 그가 어디선가 로베르 다르자크 씨 주변에서 이 지팡이를 발견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주장대로 살인자가 오후 다섯 시, 혹은 여섯 시부터 이미 '노란 방' 안에 있었다면, 사건이 자정 무렵에야 발생했으므로 이 지팡이 구매 사실은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 결백을 증명하는 흔들릴 여지 없는 알리바이가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여드레 후, 정확히 11월 2일, 나는 파리 자택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다.

"글랑디에로 오시오. 첫 열차로. 권총을 지참하시오. 안부. 룰타비유."

나는 이미 한 번 말한 바 있다. 그 시절 나는 젊은 수습 변호사였으며, 맡을 사건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법원을 주로 의뢰인인 과부와 고아를 변호하러 가기보다, 직업적 의무를 익히기 위해 다녔다.

따라서 룰타비유가 내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을 나는 놀랍게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내가 그의 기자로서의 모험, 특히 글랑디에 사건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지난 여드레 동안 없었다. 대신 무수히 많은 신문들의 루머와, 레포크지(誌)에 실린 룰타비유의 아주 짧은 기사 몇 편으로만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 기사들은 '양뼈 사건'의 전말을 폭로했다. 그리고 양뼈에 남은 자국이 분석 결과 '인간 피'임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거기에는 스탕제르송 여사의 '신선한 피' 자국이 있었고, 오래된 자국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범죄들의 흔적이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화제였다. 그토록 유명한 범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사로잡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수사 진전이 더딘 것 같았다. 그래서 친구가 글랑디에로 오라고 초대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

다만 전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권총을 가지고 오시오."

이 대목은 나를 매우 궁금하게 만들었다. 룰타비유가 권총을 가져오라고 전보를 보냈으니, 그는 분명히 그 총을 쓸 기회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한다. 나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하지만 어찌할 것인가. 그날 나를 부른 이는 분명 곤경에 처한 내 친구였다. 그는 아마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유일한 권총이 제대로 장전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나는 오를레앙 역으로 향했다.

길에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권총은 단수형으로 한 자루면 충분할 텐데, 룰타비유의 전보는 복수형인 '권총들(revolvers)'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총포상(armurier)에 들러 아주 훌륭한 작은 권총 한 자루를 사들였다. 나는 이 총을 친구에게 선물할 생각에 설레고 있었다.

에피네 역에서 룰타비유를 만나려 했지만 그는 없었다. 그러나 마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곧 글랑디에에 도착했다. 대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문 바로 앞, 즉 성의 문턱에서야 그 젊은이를 발견했다. 그는 친근한 손짓으로 나에게 인사했고, 곧장 품에 안으며 내 건강을 묻는 데 열정을 보였다.

우리가 내가 말한 작은 옛 거실에 들어섰을 때, 룰타비유는 나를 앉히고 즉시 말했다.

"상황이 안 좋아."

"무슨 일이?"

"모두!"

그는 내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로베르 다르자크를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어."

이건 내가 스탕제르송 여사의 약혼자가 그의 발자국 자국 앞에서 창백해졌던 이후부터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지팡이는요?"

"지팡이요?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항상 손에서 놓지 않고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하지는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자크 씨를 부드럽게 심문해 보니, 그는 그날 밤은 물론 다른 어느 날도 카세트 가게에서 지팡이를 사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르자크 씨는 너무도 기묘하게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해도,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프레데리크 라르상에게 그 지팡이는 매우 소중한, 즉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지팡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지팡이를 산 시각 때문에, 그 지팡이는 범인의 손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라르상이 시간 때문에 곤란을 겪지는 않을 거야… 그는 내 방식을 따를 의무가 없지. 내 방식은 살해자를 오후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사이에 '노란 방'에 침입시킨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거든. 그가 살해자를 저녁 열 시에서 열한 시 사이에 그곳에 들여보내는 걸 막을 게 뭐가 있겠어? 바로 그 시각, 스탕제르송 부부와 자크 신부가 난로가 있는 실험실 구석에서 흥미로운 화학 실험을 진행 중이었으니까. 라르상은 살해자가 그들 뒤로 슬며시 기어들어갔다고 말할 거야.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말이야… 그는 이미 조사 판사에게 그런 암시를 주었지."

"근데 그 논리를 자세히 뜯어보면 터무니없어. '만약' 그 친숙한 인물—정말 친숙한 인물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이 교수가 곧 별장을 떠날 줄 알았을 테니까. 그 친숙한 인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수님이 떠나신 후에야 작업을 이어가는 게 마땅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계실 때 실험실을 가로질러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뭐라는 거지? 게다가 그 친숙한 인물은 언제 별장 안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라르상의 상상력'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점들이야. 나는 그 '상상력'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잡념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다만, 내가 당분간 입을 다물어야만 하고 라르상이 때때로 말을 꺼내곤 하니까, 모든 것이 다르자크 씨에게 불리하게 풀릴 수도 있어. '만

약 내가 여기에 없었다면!' 하고 그는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다르자크 씨에 대해서는 이 지팡이 사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외부적 정황'들이 존재하니까. 이 지팡이 사건은 나에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라르상이 다르자크 씨 앞에서, 바로 다르자크 씨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데도 말이야. '라르상의 체계에서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만, 아직 지팡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여전히 성에 남아 있는 거요?"

"네,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스탕제르송 씨의 간청으로 여기서 묵고 있죠. 스탕제르송 씨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저에게 해준 것과 같은 일을 라르상 씨에게 해준 셈입니다. 라르상 씨는 스탕제르송 씨가 살인자를 알고 있고, 도주를 방조했다고 비난했거든요. 스탕제르송 씨는 자신의 고발자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요?"

"저는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유죄 가능성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다르자크 씨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룰타비유가 말을 멈추고 나에게 물었다. “총을 가지고 왔나요?”

나는 두 개의 리볼버를 내보였다. 그가 그것을 살펴본 뒤 말했다. “완벽하군요!” 그리고 다시 내게 건넸다.

“그게 필요할까요?” 내가 물었다.

“당연히 오늘 밤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귀찮지 않으시죠?”

“그 반대죠.” 나는 대답했다. 그때 나온 표정이 너무 우스워, 룰타비유가 웃음을 터뜨렸다.

“자, 자!” 그가 다시 말했다.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기억하시죠? 이 신비로 가득한 성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구절.”

“네,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말했다. “‘교구 사택은 그 매력을 조금도 잃지 않았고, 정원은 여전히 빛나고 있네.’”

“바로 그 문장입니다. 반쯤 타버린 채로 실험실의 숯더미 속에 있던 종이에 적혀 있던.”

"네, 그리고 그 종이의 아래쪽에는 불꽃이 이 날짜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10월 23일.'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오. 이제 그 기묘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이틀 전, 즉 23일, 스탕제르송 부녀가 엘리제 궁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저녁 식사에도 함께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연회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직접 보았으니까요.' 나도 직업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축하받던 필라델피아 학회의 과학자 중 한 명을 인터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스탕제르송 부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대사관 홀 바로 앞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귀족들에게 밀치고 다닌 끝에 지친 나머지 흐릿한 몽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의 여자의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검은 옷의 여자의 향기'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내가 매우 사랑했던 향기입니다. 늘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의 향기였는데, 그녀의 자상한 보살핌이 내 청춘 초기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향기를 은밀히 풍기며 지나간 여인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이롭게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그녀와 그녀의 향기를 따라갔습니다.

한 노인이 그 아름다움의 여인에게 팔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이

다'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뒤따르던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얼굴은 익히 알고 있던 로베르 다르자크를 만났습니다. 스탕제르송 교수는 미국인 과학자 아서 윌리엄 란스가 말을 걸어오자, 큰 복도 쪽의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스탕제르송 양을 온실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은 날씨가 매우 포근했습니다. 정원을 향한 문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스탕제르송 양은 가벼운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그녀가 다르자크에게 함께 정원의 거의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자고 청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는 당시 로베르 다르자크가 보인 초조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리니 거리 옆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는 중앙 길을 따라 걸으며 두 사람과 평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그들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밤은 캄캄했고, 풀잎이 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들은 가스등이 흔들리는 빛 속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탕제르송 양이 들고 있는 종이에 몸을 기울이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멈춰 섰습니다. 나는 그림자와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는 스탕제르송 양이 종이를 접으며 반복하는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구 사택은 그 매력을 조금도 잃지 않았고, 정원은 여전히 빛나고 있구나!’

그 말은 동시에 조롱과 절망이 섞인 어조로, 그리고 그 직후 터져 나온 신경질적인 웃음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문장은 아마도 내 귀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로베르 다르자크의 말입니다.

‘그대를 얻기 위해, 나는 과연 죄를 저질러야만 하는가?’

로베르 다르자크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탕제르송 양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자신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내가 큰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룰타비유가 말을 이었다. 로베르 다르자크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후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는데, 범죄가 일어난 뒤 글랑디에에서야 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스탕제르송 양과 스탕제르송 선생님,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표들을 볼 수 있었다. 스탕제르송 양은 아서 란스 옆에 서 있었다. 란스는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고, 그 대화 동안 미국인의 눈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스탕제르송 양은 아서 윌리엄 란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란스는 혈기 왕성한 사내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진(gin)을 좋아할 것 같았다.

스탕제르송 부녀가 자리를 뜬 뒤, 란스는 뷔페 쪽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혼잡한 틈을 비집고 그에게 다가가 몇 가지 도움을 드렸다. 그는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3일 뒤, 즉 26일(범죄 다음 날)에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필라델피아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곳에서 25년간 거주해 왔으며, 그곳에서 저명한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샴페인을 들이켰고, 그는 결코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그가 거의 취한 상태가 되어서야 나는 그를 떠났다."

"이렇게 내 저녁은 끝났소, 친애하는 친구여. 어떤 예감인지 모르겠지만,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 스탕제르송 씨의 겹친 모습이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소. 그런데 스탕제르송 씨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내 심정을 당신은 짐작할 수 있겠소.

'당신을 얻기 위해 내가 죄를 지어야 할까요?' 이 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 다만 그날 글랑디에에서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마주쳤을 때 내가 던진 말은 그 문장이 아니었소. 성직자 주택과 눈부신 정원에 관한 그 문장, 스탕제르송 씨가 손에 쥔 종이를 읽으며 내뱉은 그 말이, 성의 문들을 활짝 열게 했소.

그 순간, 내가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범인으로 의심했소? 아니오. 전혀 믿지는 않았소. 그때는 진지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소. 나는 정보가 너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즉각 증명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소. 손에 상처가 없음을 말이지.

우리가 둘만 남은 자리에서, 나는 엘리제 정원에서 스탕제르송 씨와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던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소.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문장, 즉 '당신을 얻기 위해 내가 죄를 지어야 할까요?'를 말해 주었지. 그때 그는 완전히 당황했지만, 확실히 '성직자 주택'에 관한 문장을 들었을 때만큼은 아니었소.

진짜 충격에 빠지게 만든 것은, 내 입으로부터 들은 또 다른 사실이었소. 그가 엘리제에서 스탕제르송 씨를 만날 날, 즉 그날 오후에 마틸드가 우체국 40번으로 가서 편지를 받아왔다는 것이었소. 그 편지는 아마 엘리제 정원에서 둘이 읽었던 편지일 거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소. '성직자 주택은 매력을 잃지 않았고, 정원은 여전히 눈부시다!'

이 추측은 나중에 실험실의 숯더미에서 그 편지 조각을 발견하면서 확인되었소. 당신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조각에는 10월 23일 날짜가 적혀 있었소. 편지는 그날 쓰여지고 우체국에서 꺼냈소. 엘리제에서 돌아온 밤, 스탕제르송 씨는 이 불리할 수 있는 종이를 태우려 했음에 틀림없소.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이 편지가 사건과 아무 상관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소.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소. '이토록 신비로운 사건에서, 당신은 편지 건을 법정에 숨길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편지가 막대한 중

요성을 지닌다고 확신합니다. 스탕제르송 씨가 저 저주받은 문장을 절망적인 어조로 말한 것, 당신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눈물, 그리고 편지를 읽은 후 그가 내뱉은 범죄의 위협은, 제가 그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점점 더 초조해졌소. 나는 이 기회를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소."

"당신은 결혼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상대방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결혼이 갑자기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 때문이죠. 편지를 읽자마자 당신은 '스탕제르송 씨를 얻기 위해 필요한 범죄'라고 말했으니까요."

"즉, 당신과 스탕제르송 씨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녀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짧은 논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제 선생님께선 저에게 살인자의 이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모르고 있던 사이에 끔찍한 말을 해버린 듯했다.

고개를 들어 로베르 다르자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선생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터무니없어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그 대가로 저는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엘리제 정원에서 당신이 보신 것과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맹세컨대 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또 느낍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의심이 '성직자 주택은 매력을 잃지 않았고, 정원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그 문장으로 잘못 쏠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유죄로 몰리는 편이 낫습니다. 사법부는 이 문장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전체는 이제 선생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를 모두 맡깁니다. 하지만 엘리제의 그 밤은 잊어주십시오. 범인을 찾아내는 길은 그 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에 머물며 주인처럼 말씀하시고, 먹고 자시며, 제 행동과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글랑디에의 주인인 양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제의 그 밤은 잊어주십시오."

이때 룰타비유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다.

이제야 나는 로베르 다르자크가 내 친구에게 보였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그가 어떻게 그토록 쉽게 범행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방금 내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은 나의 호기심을 한층 더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룰타비유에게 그 호기심을 다시 한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글랑디에에서 지난 여드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내 친구가 내게 말하지 않았던가. 라르상이 발견한 지팡이 사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다르자크에 대한 외부적 징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죠." 내 친구가 말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다르자크 씨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스탕제르송 씨의 건강뿐이었으니까요. 스탕제르송 씨의 상태는 날마다 호전되고 있었는데, '노란 방'의 수수께끼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터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외쳤다. "'노란 방'의 수수께끼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있을 수 있나요?"

"다시 로베르 다르자크 씨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룰타비유가 내 진정을 유도하며 말했다. "그가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발견한 '우아한 발걸음'은 스탕제르송 씨의 약혼자 발걸음과 일치합니다. 자전거 자국도 '그의' 자전거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이 자전거를 소유한 이후로는 항상 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왜 그것을 파리로 가져갔을까요? 그는 성으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었을까요? 약혼 파기가 스탕제르송 가와의 관계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사자들은 그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라르상은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믿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스탕제르송 씨를 루브 백화점으로 데려간 날부터, 살인 사건 다음 날까지 전 약혼자는 글랑디에 성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탕제르송 씨는 로베르 다르자크와 함께 있을 때 지갑과 구리 머리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부터 엘리제 궁전의 저녁까지, 소르본나의 교수와 스탕제르송 씨는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스탕제르송 씨는 우편국 40번 창구에서 사서우편으로 온 편지를 한 통 찾았습니다. 라르상은 이 편지가 다르자크의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엘리제 궁전에서의 일을 모르므로, 다르자크가 지갑과 열쇠를 훔쳐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서류를 빼앗고, 결혼 조건 하에 이를 반환함으로써 스탕제르송 씨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고 추론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심스럽고 거의 터무니없는 가정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라르상 자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다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24일, 다름 아닌 다르자크 씨 자신이 우편국에 편지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전날 스탕제르송 씨가 이미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창구에서 나타난 남자의 외모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신원 확인 사항과 일치합니다.'

예심판사가 단순한 참고 차원에서 다르자크 씨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우편국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다르자크 씨를 믿습니다. 설령 그 편지가 그의 것이라 해도(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스탕제르송 씨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엘리제 궁전 정원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음 날 24일, 더 이상 그곳에 없을 편지를 찾으러 우편국 40번 창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 사람은 그와 이상하리만치 닮은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지갑 주인인 스탕제르송 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지갑 도둑입니다. '그가 끝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무언가를' 말이죠. 그는 어리둥절했고, 자신이 'M.A.T.H.S.N.'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편지가 이미 찾아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우편국을 찾았고, 편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노한 채 떠났습니다. 편지는 이미 찾아갔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스탕제르송 씨만이 압니다.

다음 날, 스탕제르송 씨가 밤사이 거의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저는 그 열쇠 덕분에 교수도 같은 때에 털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사서우편 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편국을 찾은 남자는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리적 추론은 라르상이 다르자크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심판사, 라르상, 그리고 저 모두는 10월 24일 그 특이한 인물에 대해 우편국에서 정확한 세부 사항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르자크 씨와 닮았다는 외모 묘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요 신문들에 '10월 24일 오전 10시경, 우편국 40번 창구에 손님을 태워

온 기사에게 다량의 보상이 약속됩니다. 레포크 편집국, R. 씨에게 문의'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걸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으므로 마차를 탄 것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우편국 40번으로 손님을 태워다 주었을 만한 모든 마부가 제게 찾아오도록, 광고에 남자의 인상착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 매우 닮았고, 라르상이 손에 넣은 지팡이를 산 그 남자는 누구인가?'

가장 심각한 점은 다르자크 씨가 '그와 같은 시간, 우편국에 그의 쌍둥이가 나타난 시각에 소르본나에서 수업을 해야 했지만,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친구가 그를 대신했습니다. 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묻자, 불로뉴 숲을 산책했다고 답했습니다. 수업을 빼고 불로뉴 숲을 산책한다는 교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욱이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24일 아침 불로뉴 숲을 산책했다고 시인하면,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밤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라르상이 그 정보를 묻자, 그는 파리에서의 사생활은 자신만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라르상은 소리 내어 맹세했습니다. "나는 아무 도움 없이도 그 시간을 밝혀내겠다."

이 모든 것이 라르상의 가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다르자크가 '노란 방'에 있었다는 사실은 살인자가 도망친 방식에 대한 경찰의 설명, 즉 스탕제르송 씨가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그를 지나가게 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틀렸다고 믿는 이 가정이야말

로 라르상을 잘못된 길로 이끈 원인입니다. 만약 무고한 사람이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가정이 정말로 라르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가?"

"에!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옳을지도 모른다!" 나는 룰타비유의 말을 끊으며 외쳤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무죄라는 건 정말 확실한 겁니까? 너무 많은 불리한 우연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란, 친구여, 진실의 가장 큰 적이다." 내 친구가 대답했다.

"이제 예심판사가 그 우연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르케 판사가 로베르 다르자크를 체포하는 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다르자크를 잡는다면, 소르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여론을 적으로 돌리게 되며, 거기에 스탕제르송 씨와 그 따님까지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로베르 다르자크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범인을 아주 잠깐만 봤을 뿐이지만, 만약 다르자크가 공격자였다면 그녀가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대중이 믿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란 방'은 어두웠습니다. 물론이었죠. 하지만 작은 전등불이 켜져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사정이었습니다. 내 친구여. 사정이 이랬을 때, 사흘 전, 혹은 정확히 말해 사흘 밤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례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단 현장을 직접 보여드려야 합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렇게 해야 이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미 모두들이 아직 찾지 못한 것을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어떻게 '노란 방'에서 나갔는지, 그 방법을요. 범인은 아무런 공모자 없이, 그리고 스탕제르송 씨의 어떤 개입 없이 혼자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아직 범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 가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가설은 정확하며, 무엇보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즉, 아주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흘 전 밤, 이 성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스물네 시간 동안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가설은 너무도 터무니없어서, 도리어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더 낫다고 느껴질 지경입니다."

젊은 기자가 나를 밖으로 나가자고 권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했다.

우리의 발 아래서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그뿐이었다. 마치 성이 버려진 듯했다.

낡은 돌벽, 성곽 주위의 해자에 고인 썩은 물, 지난 여름의 흔적이 덮인 황량한 땅, 그리고 검은 골격처럼 드러난 나무들. 모든 것이 이 비

통한 장소에 가장 장례 같은 분위기를 더했다. 여기는 사나운 신비의 그림자가 맴도는 곳이었다.

우리가 망루를 돌아서려 할 때, '초록색 남자'라고 불리는 경비원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듯 우리 곁을 지나갔다.

그는 처음 본 모습 그대로였다. 마티유 아저씨의 여관 창문을 통해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았다. 여전히 어깨에 총을 메고, 입에는 파이프를 물었으며, 코에는 코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새군." 룰타비유가 내게 속삭였다.

"그에게 말을 건넸소?" 내가 물었다.

"네, 하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툴툴거리는 소리로 답하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냥 가버리죠. 그는 평소 망루 1층에 있는, 예전에는 기도실로 쓰이던 넓은 방에 삽니다. 그는 곰처럼 지내며, 총을 들고 나올 때만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여자애들에게만 친절하죠. 밀렵꾼을 쫓는다는 구실로 밤중에 자주 일어나지만, 저는 그가 연애 만남을 가진다고 의심해요. 스탕제르송 선생의 하녀 실비는 그의 애인이죠. 지금 그는 마티에 주인의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지만, 마티에 주인은 아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 사람'이 마티에 부인에게 다가가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그를 더 어둡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잘생긴 청년이고, 외모를 단정

히 가꾸며, 거의 우아할 정도예요. 사방 4리외 거리 안에 있는 여자들 모두 그를 열렬히 사랑하죠."

성채의 왼쪽 날 끝자락에 있는 망루를 지나쳐 성 뒤쪽으로 돌아섰다. 룰타비유가 내게 스탕제르송 경의 거실로 통하는 창문 중 하나라고 내가 알아챈 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저께 밤 한 시쯤, 당신이 이쪽으로 지나셨더라면요. 당신의 하인이 사다리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나는 밤중에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 깊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룰타비유는 성의 외부 구조를 유심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우리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친구여, 내가 사는 곳인 오른쪽 날 1층을 보여줘야겠군."

장소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독자의 시야에 이 오른쪽 날개의 1층 평면을 펼쳐 보인다. 이 평면도는 당신이 곧 상세히 목격하게 될 그 기이한 사건의 다음 날, 룰타비유가 직접 그린 것이다.

2. 룰타비유가 자크 신부를 놓아둔 곳. 3. 룰타비유가 스탕제르송 선생을 놓아둔 곳. 4. 룰타비유가 들어온 창문. 5. 룰타비유가 자신의 방을 나서며 열어둔 채 발견한 창문. 그는 이 창문을 다시 닫았다. 다른 모든 창문과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룰타비유가 나를 손짓했다. 그가 거대한 두 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나도 그 뒤를 따라올랐다. 이 계단은 1층 높이에 이르러 층계참

을 이루었다. 그 층계참에서는 바로 성의 오른쪽 날개나 왼쪽 날개로 이어지는 갤러리로 나갈 수 있었다.

갤러리는 높고 넓었으며, 건물 전체 길이에 걸쳐 뻗어 있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성의 정면에 창문을 내고 있었다. 남쪽을 향한 창문이 있는 방들의 문은 이 갤러리에 접해 있었다.

스탕제르송 교수는 성의 왼쪽 날개에 살았다. 반면, 스탕제르송 양은 오른쪽 날개에 자신의 아파트를 두고 있었다. 우리는 오른쪽 날개의 갤러리로 들어섰다.

유광이 나는 마루 바닥 위에는 얇은 카펫이 깔려 있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카펫이 우리의 발소리를 죽여 주었다.

룰타비유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말했다. 우리는 스탕제르송 양의 방 앞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설명했다. 스탕제르송 양의 아파트는 그의 침실, 대기실, 작은 욕실, 규방, 그리고 거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 방들 사이를 이동할 때 갤러리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거실과 대기실만이 갤러리와 직접 연결된 문이 있는 방들이었다.

갤러리는 건물 동쪽 끝까지 똑바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외부로 통하는 높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지도상의 창문 2번).

갤러리의 약 3분의 2 지점에서, 이 갤러리는 성의 오른쪽 날개를 따라 꺾인 다른 갤러리와 직각으로 만났다.

이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단에서 동쪽 창문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오른쪽 복도'라고 부르자. 그리고 오른쪽 날개와 연결되어 오른쪽 복도와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복도의 끝부분은 '회전 복도'라고 부른다.

이 두 복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룰타비유의 방이 있었다. 그의 방은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방과 맞닿아 있었다. 이 두 방의 문은 회전 복도를 향해 열려 있었지만, 스탕제르송 양의 아파트 문들은 오른쪽 복도를 향해 열려 있었다. (평면도를 참조하라)

룰타비유가 자기 방 문을 열고 나를 들여보낸 뒤, 문은 다시 닫혔다. 그는 빗장을 걸었다.

그가 내게 자기 방 구석구석을 보여줄 틈도 주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놀람의 비명을 지르며 내게 손가락을 가리켰다. 작은 원탁 위에 안경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이 안경이 내 원탁 위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

나는 그에게 답할 길이 없었다.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이 안경이 내가 찾고 있던 '그것'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 안경이 노안용 안경이라면!"

그는 말 그대로 안경에 몸을 던졌다. 그의 손가락이 렌즈의 볼록한 면을 더듬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보고는 놀랄 만큼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오… 오!"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오… 오…"

마치 그의 생각이 갑자기 그를 미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비웃듯 웃더니 말했다.

"이 안경이 나를 미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건 '수학적으로' 보면 가능하거든, 알겠지?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그때 방 문에서 작은 두 번의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룰타비유가 문을 살짝 열었다. 한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방금 전, 그녀를 심문하기 위해 파빌리온으로 데려갈 때 내 앞을 지나갔던 관리부인이었다. 나는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그 여자가 여전히 감옥에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루의 홈에!"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 얼굴은 사라졌다.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그는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황망한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만약 그 일이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라면, 왜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 일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라면, 이 사건은 경악할 만큼 대단한 것이겠군!"

나는 룰타비유의 혼잣말을 끊었다.

"이제 관리부부도 석방된 건가요?"

"그렇소,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내가 석방하라고 했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오. 그 여자는 내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관리인은 나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소… 그리고, 그 안경이 노안용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요!"

"오! 오! 친구, 너는 웃지 않군… 그럼 언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오늘 밤이지! 실은 말해둘 게 있는데, 친구, 나는 오늘 밤 살인자를 기다리고 있거든."

"오! 오! 오! 오! … 너는 오늘 밤 살인자를 기다린다고? 정말로, 정말로 오늘 밤 살인자를 기다린다고? 그런데 너는 살인자를 알고 있는 건가?"

"오! 오! '지금으로서는 내가 그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그를 확실히 안다고 단정 짓는다면 나는 미친놈이 될 거야. 내가 가진 살인자에 대한 수학적 개념은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괴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틀릴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어! 오! 나는 간절히, 간절히 그걸 바라고 있어…'"

"잠깐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살인자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밤 살인자를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반드시 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룰타비유는 파이프에 담배를 가득 채웠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불을 붙였다.

이 모습은 그가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는 신호였다. 그즈음 복도에서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났다. 우리 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다. 룰타비유는 귀를 기울였다. 발걸음은 점점 멀어졌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자기 방에 있나요?" 내가 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요, 친구가 대답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오늘 아침 파리로 떠났을 거예요. 그는 항상 다르자크의 발자취를 쫓고 있죠! 다르자크도 오늘 아침 파리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나쁜 방향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다르자크의 체포를 예견합니다. 가장 최악의 것은 모든 것이 불쌍한 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들, 사물들, 사람들까지 모두… 매시간마다 다르자크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판사는 그 부담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보다 덜한 일로도 누구나 그렇게 될 테니까요…"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결코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엔 프레드가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룰타비유가 약간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의 작업 방식을 알기 전까진 저도 그에게 큰 감명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의 명성은 오직 손재주에만 기인한 것이죠. 철학이 부족해요. 그의 사고방식에는 수학적 엄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는 룰타비유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냥개로 꼽히는, 쉰 살가량의 나이에 이미 그 실력을 입증한 남자를, 불과 열여덟 살짜리 소년이 '아이' 취급하며 논평하는 것을 듣자니 너무 기묘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소 짓고 있군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그를 반드시 물리치리라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둘러야 합니다. 그가 저에게 막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점은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그에게 제공한 것이며,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오늘 밤에도 이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살인자가 성에 올 때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기묘한 운명처럼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일정을 밝히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성에 올 때마다!' 내가 외쳤다. '그는 다시 돌아온 것인가?'

'네, 그 유명한 밤 동안, 즉 그 기묘한 현상이 발생한 밤 동안입니다.'"

이제 드디어 룰타비유가 지난 반 시간 동안 설명하지 않고 암시해 왔던 그 유명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참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룰타비유에게 이야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는 기분이 좋을 때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말을 꺼냈다. 내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핵심 사건을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데 훨씬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짧은 문장들을 연달아 던지며 내게 일들을 알려 주었다. 그 말들은 나를 멍하게 만드는 상태에 빠뜨릴 정도였다.

진실로 말하자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과학, 예를 들어 최면술의 기이한 현상들도, 네 명이서 그 살인자의 실체를 만지려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이 현상보다 더 설명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는 전기를 이야기하듯 최면술을 언급한다. 우리는 전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며, 그 법칙도 아주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다. 당시로선 이 사건이 자연법칙 밖의 일, 즉 설명 불가능한 사건으로밖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내 두뇌가 룰타비유의 것 같았더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적 설명에 대한 직감'을 얻었을 것이다. 글랑디에의 모든 미스터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룰타비유가 그것들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설명해 냈는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룰타비유의 두뇌를 가졌다고, 혹은 여전히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의 이마에 돋아난 기이하고 조화롭지 않은 혹들은, 내가 본 어느 이마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다. 오직 프레데리크 라르상에게서만, 다만 훨씬 덜 뚜렷하게, 비슷한 흔적을 발견했을 뿐이다. 게다가 라르상에게서 그 윤곽을 읽어내려면 진지하게 그의 이마를 주시해야 했지만, 룰타비유의 혹들은 –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 눈앞에 도드라져 있었다.

사건 이후 그 젊은이가 건네준 서류 더미 속에서, 나는 한 권의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살해자의 물질이 사라진 현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내 친구가 이에 대해 남긴 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룰타비유와의 대화를 계속 옮겨 적기보다, 이 기록을 독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건을 다룰 때, 나의 말이 엄격한 진실의 표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 밤, 10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이었다. 조제프 룰타비유가 기록한다. 나는 새벽 한 시쯤에 잠에서 깨어났다. 불면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밖에서 나는 소음 때문이었을까?

공원의 깊은 곳에서 '신의 짐승'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소음은 불길한 공명을 띠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짙은 어둠과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창문을 다시 닫았다.

빠르게 바지와 재킷을 입었다. 밖에 나가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였다. 도대체 누가, 이 밤에 성 근처에서 아제누아 마님의 고양이를 흉내 내며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던 것일까?

나는 굵은 곤봉을 들었다. 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이제 나는 회랑에 들어섰다. 반사판이 달린 램프가 공간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램프의 불꽃은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출렁거렸다. 실제로 나는 바람을 느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내 뒤쪽에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로 우리 방인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나의 방이 내려다보는 회랑 끝자락에 있는 창문이었다. 이 회랑은 스탕제르송 부인의 아파트가 있는 '직선 회랑'과 구별하기 위해 내가 '회전 회랑'이라 부르기로 한 곳이다. 이 두 회랑은 직각으로 교차한다.

도대체 누가 이 창문을 열어둔 걸까, 아니면 방금 열어둔 걸까?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몸을 밖으로 내밀어 내려다보았다. 창문에서 약 1미터 아래에는 작은 방의 지붕 역할을 하는 테라스가 있었다. 이 작은 방은 1층에 돌출되어 있었다. 필요하면 창문에서 테라스로 뛰어내릴 수 있고, 그곳에서 성의 중앙 마당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나는 이런 야간의 체조 장면을 상상하는 걸까? 그냥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도 집사 한 명의 부주의일 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성 안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나는 회랑의 카펫 위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직선 회랑의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나는 고개를 내밀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 회랑에는 또 다른 반사판 램프가 있어, 그곳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 즉 세 개의 안락의자와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다. 무엇이 나를 스탕제르송 부인의 방으로 향하도록 재촉하는 걸까? 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스탕제르송 부인의 방으로 가라!"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나는 발밑의 카펫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스탕제르송 부인의 방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이미 그곳에 다녀온 발걸음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맞다. 이 카펫 위에는 외부의 진흙을 묻혀 온 발자국이 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 발자국을 알아봤다. '우아한 발걸음', '살인자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이 끔찍한 밤,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만약 테라스를 통해 회랑의 창문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반대로 올라올 수도 있는 법이었다.

"살인자가 성 안에 있다. 발소리가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전 갤러리의 끝부분에 열린 이 창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섰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방과 내 방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 직선 갤러리로 들어갔고, 드디어 스탕제르송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지금 스탕제르송 부인의 아파트 문, 그리고 안방 앞의 현관문 앞에 서 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섰다.

안방 문 아래쪽으로는 빛의 띠가 비치고 있다. 나는 귀를 기울인다. 아무 소리도 없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나는 자물쇠에 시선을 고정했다. 자물쇠는 열쇠로 잠겨 있었고, 열쇠는 방 안쪽에 있었다.

살인자가 아마도 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방 안에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가 도망칠까?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이 방 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렇다면 나는 스탕제르송 부인의 서양식 거실로 들어가야 할까? 만약 거실을 통해 들어간다면, 나는 다시 부두아르를 지나야 한다. 그러면 살인자는 내가 서 있는 이 갤러리 쪽 문으로 도망쳐 버릴 것이다.

"나에겐, 오늘 밤 아직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스탕제르송 부인이 완전히 낫기까지, 두 명의 간호부가 밤을 새우며 부두아르에서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부두아르 안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범인이 이 집에 분명히 있다는 걸 거의 확신하게 되었으니, 왜 지금 바로 경보를 울리지 않는 걸까? 범인이 도망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부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오늘 밤의 범인이, 우연히도 범인이 아닐 경우엔?'

문이 열렸고,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누가 열었을까? 그리고 문은 다시 닫혔다. 누가 닫았을까?

그는 지난밤, 안쪽에서 확실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방으로 들어왔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매일 밤, 자신의 간호부들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 때문이다.

그 방의 자물쇠를 돌려 범인을 들여보낸 이는 누구인가? 간호부들일까? 두 명의 충실한 하인, 즉 노모 하녀와 그녀의 딸 실비일까?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그들은 부두아르(boudoir)에서 잠을 잔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건강이 조금 나아져 아파트 안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다르자크가 나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불안해하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한다. 나는 그녀가 방을 나가는 모습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스탕제르송 부인의 불안과 신중함은 다르자크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노란 방' 사건 당시, 불쌍한 그녀가 범인을 기다리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 밤에도 그녀는 범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범인'을 위해 자물쇠를 돌린 이는 누구인가? 만약 그 사람이 바로 스탕제르송 부인 '자신'이라면?

어쨌든 그녀는 범인의 내방을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해야만 한다. 그리고 문을 열어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강제로 문을 열어주게 될' 이유가 말이다.

도대체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분명히 사랑의 만남은 아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이 다르자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생각들이 내 뇌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 번개는 어둠 밖에는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아, 알 수만 있다면……

"문 뒤에서 그토록 고요한 소리가 나는 걸 보면, 아마도 그곳에서는 침묵이 꼭 필요할 거야. 내 개입이 오히려 악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어찌 알겠나? 내 행동이 순식간에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 침묵을 해치지 않은 채로 보고 알고 싶다!"

나는 대기실을 나섰다. 중앙 계단을 향해 걸어가 내려갔다. 이제 현관 홀에 섰다. 나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1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달렸다. 파빌리온 사건 이후로 자크 아저씨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나는 그가 옷을 입은 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거의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는 '신의 짐승'의 비명을 듣고 일어났으며, 공원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창문 앞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방금 검은 유령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판사가 리볼버를 압수한 이후로는 무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당겨 뒤쪽 작은 문을 통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성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해, 스탕제르송 씨 방 바로 아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자크 아저씨를 벽에 기대게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달을 가리는 구름을 이용해, 창문 밖의 빛이 비치는 영역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느라 그런 것이었을까요? 누군가 문을 통해 들어올 경우 더 빠르게 창문으로 탈출하기 위해? 오호! 그 창문으로 뛰어내린다면 목이 부러질 확률이 높겠군요! 살인자가 밧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방의 침묵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크 신부에게 돌아와 그의 귀에 나지막이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다리.' 처음에는 여드레 전 제 관측소로 사용했던 나무를 생각했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나무에 오를 경우 방 안의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즉각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단순히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크 아저씨는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사다리 없이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큰 손짓을 하며 나를 재촉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속삭였다.

"어서 와요!"

그는 나를 데리고 망루를 돌아 성을 한 바퀴 돌게 했다. 망루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말했다.

"저는 망루 아래층에 사다리를 가지러 갔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와 정원사가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지요. 망루 문은 열려 있었는데, 사다

리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달빛 아래서, 바로 그곳에서 사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성의 다른 쪽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다리가 기울어져 있었다. 사다리는 테라스를 받치던 '까마귀'들, 즉 지지대에 기대어 있었다. 그 위치는 내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창문 바로 아래였다.

테라스 때문에 나는 처음에 그 사다리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다리가 있었기에, 2층의 회전 복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극히 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 미지의 인물이 바로 그 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사다리로 달려갔다. 하지만 사다리를 잡으려던 순간, 자크 아저씨가 내게 작은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음을 가리켰다. 그 방은 성의 오른쪽 별관 끝자락에 돌출되어 있었고, 천장은 내가 앞서 말한 테라스였다.

자크 아저씨가 문을 조금 더 밀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숨소리조차 죽여 내게 말했다.

"거기에 없어요!"

"누가?"

"경비병이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성탑 수리가 시작된 이후로 그 경비병이 이 방에서 자고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는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취하며, 열려 있는 문과 사다리, 테라스, 그리고 내가 방금 닫았던 회전 갤러리의 창문을 동시에 가리켰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까? 나는 생각하기보다 더 강하게, 무언가를 '느꼈다'……

분명했다. '만약 그 경비가 위층 방에 있다면'——나는 '만약'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는 그 사다리와 빈 경비용 방 말고는, 그 경비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다른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실제로 그 방 안에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그 사다리와 그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그의 새로운 방 뒤쪽에 있는 방들은 집사와 요리사의 거처 및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어, 성 내부의 현관과 계단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경비가 그곳을 통해 들어왔다면', 그는 어제 밤 어떤 구실로든 갤러리로 가서 이 창문이 안쪽으로 살짝 밀려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했을 것이다. 창문짝들은 맞대어져서, 바깥에서 살짝 밀기만 하면 창문이 열리고 그가 갤러리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이다.

이처럼 창문이 안쪽에서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의 범위를 좁혀준다. 범인은 '집안 사람'이어야 한다.그에게 공범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하지만 나는 그런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아니

면…… 아니면 스탕제르송 부인 자신이 이 창문이 안쪽에서 잠기지 않도록 신경 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부인이 자신의 살인자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나는 사다리를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성 뒤쪽으로 다시 출발했다. 방의 창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다. 커튼은 쳐져 있었지만, 두 끝이 맞닿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밝은 빛줄기가 새어 들어와, 내 발 아래 잔디밭에 길게 늘어졌다.

나는 방 창문 바로 아래에 사다리를 세웠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자크 아저씨가 사다리 아래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손에 막대기를 든 채 아주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올랐다. 숨을 죽였다. 발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무거운 구름이 끼더니 또다시 소나기가 쏟아졌다. 운이 좋았다. 하지만 순간, '신의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사다리 오르는 중간에 멈칫했다. 그 소리는 내 바로 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울린 것 같았다.

만약 그 소리가 신호라면? 만약 그 남자의 공범 누군가가 사다리 위의 나를 보았다면? 그 소리는 아마 창문에 있는 남자를 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불행히도, '남자가 창문에 나타났다!' 그의 머리가 내 바로 위에서 느껴졌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나는 끝장이다. 그는 나를 볼까? 그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일까? 아니다…… 그는 사라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듣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꼈다. 그가 방 안에서 발소리 없이 걸어가는 것을. 나는 다시 몇 단을 올랐다.

내 머리는 창문 받침돌 높이까지 왔다. 이마가 그 받침돌을 넘어섰다. 눈은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남자는 거기에 있다. 스탕제르송 부인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등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 그의 앞에는 양초가 하나 놓여 있지만, 그는 그 양초 불빛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어, 빛이 비추는 그림자가 그를 왜곡시켜 보인다. 나는 그의 굽은, 괴물처럼 거대한 등만 보고 있을 뿐이다.

놀라운 사실은 스탕제르송 부인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침대는 흐트러진 흔적이 없다. 그녀는 오늘 밤 어디에서 자고 있을까? 아마도 옆방에서, 하녀들과 함께일 것이다. 가설일 뿐이다. 하지만 남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로 인해 함정을 준비하는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다.

그런데 저기, 내 눈앞에서 글을 쓰고 있는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마치 자기 집처럼 그 책상에 앉아 있다. 만약 복도의 카펫 위에 '살

인자의 발자국'이 없었더라면, 만약 창문이 열려 있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창문 아래에 사다리가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남자가 그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상적인 이유로 그곳에 존재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이 신비로운 미지의 남자는 바로 '노란 방'의 남자다. 스탕제르송 씨는 그를 고발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살인적인 공격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 인물이다! 그를 잡아야 한다!

지금 그 방에 뛰어들면, 그는 앞현관이나 규방으로 이어진 오른쪽 문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곳을 지나 거실을 가로질러 복도로 나가면, 나는 그를 완전히 잃게 된다. 그런데 나는 그를 잡았다. 단 오분만 더, 그리고 그는 내 것이 된다. 새장에 갇힌 새보다 더 확실하게 말이다.

그는 스탕제르송 선생님의 방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쓰고 있는 걸까.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

이제 내려가자. 사다리가 바닥에 있다. 자크 신부가 나를 따라온다. 성으로 돌아가자. 자크 신부에게 스탕제르송 선생님을 깨우라고 보낸다. 그는 스탕제르송 선생님을 만나 내 도착 전까지 어떤 구체적인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깨러 가야 한다. 이는 나에게 큰 골치거리다. 나는 라르상이 잠든 사이, 그의 눈앞에서 혼자 이 일을 처리하고 모든 공을 독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크 신부와 스탕제르송 선생님은

노인들이고, 나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힘이 부족할 수도 있다……

반면 라르상은 상대를 제압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워 일으켜 세우는 일에 익숙하다.

라르상이 문을 열어준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를 쫓아내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작은 기자인 나의 상상력이 현실일 리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그 남자가 거기에 있다!"고 확신시켜야만 한다.

"이상하군요." 그가 말했다. "오후에 파리에서 그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권총을 챙겼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살며시 움직였다.

라르상이 나에게 물었다.

"그가 어디 있소?"

"스탕제르송 양의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탕제르송 양은?"

"방에 없소."

"그럼 가자고."

"가지 마시오. 그 남자는 첫 경보가 울리면 곧장 도망칠 겁니다. 도망길은 세 가지입니다. 문, 창문, 그리고 여성들이 있는 규방 말입니다."

"내가 쏠 테니."

"만약 빗나간다면요? 단지 상처만 입힌다면요? 그는 다시 도망칠 겁니다. 게다가 그 역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가 말했다.

그리하여 나는 두 개의 복도에 있는 모든 창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회전 복도의 끝자락에 세웠다. 그곳은 내가 열어둔 것을 다시 닫았던 창문 앞이었다.

나는 프레드에게 말했다.

"세상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부를 때까지 그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백 퍼센트의 확률로, 그 남자는 다시 그 창문으로 돌아올 것이다. 추적을 피해 그곳으로 탈출하려 할 테니까. 그는 바로 그 창문으로 들어왔고, 그곳을 통해 도망갈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는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된 거야."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프레드가 물었다.

"나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 그 남자를 너 쪽으로 몰아넣겠다."

"제 권총을 쓰십시오. 저는 지팡이를 쓰겠습니다."

"고맙다. 너는 참으로 용감한 놈이군."

나는 프레드의 리볼버를 챙겼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였다. 저기 방 안에서 글을 쓰고 있는 그 남자와 마주해야 했다.

그 리볼버가 내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창문 5번에 프레드를 배치한 뒤, 스탕제르송 씨의 거처로 향했다. 성채의 왼쪽 별관에 있는 그곳으로,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스탕제르송 씨는 신부 자크와 함께 있었다. 신부는 지시를 잘 지켜, 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옷을 차려입으라고 알리는 일만 했을 뿐이었다. 나는 스탕제르송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즉시 권총을 챙겨들고 나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곧장 복도에 함께 나섰다.

내가 살인자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스탕제르송 씨는 즉각 살인자를 쫓아 달려가 죽이려 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살인자를 죽이려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에게 딸이 방 안에 없으며,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것을 굳게 맹세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초조함을 진정시키고,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기로 했다.

나는 자크 신부와 스탕제르송 씨에게 내가 부를 때, 또는 권총을 쏠 때만 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나서 자크 신부를 오른쪽 복도 끝자락에 있는 창문 앞에 서 있게 했다. (내 도면에서 이 창문은 2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내가 자크 신부에게 이 위치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범인이 방을 빠져나올 때 쫓기게 되고, 복도를 가로질러 열어둔 창문으로 도망치려 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복도 교차점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창문 앞에서 라르상이 회전식 복도를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범인이 오른쪽 복도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곳에서 범인은 자크 신부와 마주치고, 자크 신부는 범인이 오른쪽 복도 끝자락의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만약 범인이 이 건물을 잘 알고 있었다면(그리고 나는 그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창문 바깥쪽에는 받침벽 같은 구조물이 있었다. 복도의 다른 모든 창문들은 해자에 매우 높은 높이로 내려다보고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목을 부러뜨리는 것을 의미했다.

문과 창문은 모두 단단히 잠겨 있었다. 오른쪽 복도 끝자락에 있는 광 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를 빠르게 확인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크 신부님께 제 위치를 알리고,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탕제르송 씨를 계단 중간 쉼터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의 딸이 있는 안방 문 근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예견되었습니다. 제가 방 안의 살인자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범인은 여성들이 있는 작은 거실보다는 안방으로 도망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작은 거실 문은 스탕제르송 양 본인이 닫았을 테니까요. 만약 그녀가 살인자가 찾아오기 전에 "보지 않기 위해" 그 작은 거실로 피신했다면 말입니다.

어쨌든 범인은 다시 복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 일당들이 가능한 모든 출구를 막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른 범인은 자신의 왼쪽, 거의 코앞에 스탕제르송 씨가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러자 그는 오른쪽으로, 회전식 복도 쪽으로 달아난다. “물론 이는 내가 미리 준비해 둔 도주 경로이기도 했다.”

두 복도가 만나는 교차점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왼쪽 끝에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정면 오른쪽 복도 끝에는 자크 신부가 있는 것이 범인의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스탕제르송 씨와 나는 뒤에서 따라붙고

있었다. 그는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작전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침실로 통하는 스탕제르송 양의 규방 문을 바로 차단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생각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방 안의 남성을 포위하는 것이 더 간단해 보였을 것이다. 즉, 방으로 통하는 두 문, 즉 규방 문과 현관문을 동시에 봉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규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스탕제르송 씨가 불안한 마음으로 내부에서 잠가 둔 살롱을 통하는 길뿐이었다. 따라서 이 작전은 평범한 순경이라도 떠올릴 만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실행 불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말하건대, 설령 내가 규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방금 설명한 작전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의 각 문으로 직접 공격하는 다른 모든 작전은 "남성과의 격투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들을 서로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 작전은 "모든 사람을 공격 지점에 집결"시켰다. 그 지점은 내가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해 둔 곳, 즉 두 복도가 만나는 교차점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나니, 나는 성채를 빠져나와 사다리로 달려갔다. 벽에 다시 사다리를 기대어 세우고, 손에는 권총을 쥐고서는 기어 올랐다.

만약 어떤 이들은 이토록 사전에 준비된 조치들을 보고 비웃는다면, 나는 그들을 '노란 방'의 미스터리와 살인자의 놀라운 술책을 증명했던 모든 증거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들은 내가 신속한 움직임과 결정, 행동에 완전히 몰두해야 할 순간에 지나치게 세심한 관찰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느리고 정밀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공격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하겠다. 이 계획은 내가 글을 쓰는 동안에는 천천히 펼쳐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구상되고 실행되었다. 나는 이러한 느림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조건들을 완전히 놓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는 스탕제르송 교수의 모든 이론보다 더 강력하게 '물질의 분리'를 증명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 나아가, 나는 이 현상이 '순간적인 물질의 분리'를 보여준다고 말하겠다.

룰타비유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금 창틀 돌출부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았죠. 커튼 자락은 움직일 틈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살인자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가 등을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미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제게는 그의 사다리, 즉 '그의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신의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머리를 조금 더 내밀었습니다.

그가 있습니다.

촛불이 드리운 그림자에 몸이 일그러져 보이는, 그 거대한 등줄미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촛불도 작은 책상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그의 앞으로 떨어진 마루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촛불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었죠. 이상한 자세였지만, 그 자세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한 계단 더 올랐습니다. 마지막 발판에 닿았습니다. 왼손이 창틀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성공 직전,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권총을 이빨 사이에 물었습니다. 이제 오른손도 창틀을 잡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소 거친 동작으로 균형을 잡으며 손목에 힘을 주자, 드디어 창틀 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잘 버텨주기를!'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다리에 강하게 기대어 균형을 잡아야 했고, 발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다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다리가 벽을 긁으며 소음을 내고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무릎을 돌출부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일어서서 돌출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저보다 더 빨랐습니다.

벽을 긁는 사다리 소리를 들은 그는, 갑자기 거대한 등줄미를 일으켜 세우더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굴을 본 걸까요?

촛불은 바닥에 놓여 있어 그의 다리 부분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높이 위로는 방 안이 어둠과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진 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광인의 눈매, 창백한 얼굴, 그리고 넓은 구레나룻 두 갈래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 구레나룻 색은… 제게는 붉은빛으로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붉은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흔들리는 사이 잠깐 스쳐 간 그 이미지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느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 이제야 속도를 내야 했다!… 바람이 되어야 했다! 폭풍이 되어야 했다! 번개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불행히도! '필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손목으로 균형을 잡고, 무릎으로 돌출부를 짚으며, 발로 돌출부를 딛는 그 필요한 회복 동작들을 하는 사이, 창문에서 나를 보았던 남자는 도망쳤다. 그는 내가 예상한 대로 안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총을 들고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를 도와줘!"

화살처럼 나는 방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거의 그 남자를 잡을 수 있었다. 복도에서였다. 그가 문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적어도 1초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거의 만질 뻔했다. 그가 복도를 가로지르는 문을 내 코에다 부딪쳤다.

하지만 나는 날개가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그와 3미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 스탕제르송 씨와 나는 같은 높이로 그를 쫓았다.

그 남자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오른쪽으로 이어진 복도를 택했다. 그것은 그가 미리 준비해 둔 도주로였다.

"이쪽으로, 자크! 이쪽으로, 라르상!"

내가 외쳤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 나는 승리와 야생적인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른 것이다.

그 남자는 두 복도가 만나는 교차점에 우리보다 겨우 2초 앞서 도착했다. 내가 결심했던 그 만남,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그 치명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우리는 모두 이 교차점에서 부딪혔다. 스탕제르송 씨와 나는 오른쪽 복도의 한쪽 끝에서, 자크 신부는 같은 복도의 다른 쪽 끝에서, 그리고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회전 복도에서 각각 달려왔다. 우리는 부딪혀 넘어졌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다!"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실 같지 않은' 그 광경을 보며, 남자는 정말로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에? 어디에?"

우리 모든 존재가 그 한 가지 질문만 외치고 있었다.

"그가 도망쳤을 리가 없어!"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내가 소리쳤다.

"내가 그에게 직접 손을 대고 있었어!"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외쳤다.

"그가 바로 거기 있었는데, 내 얼굴에 그의 숨결이 느껴졌단 말이야!" 자크 신부가 말했다.

"우리 모두 그에게 손을 대고 있었어!" 스탕제르송 씨와 내가 동시에 반복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에? 어디에?"

우리는 미친 듯이 두 복도를 뛰어다녔다. 문과 창문을 모두 살폈다. 하지만 그들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열 수조차 없었다. 우리가 찾았을 때 이미 닫혀 있었으니까.

게다가 생각해 보라. 이 남자가 쫓기면서도 문이나 창문을 열었다면, 우리가 그의 움직임을 전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남자의 실종 자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문으로, 창문으로, 혹은 그 어떤 통로도 지나갈 수 없었다.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그 순간 완전히 혼절할 뻔했다. 왜냐하면, 결국 복도 안은 환했고, 그 복도에는 벽 쪽에 숨겨진 문도, 구멍도, 숨을 곳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락의자를 뒤집어엎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화병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안까지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조제프 룰타비유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거의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방금 전,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던 그 복도였다.

어떤 순간에는 머릿속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히고, 두개골이 터지며, 논리의 근거가 살해당하고, 이성이 조각조각 나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던 그 지친 느낌, 즉 '모든 것이 균형을 잃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그 공허함과 비교될 만했다.

시각은 여전히 또렷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건물의 도덕적 붕괴와 생리적 시각의 실제적 붕괴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두개골을 향해 가해진 끔찍한 타격과 다름없었다.

그때 다행히 마틸드 스탕제르송 부인이 안방 문턱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혼란스럽던 내 생각에 잠시나마 분산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그녀를 숨 쉬었다. '그녀의 향기를, 검은 옷의 여인의 향기를….'

'사랑스러운 검은 옷의 여인, 사랑스러운 검은 옷의 여인!'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 내 인생의 십 년,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서라도 검은 옷의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이제 가끔씩, 그것도 여전히… 그저 향기만 마주칠 뿐이다. 대략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접견실에서 숨 쉬었던 자취를 맡았던, 나 혼자만 감지할 수 있었던 그 향기 말이다.

이 사랑스러운 향기에 대한 날카로운 회상이, 바로 이 흰 옷을 입은 여인을 향해 나를 이끌었다. 그녀는 문턱에 서서 너무 창백하고,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입구에서 말이다. 그녀의 아름다운 금발은 목덜미 위로 올려 묶여 있어, 관자놀이 위의 붉은 별자리, 즉 그녀가 죽을 뻔했던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이치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상상했다. '노란 방'의 비밀이 있었던 그 밤, 스탕제르송 부인은 앞머리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노란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어떻게 앞머리 스타일의 머리카락이라는 단서 없이 추리를 했겠는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추리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복도' 사건 이후로 나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스탕제르송 부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창백하고 아름다웠다. 꿈결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환상처럼, 달콤한 유령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열정적으로 그녀를 입맞혔다. 그는 그녀를 다시 되찾은 듯했다. 이번에도 그가 또 한 번 그녀를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묻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갔다. 어쩔 수 없이 진상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내실의 문은 열려 있었다. 두 명의 간병인 얼굴이 공포에 질려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스탕제르송 부인이 이 소동이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자,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다. 정말로 간단하다.

그녀는 이번 밤 자신의 방에서 자지 않기로 했다. 간병인들과 같은 방, 즉 내실에서 자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실 문을 잠갔다. 세 사람 모두를 위해.

그녀는 범죄의 밤 이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갑작스러운 공포심. 이해하기 쉬운 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가 돌아올 밤’에 그녀는 ‘우연히’도 좋은 우연으로 자신의 하녀들과 함께 문을 잠갔을까?

딸이 무서워하는데도 딸의 거실에서 자겠다는 스탕제르송 씨(아버지)의 뜻을 딸이 거절한 이유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방 책상 위에 잠시 놓여 있던 편지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살인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살인자는 알려지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모두도 모르게. 단 로베르 다르자크만은 제외하고.

다르자크 씨는 이제 그 살인자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더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까? 엘리제 정원의 그 말을 기억하라. "당신을 얻기 위해 내가 죄를 저질러야 할까요?"

누구를 상대로 한 죄일까? '장애물', 즉 살인자를 상대로 한 죄가 아니었을까?

다르자크 씨가 내 질문에 답한 그 말을 다시 기억하라. "내가 살인자를 발견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쾌하지 않겠소?"

"아! 내가 직접 그를 죽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진정으로 다르자크 씨는 살인자를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를 발견할까 봐 두려워한다. '죽이고 싶으면서도'.

그가 내 조사를 용이하게 해 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방 안에 있다. 그녀의 방이다. 나는 그녀를 바라본다. 그리고 잠시 전 그 편지가 놓여 있던 자리도 다시 살펴본다.

스탕제르송 부인이 편지를 거머쥐었다. 그 편지는 분명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아, 불쌍한 여자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버지가 방 안의 살인자와 그를 쫓아온 상황에 대해 들려주는 기이한 이야기 때문에, 그녀는 온몸이 떨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안심하는 순간이 있다. 살인자가 전례 없는 마술 같은 힘으로 우리를 피해 도망쳤다고 확신할 때다.

그리고는 침묵이 찾아왔다. 정말로 깊은 침묵이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라르상, 자크 신부, 그리고 나.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생각들은 무엇일까?

오늘 밤의 사건 이후, '해석할 수 없는 복도'의 신비 이후, 그리고 살인자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는 기적 같은 현실 이후로, 자크 영감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부터 스탕제르송 씨의 머릿속에서 '싹트는' 생각까지, 모든 생각이 그녀에게 건네는 이 말로 환원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 신비를 아는 당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구할 수도 있겠소!"

아, 내가 그녀를 구하고 싶다. 그녀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이로부터! 나는 눈물을 흘린다. 네, 나는 그녀 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참함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낀다.

그녀가 바로 저기 있다. '검은 옷의 여인'의 향기를 머금은 그 여인이. 드디어 그녀를 뵈었다. 그녀의 방, 그녀가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던 그 방에서. '침묵하는' 방,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그 방에서.

‘노란 방’의 치명적인 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이 보이지 않고 말 없는 여인을 둘러싸고 돌았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의 갈망, 우리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집요함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문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껏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들보다 더 끔찍한 비극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녀는 죽을 뻔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일부는 모를지라도… 나는 다르다. ‘누구’인지만 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인가? 누구? 누구?…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나는 침묵해야 한다. 그녀에 대한 연민에서다. 그녀가 ‘그’가 노란 방에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알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그녀는 침묵한다.

내가 왜 말을 해야 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 것이다.

그녀가 우리를 보고 있다. 하지만 멀리서부터. 마치 우리가 그녀의 방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스탕제르송 씨가 침묵을 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딸의 거처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딸이 그 엄격한 의지에 반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당장 오늘 밤부터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직 딸의 건강만을 걱정하며, 그녀가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를 책망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하는 듯한 작은 말들을 건넸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명망 높은 교수는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는 이어지지 않는 말들을 반복했고, 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증명했다. 우리의 정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아빠!”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통곡했다. 자크 영감은 코를 풀었고, 프레데리크 라르상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생각도 나지 않았고, 느낌도 사라졌다. 나는 식물보다도 못한 상태였다. 나는 나 자신이 싫어졌다.

이것은 ‘노란 방’ 사건 이후로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스탕제르송 부인과 마주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나처럼 그도 불쌍한 마틸드를 심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나처럼 그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에게나 나에게나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스탕제르송 부인의 몸이 너무 약해져서 우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심판사의 심문만으로도 이미 지쳤을 터이니, 더 이상 피곤하게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

분명히 우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프레데리크 라르상에게는 여전히 의아한 일이었다. 사실, 라르상과 나는 범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구해 내야 해!… 그녀를 구해 내야 해!… 그녀를 구하면서도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그녀를 구하면서도 '그'가 입을 열지 못하게!'

누구? '그'라니? '그'는 살인자다.

그를 붙잡고 입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다르자크 씨가 말했지. "그의 입을 막으려면 그를 죽여야 한다"고. 다르자크 씨의 말에서 도출된 논리적 결론이다.

나는 스탕제르송 부인의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는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회를 주길 바란다. 그가 정말로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다. 살아있는 몸은 붙잡을 수 없으니, 그의 시체는 꼭 보고 싶어서다!

아! 이 여자에게 어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우리를 보지도 않는다. 오직 공포와 아버지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내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 그렇다. 나는 다시 한번 이성을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리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말을 건네고 싶었다. 그녀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간청하고 싶었다. 오직 그녀와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몇 마디로, 그녀의 살인자가 '노란 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내가 알고 있으며, 그 비밀의 절반을 이미 꿰뚫고 있다고, 그리고 내 전심으로 그녀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은 이미 우리에게 그녀를 혼자 두라고 종용했다. 그것은 피로와 즉각적인 휴식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은 우리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셨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우리를 돌려보내셨다.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나는 인사를 나누고, 자크 영감을 따라 복도로 돌아갔다.

그때 라르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그가 나를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문턱에서 그는 자크 영감을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도 분명히 봤죠, 맞나요?"

"그 남자."

"내가 봤다! 수염이 붉고 머리도 붉었다."

"나도 똑같이 봤다." 내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말했다.

이제 그 큰 프레드와 나 둘만 남았다. 그의 방에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시간 동안 그 사건을 온갖 방향으로 뒤집어 보았다. 라르상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나에게 설명을 했다. 그의 눈에도, 내 눈에도, 모든 사람의 눈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성의 비밀 통로로 사라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성을 안다." 라르상이 말했다. "그는 성을 잘 안다."

"그는 키가 다소 크고, 체격이 좋다."

"그는 적당한 키다." 라르상이 중얼거렸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붉은 수염과 붉은 머리카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털이 너무 많았을 뿐입니다. 가발이나 가짜 수염이죠."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말했다.

"그렇게 쉽게 말하시네요. 당신은 여전히 로베르 다르자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군요. 저는 그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그를 유죄로 몰고 있습니다. 카펫 위의 발자국을 보셨습니까? 와 보십시오."

"봤습니다. 연못가에서 본 '우아한 발자국'이죠."

"그것은 로베르 다르자크의 발자국입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발자국'의 흔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셨습니까? 그가 우리 모두의 추적을 피해 방을 빠져나갔을 때, 그의 발자국은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마도 몇 시간째 그 방 안에 있었을 거야. 그의 부츠 진흙이 마를 만큼 시간이 지났고, 그는 부츠 끝으로 아주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지… 우리는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봤어.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나는 갑자기 그 무의미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말을 끊었다. 라르상에게 경청하라고 손짓했다.

"저기 아래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

일어나자 라르상도 따라 일어났다. 우리는 성의 1층으로 내려갔고, 성 밖으로 나왔다. 나는 라르상을 회전 갤러리의 창문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돌출부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이제 닫혀 있지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 빛이 새어 나오는 그 문을 가리켰다.

"경비원이야." 프레드가 말했다.

"가자." 내가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결심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는가? 경비가 범인이라고 믿기로 한 것인가? 그 사실을 단언할 것인가?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가 문에 한 번 툭 치고 두드렸다.

어떤 이는 이 행동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해자가 복도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첫 번째 의무는 그를 성 주변과 공원 등 모든 곳에서 찾아야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의심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다. 살인자가 갤러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가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정도였다.

우리가 모두 그에게 손을 댈 수 있을 때, 거의 그를 잡으려 했을 때, 그는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 이제 밤과 정원의 신비 속에서 그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상상할 만큼 우리 마음의 끈은 이미 끊겨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실종이 내 두개골을 얼마나 강타했는지 말해 주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문이 열렸다. 경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셔츠만 입은 채였고, 곧 잠자리에 들려는 참이었다. 아직 이불도 걷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놀랐다.

"어이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니요!" 그는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공원과 숲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피곤하네요. 잘 가요!"

"잠시만요." 내가 말했다. "방금 당신 창가 옆에 사다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다리요? 저는 사다리를 보지 못했어요. 잘 가요!"

그는 우리를 문밖으로 내보냈다.

바깥에서 나는 라르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래요?" 내가 물었다.

"그래요?" 라르상이 되물었다.

"그게 당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나요?"

그의 불쾌한 기색은 분명했다. 성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될 줄은 정말 이상하군요!"

그 문장은 그가 자신에게 하는 말보다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가 덧붙였다.

"어쨌든 우리는 곧 진상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이면 세상이 환하게 밝으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방 문턱에서 슬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는 이 독창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머릿속에서, 비록 방법론이 결여되었지만, 그 오해에 대한 일말의 의심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나는 곧장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린 뒤, 성으로 내려갔다. 성을 한 바퀴 돌며, 성으로 이어지거나 성에서 비롯된 모든 흔적을 면밀히 살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뒤섞여 너무 혼란스러워, 나는 그로부터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가 있다. 나는 범죄자가 지나간 자국 같은 외형적인 징후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없다는 점을 말이다. 발자국 흔적을 통해 범인을 단정 짓는 그 방법은 너무나 원시적이다. 발자국 흔적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으며, 그것들에게서 첫 번째 단서라도 이끌어내기는커녕, 절대 증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쨌든, 정신이 어지러워진 나는 안뜰로 나가 발자국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여러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발자국에 다가가, 내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첫 번째 단서를 구했다. 그것은 무엇인

가를 '합리적'으로 붙잡고, '불가해한 복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해줄 실마리였다. 어떻게 추론해야 할까? 어떻게 추론해야 할까?

"아! 옳은 방향으로 추리하다니!"

나는 황폐한 중정(中庭)의 돌멩이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졌다.

나는 한 시간 이상 무엇을 해왔는가? 가장 평범한 형사들이 하는 가장 하찮은 일밖에는 하지 않았다.

나는 여느 흔해빠진 형사처럼 스스로 오류를 향해 달려가려 한다. 몇 발자국 자취를 따라가며, 그 발자국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현대 소설가들이 상상해 낸 형사들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지능의 사다리에서 더 낮은 자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그 형사들은 에드거 앨런 포나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을 읽으며 방법을 터득한, 말 그대로 문학적 형사들일 뿐이다.

아, 문학적 형사들이여! 너희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거나, 벽에 손자국을 그리는 것만으로 어리석음의 산을 쌓아 올린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너에게 말한다. 너야말로 문학적 형사다!

너는 코난 도일을 너무 많이 읽었어, 친구. 셜록 홈즈가 너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추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거야. 그 실수들은 책 속에 적

힌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할 거야. 그리고 그 실수는 너로 하여금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게 만들 것이다.

코난 도일식 너의 방법으로, 너는 재판장, 형사국 국장,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마지막 증거를 기다리고 있군. 단 하나의 마지막 증거를!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증거여야 해, 불쌍한 놈아.

"감각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역시 '감각으로 포착된 흔적' 위에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그 흔적들에게 내 이성이 그려낸 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했을 뿐이었다.

아, 그 원은 종종 너무 좁았다. 정말로 좁았다. 하지만 그 원이 얼마나 좁았든, 그것은 거대했다. "그 안에는 오직 진실만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맞다, 나는 맹세한다. 감각적인 흔적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오직 나의 하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눈 없는 남자보다 더 무서운 괴물로 만들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잘 보지 못하는 남자'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오류와 너의 동물적인 사색을 이기게 되는 이유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뭐라고? 뭐라고? 오늘 밤, 처음 겪은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사건이 나의 이성이 그은 원 안에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미친 듯이 떠들고, 코를 땅에 대고 돼지처럼 진흙더미에서 우연히 먹이를 찾는 것처럼 헤매는 건가?

자, 룰타비유, 내 친구. 고개를 들어라.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사건이 이성이 그은 원 밖으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해. 너는 알고 있지. 알고 있어! 그러니 고개를 들어라. 두 손으로 이마의 돌기를 꽉 쥐고, 기억해라. 이성을 그릴 때, 마치 종이에 기하학적 도형을 그릴 듯이 뇌리에 원형을 그었던 그 순간, 너는 이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을!"

"자, 이제 걸어가라.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지팡이에 기대듯, 이성의 올바른 지점에 의지하며 '해석할 수 없는 복도'를 거슬러 올라가라. 그리하면 네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프레드가 실은 바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행동했다.

머리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나는 복도를 다시 올랐다. 그런데 밤에 내가 보았던 것보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성의 올바른 지점이 나를 향해 놀라운 한 가지를 가리켰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지점에 매달려야만 했다.

아! 이제부터는 힘이 필요하다. 내가 이마의 두 돌기 사이에 그려 둔 더 넓은 원형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와야 할 감각적인 흔적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야 룰타비유가 그 수첩을 내게 건넸다. 그 수첩에는 이 상한 현상인 '이해할 수 없는 복도'의 사건이, 그 밤 이후 바로 그날 아침에 그가 직접 따라 적어둔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내가 글랑디에에서 그의 방을 찾아갔을 때, 그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주에 그가 잠시 파리로 갔던 몇 시간 동안의 행적까지도. 사실 파리에서는 그가 얻어낼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복도' 사건은 10월 29일 밤에서 30일 사이에 일어났다. 즉, 내가 성으로 돌아온 사흘 전이었다. 그날은 이미 11월 2일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1월 2일, 나는 친구의 전보를 받고 총기를 챙겨 글랑디에로 돌아왔다.

룰타비유의 방에 서 있던 나는, 그가 방금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는 탁자 위에 놓아둔 코안경의 볼록한 유리알을 쓰다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가 노안용 유리알을 만지는 데서 느끼는 기쁨을 보며, 이 유리알들이 그가 말한 '이성이라는 원에 들어가는 감지 가능한 표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가 자신의 생각에 놀라울 정도로 딱 맞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기이하고도 독특한 방식은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했으며, 조제프 룰타비유의 생각을 읽어내는 일은 항상 쉽지 않았다.

이 아이의 생각은 내가 관찰해 본 것 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였다. 룰타비유는 자신의 생각이 주변에 어떤 경악, 아니 말하자면 당혹감을 안겨주는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유유히 걸었다. 사람들은 그의 생각에 고개를 돌려,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길에서 마주친 특이한 실루엣을 더 오래 관찰하기 위해 멈춰 서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은 '저 녀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라고 생각하듯, '조제프 룰타비유의 생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생각의 독창성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그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유유히 걸었다. 마치 자신의 특이한 차림새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을 지나가든 전혀 어색함 없이 편안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초자연적인 두뇌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듯 자연스러운 단순함으로 경이로운 것들을 표현했다. 그것은 '축약된 논리' 때문에 경이로웠는데, 그 논리가 너무 축약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놀란 우리의 시선을 위해 그것을 풀고 정면으로 보여줄 때뿐이었다.

조제프 룰타비유가 방금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룰타비유가 말했다.

"자,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이성을 제대로 작동시켜 보세요."

"음, 제가 생각하기엔 추론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쫓던 살인자가, 그 쫓는 도중 한때 이 복도에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멈췄다.

"그렇게 잘 시작했으면,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힘을 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복도에 있었고, 문이나 창문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음에도 그곳에서 사라졌다면, 그는 다른 통로를 통해 도망쳤어야 합니다."

조제프 룰타비유는 나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러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내게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낡은 신발'처럼 생각하고 있구려."

"아, 내가 뭘 말하려던 거지? '낡은 신발'이 아니라, 프레데리크 라르상처럼 생각하고 있구려!"

사실 조제프 룰타비유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상대로 찬탄과 경멸을 번갈아 느끼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라르상의 발견이 룰타비유의 추리를 뒷받침할 때는 "진짜 대단하군!" 하고 감탄하곤 했다가, 반대로

라르상의 발견이 자신의 추리를 반박할 때는 "참으로 멍청한 놈!"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가 라르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잘 관찰한 바와 같이, 라르상의 발견이 룰타비유의 추리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박하는지에 따라 달랐다. 이는 기묘한 아이인 이 인물의 고결한 성격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결점 중 하나였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끌고 정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안마당에 있었다. 정문을 향해 걸어가던 찰나였다. 창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고개를 돌렸다. 성의 왼쪽 날개 건물 1층 창가에, 낯선 얼굴이 보였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수염은 완전히 면도한 상태였다.

"이봐, 룰타비유가 속삭였다. "아서 란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바로 지난밤 성에 있었군.… 대체 왜 왔을까?"

성채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에게 아서 란스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아침에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서 W. 란스 씨가 바로 엘리제 궁전에서 함께 잔을 기울였던 필라델피아 출신의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프랑스를 떠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이었죠. 그래서 그가 아직 프랑스에, 그것도 글랑디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지난밤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 전에 도착했을 텐데, 저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인들이 저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문지기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군요. 어떻게 그들을 석방시켰는지요."

우리는 마침내 문지기 초소 앞에 다다랐다. 베르니에 부부가 우리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풍성한 얼굴에는 넉넉한 미소가 번졌다. 구류 생활에 대한 불평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젊은 친구가 그들에게 아서 란스가 언제 도착했는지 물었다. 부부는 아서 란스 씨가 성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대답했다. 어젯밤 늦게 그가 성에 나타났을 수는 있겠지만, 부부는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서 란스 씨는 대단한 보행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마차를 타고 자신을 데리러 오게 하길 원치 않았다. 그는 보통 생미셸이라는 작은 마을의 기차역에 내려, 숲을 가로질러 성으로 향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생테제네비에브 동굴을 통해 정원에 들어왔고, 동굴로 내려가 작은 철망 너머로 뛰어넘어 정원 안으로 들어섰다.

관리인들이 말을 이어갈수록 룰타비유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불만을 드러냈고, 의심의 여지없이 그 불만은 곧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꽤나 상심한 기색이었다. 그는 글랑디에의 인물과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건만, 아직까지도 "아르튀르 란스가 성에 자주 들르곤 했다"는 사실을 새로이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해명을 요구했다.

"아르튀르 란스 씨가 성에 자주 들르곤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성에 들렀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베르니에 씨가 대답했다. 그는 문지기였다. "우리는 감금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성으로 들어올 때 우리 울타리를 지나가지 않는다면, 나갈 때도 역시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분이 '처음'으로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아, 네. 아저씨, 9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9년 전 프랑스에 오셨군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으로는, 그분이 글랑디에에 몇 번이나 더 왔습니까?"

"세 번이었습니다."

"오늘 이전, 그분이 마지막으로 글랑디에에 온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기억으로는요."

"'노란 방' 사건이 있기 약 열흘 전이었습니다."

룰타비유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특히 그 여자에게 집중하며.

"바닥재의 홈통 안쪽?"

"네, 바닥재의 홈통 안쪽이에요."

"고맙소."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을 위해 준비해 두시오."

그는 마지막 말을 할 때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침묵과 신중함을 요구하는 제스처였다.

우리는 공원을 나와 '돈죵' 여관으로 향했다.

"당신은 가끔 그 여관에서 식사를 하러 가요?"

"가끔 그렇죠."

"하지만 성에서도 식사를 하죠?"

"네. 라르상과 저는 때로는 우리 방 중 한 곳에서, 때로는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스탕제르송 씨는 당신을 식탁에 초대해 본 적이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의 집에 있는 게 그를 지치게 하지 않나요?"

"무엇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적어도 그는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소."

"그는 당신에게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단 한 번도 없소. 그는 마치 '노란 방' 문 뒤에 있던 그 신사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소. 그 신사는 딸이 살해당하는 순간,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만 살인자는 찾지 못했지. 그 신사는 '현행범으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미 단념해 버렸소. 따라서 우리 같은 이들이야 더더욱 아무것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라르상의 가설이 나온 이후로, 그는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웠소."

룰타비유는 다시 깊은 사색에 잠겼다. 잠시 후, 그는 두 관리인을 어떻게 석방했는지 나에게 알려 주며 그 생각에서 깨어났다.

"최근에 저는 스탕제르송 씨를 찾아갔습니다. 종잇조각을 하나 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문장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저는 충실한 두 하인, 베르니에와 그의 아내를 제 고용에서 해고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명까지 하라고 했죠. 이 문장으로 관리인과 그의 아내를 말문을 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가 확신하는 바대로, 그들 두 사람은 이 살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죠. 사실 제 생각은 늘 그랬습니다.

검사는 서명된 종잇조각을 베르니에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입을 열었죠. 그들이 입을 열 것이라고 제가 이미 확신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바로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라지자, 그들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스탕제르송 씨의 소유지에서 불법 사냥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밤, 그들 역시 사냥을 하다가 파빌리온 근처에 있었다고 말했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토끼 몇 마리는 '돈죵' 여관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토끼를 손님을 위해 요리하거나, 파리로 보내 팔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죠.

제가 '돈죵' 여관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이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핏물 도는 고기를 먹어야 할 판이군!'

이 말은 저희가 공원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침에 들었던 말입니다. 당신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그 철문에 다다르려던 순간, 잠시 멈춰 선 적이 있습니다. 공원 담장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거닐고 있는 남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희 뒤에서 여관 주인이 문설주에 서서 여관 안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핏물 도는 고기를 먹어야 할 판이군!'"

"왜 하필 '지금'이란 말인가?"

나처럼 가장 신비로운 진실을 쫓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결코 놓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한 사건으로 발칵 뒤집힌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논리에 따라 나는 그날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말을 의심했다. '지금'은 나에게 '그 사건 이후'를 의미했다.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이 말과 비극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 우리는 '돈죵'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곧장 그 말을 반복해 보았다. 마티외 신부의 놀람과 싫증스러운 표정을 보며, 내가 그 말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때 나는 경비부부의 체포 소식을 들었다. 마티외 신부는 그들을 진정한 친구처럼, 그리워하며 이야기했다. 생각은 치명적으로 연결된

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경비부부가 체포되었으니,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판'이다. 경비부부가 없으니 사냥감도 없다!

어떻게 '사냥감'이라는 구체적인 생각에 도달했을까? 스탕제르송 씨의 사냥터지기에 대해 마티외 신부가 드러낸 증오, 그리고 그 증오는 경비부부도 공유한다고 했다. 그 증오는 나를 천천히 밀어붙여 '밀렵'의 생각으로 이끌었다.

명백하게, 경비부부는 그 밤 사건 당시 침대에 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날 밤 왜 밖에 있었을까? 사건 때문인가?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미 나는 살인자가 공범이 없으며, 이 비극 뒤에는 스탕제르송 씨와 살인자 사이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 비밀에 경비부부는 무관했다.

밀렵의 이야기는 '경비부부'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이를 원칙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집, 즉 초가에서 증거를 찾으려 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그들의 오두막에 들어가 침대 밑에서 끈과 황동선을 발견했다.

'아, 그렇구나! 생각했다. 바로 그들이 밤에 공원에 있었던 이유지.'

그들이 판사 앞에서 침묵했던 이유에 놀라지 않았다. 중대한 범죄 공범 혐의라는 압박 속에서, 그들은 즉시 밀렵을 자백하지 않았다. 밀렵은 그들을 중범죄재판소에서 구해 주었지만, 성에서 쫓겨나게 했다. 그들은 범죄에 대해 완전히 무죄임을 확신했고, 그 무죄가 곧 밝혀질

것이며, 밀렵 사실은 계속 숨겨질 것이라고 바랐다. 언제든지 적시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스탕제르 경이 서명한 서약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어, 그들의 자백을 서둘렀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석방되었으며, 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왜 더 일찍 석방하지 않았는가? 당시에는 그들의 사건에 밀렵만 관여되어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상황을 관찰하려 했다. 날이 갈수록 나의 확신은 더 굳건해졌다.

'설명할 수 없는 복도' 사건 다음 날, 나는 이곳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의 감금을 해제하여 그들을 즉시 내 편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뿐이다!

조제프 룰타비유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추리가 얼마나 단순했는지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즉 하인들 간의 공모 사건에서 진실을 찾아낸 그의 논리가 놀라울 만큼 간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은 사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젊은이가 언젠가 반드시, 같은 간명함으로 '노란 방'의 끔찍한 밤과 '알 수 없는 복도'의 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돈죵' 여관에 도착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주인을 볼 수 없었다. 대신 여주인이 우리를 반갑고 행복한 미소로 맞이했다. 나는 이미 우리가 있던 방을 묘사한 바 있고, 즉시 우리를 위해 움직여준 다정하고 아름다운 금발 여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한 바 있다.

"마티외 신부님은 어때요?" 룰타비유가 물었다.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세요."

"류마티즘이 좀처럼 낫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직접 모르핀 주사를 놓아 줘야 했어요. 그 약만이 그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녀의 모든 것이 부드러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약간 나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두덩이가 약간 패인 큰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신경통이 없다면 마티외 신부도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신경통 환자 옆에서 행복했을까? 우리가 앞서 목격한 광경만으로는 그녀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전체적인 태도에는 절망이 느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사라졌다. 식탁 위에는 훌륭한 시드르 한 병을 남긴 채였다.

룰타비유는 그 시드르를 그릇에 따라 주었다. 그는 파이프를 꽉 채워 불을 붙인 뒤, 차분하게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바로 그가 총을 들고 나를 글랑디에로 불러온 이유였다.

"네, 맞습니다." 그는 파이프에서 피워 올린 연기가 만들어 내는 구불거리는 무늬를 탐미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 밤, 나는 살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제 밤,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내게 내일 아침, 다시 말해 바로 오늘 아침 파리로 가야 할 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여행의 이유는 단호하면서도 비밀에 싸여 있었다. 단호했던 것은 그가 이 여행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밀에 싸여 있던 것은 그 목적을 나에게 밝힐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탕제르송 씨 곁을 떠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탕제르송 양이 다시 한 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내일 밤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글랑디에로 돌아오는 것은 모레 아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그가 내게 한 말은 전부 이랬다.

그가 느끼는 긴급한 위험감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곧, 그가 집을 비운 시간과 스탕제르송 경에게 가해진 공격 사이의 일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복도'의 밤, 그는 글랑디에를 떠나야만 했다. '노란 방'의 밤에도 그는 글랑디에에 있을 수 없었고, 실제로 우리는 그가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을 안다. 적어도 그의 진술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그가 이런 무거운 짐을 안고 오늘 다시 집을 비우려 한다면, "그것은 그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에 복종했기 때문"이어야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마도!"

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스탕제르송 경의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맹세했다. 그의 출발 결정은 스탕제르송 경의 지시와 무관하게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그는 새로운 공격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일치' 때문이라고 반복했다. 검사도 이미 그 점을 지적해 주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만약 스탕제르송 경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녀와 나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다시 한번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저에게는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밤을 어디에서 보냈는지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걸린 의심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프레데리크 라르상, 특히 라르상은 제가 파리에 갔던 마지막 때부터 저를 발자취로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죠. 그들은 이미 저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왜 지금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갑자기 외쳤다.

다르자크 경은 나의 외침에 극도로 동요한 기색이었다. 그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범인의 이름을 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었단 말인가?"

나는 즉시 반박했다.

"스탕제르송 경이요!"

그 순간,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쓰러질 것 같았다. 내가 정확히 찌른 것을 그는 알았다.

"스탕제르송 경과 그가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말했다.

"이제 그만 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여기 계신 동안, 당신의 뛰어난 지성과 독보적인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공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므로, 저는 당신이 그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스탕제르송 경을 고립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스탕제르송 경의 방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방 주변을 순찰견처럼 지키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교활합니다. 그 교활함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교활함이 그녀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셨습니까?"

"스탕제르송 선생님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식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살인자가 내일 올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놀랐다면, 제가 스탕제르송 선생님께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의 놀람은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제가 내린 이 불길한 예언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에 기반한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 우연들을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룰타비유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에 대해 큰… 정말 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를 의심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가엾은 사람이었다." 룰타비유가 계속 말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앞뒤가 맞지 않게 대답했다. 그는 고통받고 있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은, 그가 나를 위해 범인을 밝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점을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탕제르송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노란 방'과 '이해할 수 없는 복도'의 남자를 고발하기보다는 살해당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 남자는 스탕제르송 씨를, 혹은 그 두

사람을 모두 끔찍한 방식으로 쥐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스탕제르송 씨가 자신의 딸이 살인자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나는 다르자크 씨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해시켰다. 그가 더 이상 나에게 알려줄 것이 없으니 침묵해도 된다고 일러 주었다. 나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르자크 씨는 스탕제르송 씨의 방, 두 명의 경비원이 잠자는 작은 거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도' 이후로 스탕제르송 씨가 잠자는 거실, 즉 아파트 전체를 둘러싼 무적의 장벽을 조직해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그 간청을 통해 다르자크 씨가 단순히 스탕제르송 씨의 방으로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이 '명백히' 불가능해 보이게 만들어, 그 남자가 즉시 포기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나는 그가 나를 배웅하며 남긴 마지막 문장을 스스로 해석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은 오늘 밤 스탕제르송 씨, 자크 신부, 프레데리크 라르상,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눈앞에서 '당신이 유일하게 생각한' 감시를 조직하십시오."

그 가엾은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곳을 떠났다. 내 침묵과, 내가 그의 비밀 중 사분의 삼을 이미 간파했다는 듯이 그를 응시하는 내 눈빛이 그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토록 절박한 순간에 나를 찾아온 것도, 그리고 머릿속에는 '우연의 일치'라는 끔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탕제르송 씨를 방치하고 나를 선택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내 생각은 한 가지였다. 그의 술수보다 더 교활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오늘 밤 스탕제르송 씨의 방으로 들어간다면, 그의 방문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 단 한 순간도 그가 자신의 행적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말이다.

물론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설사 죽어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게 해야 했다. 그래야만 '죽었든 살았든, 그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스탕제르송 씨를 이 잠재적 살인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네, 친구야." 룰타비유가 파이프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잔을 비우며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싶다. 그래야만 '내가 이성의 날카로운 끝으로 그려낸 원 안에 그의 얼굴이 들어맞는지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전통적인 베이컨 오믈레트를 들고 여주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아주 상쾌한 기색이었다.

"아버지 마티유가 활보하실 때보다, 류머티즘으로 자리에 누워 계실 때 훨씬 더 밝아지더군."

하지만 나는 룰타비유의 장난기 어린 농담이나 여주인의 미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나는 온통 내 젊은 친구의 마지막 말과 로베르 다르자크의 기이한 걸음걸이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르자크가 오믈레트를 다 먹고, 우리가 다시 둘이 되자 룰타비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아침 일찍 전보를 보냈을 때, 저는 다르자크 씨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다음 밤에 올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이제 저는 그가 '확실하게'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무엇 때문에 가지게 되셨습니까? 혹시 우연히……"

"잠시만요." 룰타비유가 미소 지으며 나를 막았다. "잠시만요, 당신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려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열 시 삼십 분부터' 살인자가 오리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즉, 당신의 도착 전이며, 따라서 '우리가 중정(中庭)의 창문에서 아서 랜스를 본' 시점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아, 아! 정말…… 하지만 왜 열 시 삼십 분부터 확신하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열 시 삼십 분쯤 되자, 저는 스탕제르송 씨가 오늘 밤 살인자가 방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저에게 말을 걸 때 살인자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경계를 취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 오! 제가 들은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나는 소리쳐 외쳤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스탕제르송 씨가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매우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사건에서는 모든 것이 이상합니다, 친구여.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이상함은 당신이 앞으로 마주칠 이상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탕제르송 씨와 '그의 살인자' 사이에 최소한 서신 교환 정도의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친구!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탕제르송 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편

지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밤, 살인자가 남긴 편지 말입니다. 그 편지는 사라졌죠… 스탕제르송 씨 주머니 속으로 말입니다.

누가 감히 그 편지 속에서 살인자가 스탕제르송 씨에게 '다음 실제 만남의 시간을 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르자크 씨의 출항이 확실해지자마자, 살인자가 스탕제르송 씨에게 '다음 밤이 곧 그 만남의 시간'임을 알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째서 부당하겠습니까?"

내 친구는 묵묵히 비웃음을 터뜨렸다. 때때로 나는 그가 나를 장난으로 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여관 문이 열렸다. 룰타비유가 너무도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가 그의 의자에서 전기 충격을 받은 줄 알 만큼이었다.

"아서 랜스 씨!" 그가 외쳤다.

아서 랜스 씨가 우리 앞에 섰다. 그는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다.

"제 얼굴을 아시나요, 선생님?" 룰타비유가 그 신사에게 물었다.

"물론이지요." 아서 랜스가 답했다. "당신을 식탁 옆의 어린 소년으로 알아봤소. ('어린 소년'이라는 호칭에 룰타비유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익었다.) 방에서 내려와 당신과 악수하러 왔소. 당신은 재미있는 소년이오."

미국인이 손을 내밀었다. 룰타비유의 표정이 풀리자, 그는 웃으며 손을 잡고 나를 소개했다. 이어 아서 윌리엄 랜스 씨를 소개하며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자고 권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저는 스탕제르송 씨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서 란스는 우리 말을 거의 억양 없이 완벽하게 구사했다.

"저는, 선생님,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엘리제 궁에서 연회를 마친 다음 날, 혹은 그다음 날이면 귀국은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룰타비유와 나는 겉으로는 이 인사의 대화에 무관심한 척하며, 미국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말끔히 면도한 그의 얼굴은 보랏빛이 돌았고, 눈꺼풀은 무거웠다. 신경질적인 경련도 보였다. 모든 것이 그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비참한 인간이 스탕제르송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명망 높은 교수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몇 일 후, 나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으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르상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성 안에서의 행보에 놀라고 의아해했으며, 직접 조사를 해본 터였다.

그에 따르면, 란스 씨는 약 십오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시기는 바로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이 필라델피아를 떠난 때와 일치했다.

스탕제르송 가가 미국에 살던 시절, 그들은 아서 란스를 알고 지냈으며 그를 자주 접대했다. 란스는 신대륙에서 가장 저명한 골상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새롭고 독창적인 실험을 통해 갈과 라바테의 학문에 놀라운 진전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란스 씨가 글랑디에에서 이렇게나 친밀하게 대우받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그 미국 학자가 어느 날, 스탕제르송 씨에게 큰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는 점이다. 란스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달리는 스탕제르송의 마차 말을 제지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 사건 이후로, 아서 란스와 교수의 딸 사이에 잠깐의 우정이 맺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정황으로 보아, 여기에 사랑의 정이 개입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을까? 그는 그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그는 거의 확신에 차 있는 듯했다.

만약 아서 란스가 '돈죤' 여관에서 우리 곁으로 올 때, 우리가 이런 세부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가 성에 나타난 사실에 우리가 그

리 큰 의문을 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한층 더 커졌을 것이다.

미국인은 나이가 사십오 살쯤 되어 보였다. 룰타비유의 질문에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공격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미국으로의 귀국을 미뤘습니다. 떠나기 전에 스탕제르송 양이 치명상을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서 란스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었다. 룰타비유의 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생각은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그 미국인도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이 일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다르자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논리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재주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젊은 룰타비유가 '노란 방' 사건이라는 엉킨 실을 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스탕제르송 씨가 그에게 '해석할 수 없는 복도'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아서 란스의 말을 들으면, 그가 모든 것을 로베르 다르자크의 소행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는, 이처럼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다르자크 씨가 '하필이면 성에 없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챘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르자크 씨가 사건 현장에 조제프 룰타비유를 직접 파견한 것이 '매우 현명하고 사려 깊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룰타비유는 언젠가 반드시 살인자를 찾아낼 테니까 말이다. 그는 이 마지막 말을 뚜렷한 풍자로 내뱉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 버렸다.

룰타비유는 창문을 통해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 이상한 녀석이군."

나는 물었다.

"글랑디에에서 밤을 보낼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젊은 기자는 그것이 그에게 전혀 상관없다는 대답을 했다.

오후 내내 무엇을 했는지 길게 설명하진 않겠다. 그저 우리가 숲속을 거닐었고, 룰타비유가 나를 생테자네비브 동굴로 데려갔으며, 그 내내 친구는 자신에게 걸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만 짐짓 늘어놓았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다.

그렇게 저녁이 찾아왔다. 나는 기자 특유의 치밀한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룰타비유를 보며 깜짝 놀랐다. 내가 그 점을 지적했을 때, 밤이 깊어 그의 방에 함께 있게 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이번엔 그 살인자가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내가 복도에서 그 남자가 사라졌던 일을 들먹이며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걸 바라고 있소. 오늘 밤 내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일 뿐이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이다. 내 집요함은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실례가 된다는 것을.

그는 오늘 아침부터 자신과 경비원들의 감시 하에 성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 외부인이 접근하면 즉시 알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만약 외부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안쪽에 있는 자들'과 관련된 일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가 조끼 주머니에서 꺼낸 회중시계는 여섯 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일어났고, 나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발소리를 줄이려 하지도,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러주지도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지 않은 태도로 나를 이끌고 복도를 지나갔다.

우리는 오른쪽 복도에 도착했고, 거기를 따라 계단 층까지 이어졌다. 그곳을 지나쳐 다시 복도로 들어섰다. '왼쪽 날개' 복도였다. 우리는 스탕제르송 교수의 아파트 앞을 지나쳤다.

이 복도의 끝, 즉 망루에 다다르기 직전에는 아서 란스가 머무는 방이 있었다. 우리는 이를 알았다. 정오에 미국인이 안뜰을 내려다보는 그 방 창문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 방의 문은 복도 한가운데에 있었다. 방이 복도를 가로막고 끝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 문은 정확히 다른 쪽, 오른쪽 복도의 끝자락에 있던 '동쪽 창문'과 마주보고 있었다. 그곳은 룰타비유가 이전에 자크 신부를 앉혔던 곳이다.

만약 그 문에 등을 돌린다면, 즉 그 방에서 나온다면, '복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왼쪽 날개, 계단 층, 그리고 오른쪽 날개가 일직선으로 이어져 보였다. 다만 오른쪽 날개의 구불구불한 복도 부분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이 회전식 복도는 제가 맡겠습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저는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작은 삼각형 방으로 안내했다. 이 방은 복도 일부를 떼어내 만든 것으로, 아서 란스의 방 문 왼쪽에 비스듬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구석진 곳에서 나는 복도 전체의 움직임을, 마치 아서 란스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미국인 남자의 문 자체도 감시할 수 있었다.

내 관찰용 거점이 될 이 방의 문은 갈지 않은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다. 복도에는 모든 전등이 켜져 있어 환했지만,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는 감시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위치였다.

그때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 감시자? 하급 형사? 나는 분명 그런 일을 꺼리고 있었다. 타고난 본능도 있었거니와, 내 직업의 체면이 그러한 굴욕을 막아주지 않았던가.

진짜로, 내 협회장이 나를 본다면 어떨까? 법원에서 내 행실이 알려지면, 협회 이사회는 뭐라고 할까?

룰타비유는 내가 그에게 부탁받은 일을 거절할 생각조차 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그에게 거절하지 않았다. 첫째, 그에게 coward(겁쟁이)로 비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아마추어로서 어디든 가서 진실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나는 이런 양심을 더 일찍 가지지 못했을까? 왜 가지지 않았을까? 나의 호기심이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내가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고결한 뜻을 금지할 전문 규정은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우리는 복도를 가로질러 돌아왔다.

스탕제르송 양의 아파트 정면에 다다랐을 때, 살롱 문이 열렸다. 시중을 들던 주방장이 문을 밀어낸 것이었다. 생클레르 씨는 사흘째 1층 살롱에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안쪽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하인이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가 몸을 숙여 그녀가 방금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틈을 타, 마틸드는 손에 쥔 작은 약병의 내용물을 아버지의 잔에 서둘러 부어 넣었다.

그 동작은 나를 심하게 흔들었지만, 룰타비유는 전혀 감동하지 않은 듯했다. 우리는 그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말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밤을 보내기 위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먼저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검은 방에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만약 당신이 나보다 먼저 본다면, 내 친구가 설명해 주었다. 반드시 나에게 알려주게. 당신이 오른쪽 복도를 통해 그 남자가 회전 복도 말고 다른 길로 들어오는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말이야. 당신은 오른쪽 복도 전체를 볼 수 있지만, 나는 회전 복도만 볼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방법은 간단해. 오른쪽 복도 창문에 걸린 커튼의 매듭을 풀기만 하면 돼. 그 커튼은 가장 검은 방에 가까운 곳에 있지. 커튼이 떨어지면 창문이 가려지고, 원래 빛이 비추던 자리에 갑자기 어둠의 사각형이 생길 거야. 복도 전체에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이 동작을 하려면 검은 방 밖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 나는 오른쪽 복도와 직각을 이루는 회전 복도에 있는데, 회전 복도의 창문을 통

해 오른쪽 복도 창문들이 만드는 빛의 사각형들을 모두 볼 수 있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빛의 사각형이 어둠으로 변하면, 내가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회전 복도의 모퉁이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뭘 하죠?"

"저를 따라 그 남자 뒤로 곧장 걸어오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남자'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제 원형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겠죠."

"'이성의 올바른 끝으로 그려진' 원형 말입니다." 나는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왜 웃는 거요? 쓸데없는 짓이오. 어쨌든,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기뻐하세요. 제가 맹세컨대, 조금 뒤에는 더 이상 기뻐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 남자가 도망치면 어떡하죠?"

"좋아." 룰타비유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1층 현관으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당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이상, 그가 도망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당신이 발걸음을 옮기기 전일 겁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뒤 그를 놓아줄 생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얼굴만 본다면, 그 후로 어떻게든 처리해서 스탕제르송 씨 앞에 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를 생포하면, 스탕제르송 씨나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들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요.

스탕제르송 씨가 아버지의 잔에 마약을 타서, 아버지가 '살인자와의 대화' 때문에 밤에 깨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 내가 '주먹을 묶고 입을 벌린 채' '노란 방'과 '이해할 수 없는 복도'의 남자를 스탕제르송 씨의 아버지 앞에 끌고 간다면, 스탕제르송 씨의 감사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복도'의 밤, 그 남자가 마법처럼 실종된 것은 큰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스탕제르송 씨가 '그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불쌍한 여자를 구하려면, 남자를 잡는 것보다 어떤 수단을 쓰든 그를 침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다니!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그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한은 말이오!… 다른 한편으로, 그 부인이 내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은 채 그를 침묵시키는 것은… 우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알아맞

혀야 하는 일이지요!… 다행히도, 친구여, 나는 알아맞혔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남자에게 바라는 것은, 원 안에 들어와야 할 그 또렷한 얼굴 하나뿐입니다."

"원 안에서…"

"당연하지.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방으로 뛰어든 순간 이미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본 것은 아니야. 촛불이 바닥에 떨어져 빛이 흐릿했거든. 게다가 그 거친 수염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수염이 없을 텐데?"

"있을 거야. 내가 단언할 수 있어. 하지만 복도는 밝아. 그리고 이제 나는… 아니, 내 머릿속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 내 눈은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를 보고 놓아주면 되는 일이라면, 왜 무장을 하고 나선 겁니까?"

"내 친구여, '노란 방'과 '이해할 수 없는 복도'의 남자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방어해야 해."

"그리고 당신은 그가 오늘 밤 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오늘 아침 열 시 반쯤, 가장 교묘하게도오늘 밤 간호사를 모두 내보냈습니다. 설득력 있는 구실을 대며 이십사 시간의 휴가를 준 거죠. 간호사들이 떠난 사이, 그녀 곁을 지킬 사람은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뿐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작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이 새로운 임무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다르자크 씨가 떠난 시점과, 그가 남긴 말들을 떠올려 보면, 스탕제르송 부인이 주변을 고요히 만들어 고독을 조성하려는 특별한 조치들이 겹치는 이 순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두려워했던 살인자의 내습이, 바로 스탕제르송 부인 자신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하다!"

"우리가 그녀에게서 본 그 제스처는, 그녀의 아버지를 잠들게 할 그 제스처인가?"

"요컨대, 오늘 밤의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둘만 남았다는 뜻인가?"

"아니, 네 명이다. 문지기 부부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감시하고 있다. …전 '전…' 단계에서는 그들의 감시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살인이 일어나면', 문지기는 '후…' 단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원한다면 '죽이게 될 것이다'!"

"왜 자크 영감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오늘 더 이상 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오." 룰타비유가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 나서 룰타비유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주저 없이 물었다.

"왜 아서 란스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아, 참! 룰타비유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스탕제르송 양의 비밀을 모두에게 털어놓으려는 건가? 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자. 시간이 되었다. 오늘 밤 우리는 프레데리크 라르상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 아니면 그가 로베르 다르자크의 발자취를 쫓다가 아직 그에게 딱 달라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르자크를 한 발짝도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아. 만약 지금 그가 여기에 없다면, 밤이 되면 반드시 나타날 거야. 내가 저자를 꼭 속여버리겠어."

그때 옆방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그가 분명해." 룰타비유가 말했다.

"경찰관을 마주칠 때, 오늘 밤의 사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 그렇지?" 내가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오직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지?"

룰타비유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바로 그거야, 이 친구야!"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방에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막 도착한 참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권했다.

저녁 식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그 기분이 룰타비유와 프레데리크 라르상,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드디어 진실을 손에 쥔 듯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룰타비유는 '거인' 프레드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그를 만나러 왔으며, 그가 오늘 밤 '레포크'지에 실을 중요한 작업을 돕기 위해 나를 붙잡아두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내가 밤 열한 시 기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쓴 '사본', 즉 젊은 기자가 글랑디에의 신비한 사건들의 주요 에피소드를 재구성한 일종의 연재물을 가지고 가야 했다.

라르상은 이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는 알면서도 예의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라르상과 룰타비유는 어휘 하나, 억양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아서 W. 란스 씨의 성채 방문, 그리고 그가 스탕제르송 가와 맺었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던 그의 미국 시절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라르상은 갑자기 아픈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룰타비유 씨, 글랑디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묵을 밤도 이제 많지 않을 것 같군요."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프레드 씨."

"친구, 그러니까 '이 일은 끝난' 거라고 믿는군요?"

"맞습니다. 이 일은 끝났고, 우리에게 더 이상 배울 점은 없습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범인을 특정했습니까?" 라르상이 물었다.

"당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같은 사람을 지목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젊은 기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힘차게 외쳤다.

"다르자크 씨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라르상이 물었다. "음, 저는 정반대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결국 싸움인 셈이군요?"

"네, 싸움입니다. 그리고 프레데리크 라르상 씨, 저는 당신을 이기겠습니다."

"젊음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거인' 프레드가 웃으며 내 손을 잡으며 말을 맺었다.

룰타비유가 메아리처럼 받아쳤다.

"아무것도!"

그때 갑자기 라르상이 일어나 우리에게 밤 인사를 건넸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지 않으려 룰타비유에게 기대야 했다. 그의 얼굴이 극도로 창백해져 있었다.

"오! 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중독된 걸까?"

그는 멍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간곡히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버렸고, 우리는 그에게서 단 한 마디의 말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우리는 그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극도로 불안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손댄 모든 요리를 우리가 먹어 치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주위를 바쁘게 오갔다.

지금은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거운 머리는 어깨에 기대어 기울었고, 무거워진 눈꺼풀은 그의 시선을 가려버렸다. 룰타비유는 그의 가슴에 몸을 숙여 심장을 청진했다.

그가 일어나자, 내 친구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격앙되었던 것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고 있어!"

그리고는 라르상의 방 문을 닫은 뒤, 나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다.

"마약 같은 약물이요?" 내가 물었다. "스탕제르송 씨는 오늘 밤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려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룰타비유가 다른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말입니다! 우리요!" 내가 외쳤다. "우리가 그런 마약을 먹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몸이 불편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룰타비유는 냉정하게 물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절대로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친구. 이 훌륭한 시가를 피우십시오."

그는 다르자크 씨가 자신에게 선물해 준 최고 등급의 아바나 시가를 내게 건넸다. 반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친구인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그 방에서 열 시까지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룰타비유는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고, 시선은 멀리 떨어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열 시가 되자 그는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제야 나는 그 신호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양말만 신고 서 있는 사이, 룰타비유가 나직이 말했다.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기보다는 추측에 가까웠다.

"권총!"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장전해!"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장전을 했다.

그는 자신의 방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무척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우리는 회전 복도에 있었다. 룰타비유가 나에게 또 한 번 손짓을 했다. 나는 그가 내가 검은 방에서 제 자리를 지키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미 그를 떠나고 있던 나에게 룰타비유가 다가와서는 '내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는 같은 신중함으로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 키스에 놀라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느껴 나는 오른쪽 복도에 도착했다. 나는 아무 방해 없이 복도를 따라 걸었다. 층계참을 지나 왼쪽 날개 복도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검은 방 앞에 다다랐다.

검은 방에 들어가기 전, 나는 창문의 커튼 틀을 가까이서 살폈다. 사실, 나는 손가락으로 커튼을 살짝만 건드려도 무거운 커튼이 한 번에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룰타비유에게 빛의 사각형이 가려지는' 것이었다. 이는 미리 정해둔 신호였다.

발소리가 들리자, 나는 아서 란스의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는 스탕제르송 씨와 그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직 성에 남아 있었던 걸까? 적어도 스탕제르송 씨의 제스처를 포착했을 때, 나는 식탁에서 그를 보지 못했다.

나는 검은 방으로 물러났다. 그곳은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였다. 복도 전체가 한 줄로 한눈에 들어왔다. 복도는 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분명히, 그곳에서 벌어질 일은 내 눈앞에서 결코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매우 중대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룰타비유가 내게 입맞춤했던 일이 다시금 걱정스럽게 떠올랐다. 친구에게 그런 키스를 건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혹은 그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인가? 나는 주먹을 쥐고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하지만 겁쟁이도 아니다.

나는 약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 동안 나는 아무런 이상한 기색도 발견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밤 아홉 시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던 비가 이미 그쳤다.

친구가 내게 말하길, 아마 자정이나 새벽 한 시쯤이 돼야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열한 시 반도 되지 않았을 때, 아서 란스의 방 문이 열렸다. 나는 그 문이 경첩 위에서 내는 약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안쪽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낸 것 같았다. 문은 잠시 동안 열려 있었는데, 그 시간이 내게는 매우 길게 느껴졌다. 이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즉 방 밖인 복도로 밀려났기 때문에, 나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묘한 소리가 세 번째로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소리는 공원에서 들려왔고, 나는 평소 야간에 낙수구를 배회하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듯, 그 소리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울음소리는 너무도 맑고, 너무도 '특별'해서, 나는 '신의 짐승'의 울음소리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글랑디에에서 벌어진 모든 비극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떨림을 금할 수 없었다.

곧이어 나는 문 너머로 한 남자가 나타나 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등만 보이고, 꽤 큰 꾸러미 위에 몸을 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문을 닫고 꾸러미를 들고 검은 방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시간에 아서 란스의 방에서 나온 사람은 '경비원'이었다. 바로 '녹색 옷의 남자'였다. 그는 내가 글랑디에에 온 첫날, '돈죵' 여관 앞에서 그를 보았을 때 입었던, 그리고 그날 아침 성을 나서던 중 라르상과 내가 그를 마주쳤을 때도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경비원이었다. 나는 그를 아주 선명하게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불안함이 표현되어 있는 듯했다. '신의 짐승'의 울음소리가 밖에서 네 번째로 울려 퍼지자, 그는 꾸러미를 복도에 내려놓고, 검은 방을 기준으로 두 번째 창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나는 내 존재를 들킬까 봐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다.

그가 그 창가에 다다르자, 그는 이마를 흐릿한 유리창에 바짝 대고 정원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에 반분 정도 멈춰 섰다. 밤은 간헐적으로 밝았다. 눈부신 달이 환히 비추다가도 갑자기 큰 구름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녹색 옷의 남자’는 두 번이나 팔을 들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창가에서 물러나 자신의 소포를 다시 들고, 복도를 따라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룰타비유가 내게 말했었다. “무언가 보이면 밧줄 매듭을 푸시오.”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것이 룰타비유가 기다리고 있던 그 ‘무언가’였을까? 그것은 내 알 바 아니었다. 나는 주어진 지시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밧줄 매듭을 풀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남자는 계단 중간 쉼터에 도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그가 오른쪽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는 현관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멍하니 창문으로 다시 내려온 무거운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호는 이미 전달되었지만, 회전 갤러리 구석에서 룰타비유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나는 당황했다. 반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은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설령 내가 다른 것을 보더라도?’

신호는 이미 보냈으니, 내가 다시 보낼 수는 없었다.

한편, 지금 그 복도에 들어가는 것은 룰타비유의 모든 계획을 어지럽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자책할 일이 없었다. 만약 내 친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탓이었다.

이제 나는 그에게 경고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감행하기로 했다.

골방을 나와 양말 차림으로 걸음을 재며, 발걸음을 살피고 고요함을 경청하며, 나는 회전 복도로 향했다.

회전식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룰타비유의 방 문으로 향했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룰타비유가 마루바닥에 온몸을 펴고 누워 있었다……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에 떨며 기자의 몸 곁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기적 같은 기쁨을 느꼈다. 그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그랬던 것처럼, 깊고 병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역시 우리 음식에 섞인 마약의 희생자였다.

그런데 왜 나는 같은 운명을 면했을까?

생각해 보니, 마약은 우리 포도주나 물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모든 것이 설명된다. 나는 "식사는 하되 음주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배가 불룩한 편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건조한 식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룰타비유를 세게 흔들어 댔다. 하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깊은 잠은 스탕제르송 양의 소행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아버지만큼이나, 아니 더 크게, 그 젊은이의 감시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방금 전, 웨이터가 우리를 모실 때 권했던 샤블리 와인을 떠올렸다. 그 와인은 분명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이 앉았던 식탁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한참 시간이 지났다. 십오 분 남짓 흘렀을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룰타비유의 머리 위로 물동이 한 바가지를 퍼부은 것이다.

드디어 그가 눈을 떴다.

그러나 그 눈은 초롱초롱하지 않았다. 생기가 없고 시선도 없었다. 그저 흐릿하게 떠 있는 눈동자였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승리가 아니었는가?

나는 이 승리를 확정지으려 했다. 룰타비유의 뺨을 두 번 때려 주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행운이었다.

그가 내 팔 안에서 몸을 굳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소음은 줄여 주세요…"

소음을 줄이면서 때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방법을 바꿨다. 그의 살을 꼬집고 몸을 흔들었다.

그제야 그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를 마취시켰어…… 아, 잠들기까지 열다섯 분이나 끔찍한 시간을 견뎌야 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나를 떠나지 마!"

그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성 안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마치 죽음 그 자체의 비명 같은, 귀를 찢을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큰일 났어!" 룰타비유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했어!"

그는 문 쪽으로 뛰쳐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어지러움에 휩싸여 벽에 부딪혀 굴러떨어졌다.

나는 이미 복도 한가운데에 있었다. 손에는 권총을 쥐고, 미친 듯이 스탕제르송 선생님의 방 쪽으로 달렸다.

회전식 복도와 직선 복도가 만나는 지점에 도착하던 찰나, 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스탕제르송 선생님의 방에서 빠져나와, 몇 번의 도약으로 계단참에 다다랐다.

나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총을 쏘았다.

총성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미친 듯이 도약하며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뒤쫓으며 소리쳤다.

"멈춰! 멈춰! 안 그러면 죽여!"

나도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그때였다. 성의 왼쪽 날, 복도 끝에서 아서 란스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와 나는 거의 동시에 계단 아래에 도착했다. 현관 창문은 열려 있었다. 우리는 도망치는 남자의 모습을 또렷이 보았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를 향해 발사했다.

남자는 우리로부터 십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듯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남자는 새로운 기운을 얻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양말만 신고 있었고, 미국인 란스는 맨발이었다. 총알이 그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그를 잡을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남은 총알을 모두 쏘았다. 그는 여전히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영빈관 마당의 오른쪽으로, 성의 오른쪽 날 끝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곳은 해자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우리 앞에는 작은 방의 문만이 유일한 출구였다. 그곳은 현재 경비원의 숙소로 쓰이고 있었다.

남자는 우리의 총탄에 피할 수 없이 맞았음에도, 이제 우리보다 약 스무 미터 앞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리 뒤쪽, 우리 머리 위 높이에서, 갤러리의 한 창문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는 룰타비유의 비명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 절망적인 그 목소리가 외쳤다.

"쏘아라, 베르니에! 쏴!"

그 순간, 맑았던 밤하늘, 달빛이 비치는 밤하늘은 또 한 번 번개의 빛줄기에 찢어졌다.

그 번개의 빛에 우리는 베르니에 영감를 보았다. 그는 성채의 문 앞에 서서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는 정확하게 조준했다. 「그림자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림자는 성채의 오른쪽 날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건물의 모퉁이 너머로 떨어졌다. 즉, 우리는 그림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땅에 드러눕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벽 저쪽에서였다.

베르니에, 아서 란스, 그리고 나는 벽 저쪽에서 이십 초 후에 도착했다. 「그림자는 우리 발치에서 죽어 있었다.」

혼수 같은 잠에서 함성과 총성에 깨어난 라르상은. 그는 자신의 방 창문을 열었고, 아서 란스가 외친 것처럼 우리에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는 살인자의, 그 신비롭고 죽은 그림자 위에 몸을 굽혔다.

그때 룰타비유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좋아.” 그가 말했다. “그것을 성의 현관으로 가져가자.”

하지만 그는 곧 말을 바꾸었다.

“아니야! 아니! 경비원 방에 모시자고.”

룰타비유는 경비원 방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대답하는 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놀랄 일도 아니었다.

"분명히 저기에 없군. 만약 있었다면 벌써 밖으로 나왔을 테니까." 기자가 말했다. "그럼 이 시신을 현관으로 옮기자고."

우리가 '죽은 그림자'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달을 가리던 무거운 구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끝으로 그 그림자의 윤곽만 더듬을 수 있을 뿐, 정확한 형태를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빨리 진상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때 막 도착한 자크 영감이 우리를 도와 시신을 성의 현관까지 옮겼다. 우리는 시신을 계단 첫 번째 단계 위에 내려놓았다. 그 길 내내 내 손바닥에는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피가 느껴졌다.

자크 영감이 부엌으로 달려가 등불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죽은 그림자'의 얼굴을 살펴보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비원을 알아봤다. 여관 '돈죵'의 주인이 '녹색 옷 입은 남자'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다. 한 시간 전, 나는 그가 아서 란스의 방에서 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룰타비유에게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렇게 했다.

나는 조제프 룰타비유와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놀라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라르상은 우리와 함께 현관에 합류한 상태였다. 나는 그들의 놀라움을 '엄청난 경악'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더 정확히는 '가혹한 실망'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시신을 더듬어 보았다. 죽은 자의 얼굴을, 그리고 녹색 경비복을 입은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말도 안 돼! … 정말 말이 안 돼!"

룰타비유는 심지어 소리쳤다.

"머리를 개들에게 던지고 싶을 지경이야!"

자크 신부는 어리석은 슬픔을 드러내며 부끄럽게도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비가 자신의 여주인을 죽일 리가 없다고 항변했다. 우리는 결국 그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설령 자식이 살해당했다 해도 그가 그토록 애처롭게 울부짖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이러한 과장된 애처로움이, 바로 그 드라마틱한 죽음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모두들 자크 신부가 경비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 모두 흐트러진 차림이거나 맨발이거나 양말만 신은 상태였지만, 오직 자크 신부만 완전히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시체를 놓지 않았다. 그는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크 신부가 든 등불 빛에 비춰진 채, 경비원의 시체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는 시체의 가슴을 드러냈다. 가슴은 피투성이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자크 신부에게서 등불을 받아 들고는, 상처 난 부위에 가까이서 빛을 비추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특이한 어조, 야생적인 아이러니가 서린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권총과 산탄총으로 쏘아 죽인 줄 아는 이 남자는, 사실 칼에 심장을 찔려 죽었습니다!"

나는 룰타비유가 또다시 미쳐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시신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제야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경비의 시신에는 총알에 의한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심장 부위만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흔적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발견이 내게 준 충격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찰나, 내 젊은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나를 따라와."

"어디로요?" 내가 물었다.

"내 방으로."

"거기서 뭘 하려는 거지?"

"생각해보자고."

나로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나는 사색은커녕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 비극적인 밤, 그 끔찍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 이후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조제프 룰타비유가 '사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경호원의 시체가 있고, 아마도 스탕제르송 씨가 임종 중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사색을 행했다.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큰 장군들이 보여주는 듯 한 냉정함으로. 그는 우리 쪽으로 자신의 방 문을 밀어 열더니, 나에게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내 앞에 앉아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나는 그가 사색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결국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낮이었다. 내 시계는 여덟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룰타비유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내 앞, 마주 보는 안락의자는 비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다리를 쭉 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내 친구가 들어왔다.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즉각 알았다. 내가 잠든 동안,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탕제르송 선생님이요?" 내가 바로 물었다.

"상태는 매우 위중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 방을 얼마나 오래전에 나왔습니까?"

"새벽 첫 빛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당신은 일을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매우 특이한 두 겹의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죠……"

"지금은 더 이상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이 어떤 것을 설명해 주나요?"

"그 '믿을 수 없는 시체', 즉 경비원의 시체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네, 이제 이 시체는 완전히 '믿을 만'하군요."

나는 아침에 성 주변을 산책하며 두 가지 서로 다른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자국은 밤새 함께, 나란히 찍혔다. 나는 '함께'라고 말했다. 사실 다른 방식일 수가 없었다. 만약 한 발자국이 다른 발자국 뒤를 따라 같은 길을 걸었다면, 대체로 '서로 겹쳤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한쪽의 발자국이 다른 쪽을 밟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서로 '대화하는' 발걸음처럼 보였다.

이 쌍둥이 발자국은 성 안뜰 중앙쯤에서 다른 모든 흔적을 떠나, 안뜰을 빠져나갈 채비를 하며 참나무 숲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안뜰을 떠나 내 발자국 자취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프레데리크 라

르상이 내 곁에 다가왔다. 그는 즉시 내 작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쌍둥이 발자국은 정말로 주목할 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란 방' 사건 때의 쌍둥이 발자국을 다시 발견했다. 거친 발자국과 우아한 발자국. 하지만 '노란 방' 사건 당시 거친 발자국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우아한 발자국과 합쳐진 뒤 사라졌다. 라르상과 나는 그때 그 두 발자국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고, 그가 신발만 갈아 신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여기서는 거친 발자국과 우아한 발자국이 함께 여행했다. 이런 발견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확신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라르상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두 발자국 위에 몸을 굽혀, 기다리는 개처럼 그 발걸음을 냄새로 맡았다.

지갑에서 종이 깔창 두 장을 꺼냈다. 첫 번째 깔창은 라르상이 찾아낸 자크 신부의 구두 자국을 베껴 만든 것이었다. 즉, 거친 발자국 자국이었다. 이 깔창을 우리 눈앞의 자국 중 하나에 대보니 완벽하게 일치했다.

두 번째 깔창은 '우아한 발자국'의 도안이었다. 이를 대응하는 자국에 대보니 역시 딱 들어맞았다.

요약하자면, 새로 발견된 우아한 발자국은 연못가 자국과 달리 구두 끝부분만 달랐다. 이 자국이 같은 인물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남의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었다. 그 미지의 인물은 더 이상 같은 구두를 신고 있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두 줄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갔다. 라르상과 나는 참나무 숲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다시금 첫 번째 조사 때와 같은 연못가 변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발자국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줄 모두 작은 오솔길을 따라 이어져, 에피네의 큰 도로와 합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근 새로 깔린 아스팔트 도로를 만났다. 하지만 그 위에서는 더 이상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성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경내 안마당에 도착하자 헤어졌다. 하지만 다시 자크 신부님의 방 문 앞에서 만났다.

늙은 하인을 침대에서 발견했다. 그가 의자에 던져놓았던 옷가지들을 보니 형편이 처참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신발이었는데, 진흙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비원의 시체를 마당 끝 현관까지 나르거나, 등불을 가져오러 부엌으로 갔을 때 그 정도가 되었을 리가 없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전에는 비가 왔고, 그후에도 비가 내렸다.

그 남자의 얼굴은 보기 흉했다.

그의 눈이 초조하게 빛나며 우리를 노려보았다.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그의 시선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바로 침대에 들어갔으며, 집사가 그 의사를 부르러 갔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끝까지 추궁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 냈다. 결국 그는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실제로 성을 나갔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머리가 어지러워 공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가지 않았다고, 참나무 숲 근처까지였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걸었던 경로를 모두 설명해 주었다. 마치 우리가 그의 발걸음을 직접 지켜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떨기 시작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었군요!” 라르상이 외쳤다.

그러자 자크 신부가 물었다.

“당신은 본 거요?”

“누구를?” 내가 물었다.

"그 검은 유령을!"

그때 자크 신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근 며칠 밤 동안, 그가 검은 유령을 보았다고 했다.

유령은 자정 무렵 공원에 나타나곤 했다.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나무 줄기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치 나무 줄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이나 자크 신부는 유령을 목격했다. 달빛이 비치는 창문 너머로 본 것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그 기이한 현상을 쫓아 나섰다.

그저께 밤, 그는 유령을 거의 따라잡을 뻔했다. 하지만 성탑 모퉁이에서 유령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성 밖으로 나섰다. 방금 저질러진 새로운 범죄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면서였다. 그러자 갑자기 중정의 한가운데 검은 유령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유령을 더 가까이 따라갔다.

그렇게 그는 참나무 숲을 지나 연못을 돌았다. 그리고 에피네 도로 가장자리까지 도달했다.

"그곳에서 유령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을 보지 못했소?" 라르상이 물었다.

"아니요. 검은 베일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도, 그에게 달려들지 않았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 뒤를 쫓아갈 기력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 뒤를 쫓지 않았지, 자크 신부." 내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당신은 '팔을 끼고' 그 유령과 함께 에피네 도로까지 함께 걸었소."

"아닙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그때 갑자기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검은 유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나를 피했다.

우리는 그를 떠났다.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물었다.

"공범인가?"

나는 특이한 어조로 라르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물었다.

라르상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런 사건에서는…… 정말로 뭘 알 수 있을까요? …… 하루 전만 해도, 저는 가담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곧장 성을 떠나 에피네로 향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룰타비유가 이야기를 끝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 그럼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결론 내야 할까요? ……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 이해가 안 됩니다! …… 어쨌든! ……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모두요!" 그가 외쳤다. "모두요!"

그의 얼굴이 이렇게나 빛난 적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힘껏 쥐었다.

"그럼,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간청했다.

"스탕제르송 양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 봅시다." 그가 갑자기 대답했다.

스탕제르송小姐는 두 번째로 살해당할 뻔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두 번째 피해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비극적인 그 밤, 남자가 그녀의 가슴에 세 번이나 칼을 꽂아 넣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였다.

드디어 생명이 이겨내고, 불쌍한 이 여성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운명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였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감각을 되찾았지만, 이성은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그 끔찍한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사소한 언급만으로도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리고 나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시자의 시체가 발견된 다음 날, 글랑디에 성에서 로베르 다르자크가 체포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지성이 사라져버린 도덕적 심연은 한층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밤 아홉 시 반쯤 성에 도착했다. 나는 그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과 옷이 엉망이었고, 진흙투성이로 초라한 신세였다. 그의 얼굴은 죽은 자처럼 창백했다.

룰타비유와 나는 복도의 창문에 팔을 기대고 있었다. 다르자크 씨는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절규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룰타비유가 그에게 외쳤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1분 후, 다르자크 씨는 스탕제르송 양의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문 너머로 그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운명이라니!" 내 곁에서 룰타비유가 신음했다. "도대체 어떤 지옥의 신들이 이 가족의 불행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내가 잠들지 않았다

면, 나는 스탕제르송 양을 그 남자로부터 구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를 영원히 침묵하게 했을 테니…… 그 경비원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 . . . . .

다르자크 씨가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온통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룰타비유는 모든 사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스탕제르송 선생과 자신,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본 뒤 영원히 그를 격리시켜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지, 또 마약성 진정제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피비린내 나는 실패로 끝났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아,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저를 믿었다면요." 젊은이가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스탕제르송 선생님께 저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면요! 하지만 여기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약혼녀는 약혼자를 의심하죠. 당신이 저에게 살인자의 도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반쯤 잠든 채, 거의 기어가는 신세로. 그리고 이 방에 들어섰을 때, 피투성이로 쓰러진 불쌍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다르자크 씨의 요청으로 룰타비유는 그 장면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복도와 안마당에 서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자를 쫓고 있었지만, 그는 홀로 피해자의 방으로 향했다.

안방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스탕제르송 양은 책상 위로 반쯤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그녀의 가운을 붉게 물들였다.

아직 마취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룰타비유에게, 그 광경은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복도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인을 알렸다. 우리를 향해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즉시 텅 비어 있던 작은 거실을 지나, 문이 살짝 열려 있던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있던 스탕제르송 씨를 흔들었다. 방금 전 내가 그를 깨웠던 것처럼, 그는 그를 깨웠다.

스탕제르송 씨는 멍한 눈으로 벌떡 일어났다. 룰타비유에게 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보았다. 그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아! 깨어났구나! 깨어났어!"

이제 두 사람은 비틀거리는 힘을 합쳐, 피해자를 침대로 옮겼다.

그때 룰타비유가 우리와 합류하겠다고 나섰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알고 싶다'고나 할까.

하지만 방을 떠나기 전, 그는 책상 곁에서 멈춰 섰다. 바닥에 거대한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너무도 거대한, 한데 뭉친 짐덩어리였다. 책상 옆에 그 꾸러미가 무슨 용도로 놓여 있는 것인가?

그를 감싸고 있는 serge 천 봉투 끈이 풀려 있었다. 룰타비유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서류들, 서류들이었다. 그리고 사진들까지.

그가 읽어 내려갔다. "차동 축전기형 새로운 전계측기… 무게 있는 물질과 무게 없는 에테르 사이의 중간 물질의 근본적 성질."

정말, 정말로 이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운명의 무시무시한 아이러니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그의 딸을 살해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스탕제르송 교수에게 쓸모없는 서류 더미를 돌려주러 온 것이다. 교수라면 내일 당장 불태워버릴 서류들을 말이다.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내일 당장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 . . . . .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난 아침, 드 마르케 씨와 그의 서기, 그리고 헌병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모두 심문을 받았지만, 스탕제르송 양은 혼수상태에 가까운 상태였기에 제외되었다.

룰타비유와 나는 서로 의논한 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다. 나는 검은 방에서 지낸 일이나 마취제 이야기는 일절 털어놓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스탕제르송 씨가 '살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숨겼다. 불쌍한 여인은 자신이 숨긴 비밀 때문에 살인자에게 목숨을 바칠지도 모른다. 그런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

아서 란스는 누구에게나 매우 자연스럽게,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증언을 했다. 그 덕분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밤 열한 시쯤에 경비원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다. 경비원이 자신의 방에 와서 다음 날 새벽 일찍 생미셸 역까지 가져가야 할 짐을 챙기러 왔는데, 두 사람은 사냥과 밀렵 이야기를 하며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다는 것이다.

아서 윌리엄 란스는 사실 그 아침에 글랑디에를 떠나 평소처럼 걸어서 생미셸로 향해야 했다. 그래서 경비원이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 아침 시간을 이용해 짐을 처리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바로 그 짐을 내가 아서 란스의 방에서 나오는 녹색 옷 입은 남자가 들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스탕제르송 씨가 그의 말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구인 아서 란스 씨를 모시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란스 씨는 오후 다섯 시쯤, 딸과 자신에게 영영 이별을 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란스 씨는 자신의 방에서 차 한 잔만 간단히 대접받았다. 그는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베르니에, 즉 문지기인 그는 룰타비유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날 밤, 경비원 본인이 자신을 불러 야생동물 밀렵꾼을 쫓으라고 명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이제 이를 부인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참나무 숲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그런데 경비원이 오지 않자, 베르니에가 먼저 경비원을 만나러 나섰다는 것이다.

그가 마당 안쪽의 작은 문을 지나 성의 중앙 탑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는 반대편, 성의 오른쪽 날개 끝으로 향해 달아나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순간, 달아나는 남자 뒤에서 권총 소리가 울려 퍼졌다. 룰타비유가 갤러리의 창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룰타비유는 베르니에를 보고는 그를 알아봤다. 그리고 베르니에가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본 룰타비유는 사격을 명했다.

베르니에는 미리 장전해 둔 총을 쐈다. 그는 그 총알이 달아나는 남자를 쓰러뜨렸다고 확신했다. 심지어 남자를 죽였다고까지 생각했다. 그 생각은 룰타비유가 총에 맞아 쓰러진 시신을 뒤져, 그 시신이 "칼에 찔려 죽었다"고 알려줄 때까지 계속됐다.

베르니에는 이런 기이한 일의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총을 쏘았던 그 달아나는 남자의 시신이 아니라면, 그 남자는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시신 주변에 모여든 작

은 마당 한구석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가 숨을 자리가 없었다!

베르니에 신부가 그렇게 말하자, 심판관은 이렇게 반박했다. "우리가 그 작은 마당에 있을 때 밤은 정말로 캄캄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 시체를 현관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베르니에 신부는 다시 말했다. "만약 '저 다른 사람'이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우리는 적어도 그 위를 밟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 마당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결국, 시체를 빼고 그 작은 마당에는 우리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체가 우리 눈앞을 피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 마당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은 경비원의 방 문이었고,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경비원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베르니에의 추론은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에 찔려 죽은 남자를 총격으로 살해했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고 있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 주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 재판관은 우리가 도망자를 놓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발견한 시체가 '우리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경비원의 시체는 별개의 사건이었다.

그는 이를 즉각 증명하려 했다. 아마도 그 '새로운 사건'은 최근 몇 날 동안 그가 경비원의 품행, 사귐, 그리고 '돈죤' 여관 주인 부인과 벌인 최근의 연애사에 대해 품어왔던 생각들과 부합했을 것이다. 또한 마티외 신부가 경비원을 향해 내뱉은 죽음의 위협에 대한 보고들도 그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오후 한 시가 되자, 마티외 신부는 류마티스 통증으로 신음하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었다. 그는 호위 병력에게 이끌려 코르베유로 압송되었다.

그의 집에서 혐의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밤 운송업자들에게 했다가 그들이 다시 전한 말들이, 그의 짚단 침대에서 '초록빛 남자'를 죽인 칼을 찾아냈을 때보다 그를 더 깊이 몰아세웠다.

우리는 그토록 끔찍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에 경악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모두의 놀라움을 극에 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재판관을 만난 직후 성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철도 직원 한 명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아르랑스랑 함께 현관홀에 서 있었다. 마티외 신부의 유무죄를 두고 수군거리는 중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르랑스와 나만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룰타비유는 먼 곳으로 날아간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색이었다.

재판관과 서기는 작은 녹색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글랑디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로베르 다르자크가 우리를 안내했던 바로 그 방이다. 재판관이 부르자 자크 신부도 막 그 방으로 들어갔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위층, 스탕제르송 양의 방에 있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 자신과 의사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때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철도 직원 한 명을 데리고 현관홀로 들어왔다. 룰타비유와 나는 그 직원의 금발 수염을 보고 즉시 알아봤다.

"어라! 에피네쉬르오르그 역 직원 아니냐?"

내가 외치자, 라르상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에피네쉬르오르그 역 직원 맞습니다."

그리곤 라르상은 헌병을 시켜 재판관에게 자신을 소개하게 했다. 잠시 후, 자크 신부가 방에서 나와 라르상과 그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아니 십 분쯤 지났을까. 룰타비유는 참지 못하고 초조해했다. 마침내 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재판관의 부름을 받은 헌병이 나섰다가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곤 거실 문을 열은 채 닫지 않은 채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판사 각하,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뭐? 내려오지 않는다고!" 마르케 각하가 외쳤다.

"네! 그는 스탕제르송 양이 현재 그런 상태라, 그녀를 떠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좋소. 그가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다면, 우리가 그에게로 가겠소."

마르케 각하와 헌병이 계단을 올랐다. 조사 판사는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철도 직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룰타비유와 나는 뒤를 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복도에 도착해 스탕제르송 양의 대기실 문 앞에 섰다. 마르케 각하가 문을 두드렸다. 하녀 한 명이 나타났다. 실비였다. 희미한 금발이 어지럽게 흐트러진 채, 절망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작은 하녀였다.

"스탕제르송 씨가 안에 계십니까?" 조사 판사가 물었다.

"네, 각하."

"나와 대화하고 싶다고 전해 주시오."

실비는 스탕제르송 씨를 데려오러 갔다.

과학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울고 있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다.

"또 무엇을 원하시오?"

스탕제르송이 판사에게 물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에, 각하, 잠시라도 조용히 내버려 두실 수는 없겠습니까?"

"각하," 판사가 말했다. "나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 즉시 면담해야 합니다. 다르자크 씨가 스탕제르송 양의 방을 나가도록 설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법의 모든 장비를 동원해 그 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처형하러 온 자들을 바라보는 희생자처럼, 판사와 헌병,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인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즉시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쇠약해 보였다. 하지만 불쌍한 그가 프레데리크 라르상 뒤에 서 있는 철도 직원, 즉 금발 수염을 가진 젊은 사내를 보고 나서 그의 표정은 더욱 무너졌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트러졌고, 비록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억제할 수 없는 깊은 신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그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움직임을 직감했다. 우리는 연민에 찬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순간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파멸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오직 프레데리크 라르상만이 환히 빛나는 표정이었고, 마침내 사냥감을 붙잡은 사냥개처럼 기쁨을 드러냈다.

마르케 판사가 금발 수염을 가진 젊은 사내를 다르자크 씨에게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단단하게 가꾸려 애썼으나 실패했다. "그 사람은 오를레앙 철도 에피네쉬르오르주 역의 직원입니다."

"그 젊은이가 주장하길," 드 마르케 판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는 당신을 에피네 역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열 시 반이었죠." 다르자크가 마무리했다. "맞습니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다르자크 씨," 심판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절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다르자크 씨, 그날 밤 스탕제르송 씨가 살해된 곳, 에피네쉬르오르주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다르자크 씨는 침묵했다.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지만, 눈을 감았다.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 함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시선에서 비밀의 단서가 읽힐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까.

"다르자크 씨, 마르케 씨가 재차 물었다. "당신이 그날 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르자크 씨가 눈을 떴다. 그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장악한 듯했다.

"아니요,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만약 당신이 여전히 기이한 거부를 고수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제 통제 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다르자크 씨!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판사가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나는 룰타비유가 다르자크 씨 쪽으로 급작스럽게 몸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다르자크 씨가 손짓으로 그의 입을 막아섰다.

게다가 그 순간, 이미 헌병이 죄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때 절망적인 비명이 울려 퍼졌다.

"로베르! … 로베르! …"

우리는 스탕제르송 양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 고통스러운 어조에 우리 모두는 몸서리를 쳤다. 라르상조차 이번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르자크 씨는 그 부름에 답하듯, 이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판사, 헌병, 그리고 라르상이 그의 뒤로 모여들었다. 룰타비유와 나는 문턱에 그대로 남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었다. 얼굴이 죽음처럼 창백해진 스탕제르 송 양이, 두 명의 의사와 그녀의 아버지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침상 위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팔을 뻗어, 헌병과 라르상이 제압한 로베르 다르자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떠 있었다. 그녀는 보고 있었다. 이해하고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한 마디를 중얼거리는 듯했다. 그 말은 가늘고 핏기 없는 입술 위에서 사라져 갔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뒤로 쓰러져 기절했다.

우리는 다르자크를 신속하게 방에서 밖으로 데려냈다. 라르상이 차를 가져오는 동안, 우리는 현관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우리 모두의 감정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 드 마르케 씨는 비록 이런 장면에 익숙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룰타비유는 모두가 감동에 젖은 이 순간을 틈타 다르자크 씨에게 물었다.

"당신은 변명하지 않겠소?"

"아니오!" 죄수가 대답했다.

"제가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불쌍한 미소를 지으며 불행한 남자가 말했다. "스탕제르송 씨와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당신이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룰타비유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 왜냐하면 저는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 무슨 소리요!” 다르자크가 거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안심하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당신을 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뿐입니다.”

“아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여. …만약 내 은혜를 받고 싶다면 말입니다.”

룰타비유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내가 할 말을 잘 들으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시오! 당신은 살인자의 이름만 압니다. 스탕제르송 양은 살인자의 절반만 알고 있죠. 하지

만 나는 그 두 절반을 모두 압니다. 나는 살인자를 온전히 압니다, 나요!"

로베르 다르자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룰타비유가 방금 한 말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때 라르상이 몰고 온 마차가 도착했다.

다르자크와 헌병이 차에 올랐다. 라르상은 운전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죄인을 코르베유로 데려갔다.

그날 저녁, 룰타비유와 나는 글랑디에를 떠났다. 우리는 매우 기뻤다. 그곳에는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룰타비유는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나에게 말했다.

"나도 글랑디에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글랑디에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거든."

우리는 밤 8시쯤 파리에 도착했다.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피곤함에 지친 채 헤어졌다. 내일 아침 내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며.

정해진 시각이 되자 룰타비유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영국산 모직물로 만든 체크무늬 정장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얼스터 외투를 걸

치며,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곧 여행을 떠난다고 나에게 알렸다.

"얼마나 오래 떠나 계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알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스탕제르송 양이 어제 실신하기 직전, 로베르 다르자크 선생님을 바라보며 내뱉은 단어가 무엇인지요?"

"아니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룰타비유가 반박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말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다르자크 선생님은 말씀하실 겁니까?"

"절대로요!"

나는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그는 내 손을 단단히 쥐며 무사히 잘 지내기를 빌었다. 나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었다.

"당신의 부재 중에 또 다른 테러가 자행될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감옥에 갇힌 이후로는요."

이상한 말이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오직 다르자크 씨의 재판이 열리는 법원, 즉 중형법원에서였다. 그가 증인석에 서서 '해석 불가능한 것을 설명한다'고 선언할 때였다.

이듬해, 즉 내가 방금 보고한 비극적 사건들로부터 두 달 반이 지난 1월 15일, 『레포크』지는 1면 1열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다.

세느에와오즈 주 배심원이 오늘 소환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법 연대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토록 불분명하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많은 재판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망설임 없이 모든 지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남자를 배심단 심문대에 세웠습니다. 그는 젊은 과학자이자 프랑스 과학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오직 성실과 정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파리가 로베르 다르자크의 체포 소식을 듣자, 전 방면에서 일제히 항의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르본 전체가, 예심판사의 전례 없는 처사에 치욕을 당한 채로,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약혼자에 대한 무죄를 확언했습니다.

스탕제르송 교수 자신도 법정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녀는 세느에와오즈 주의 열두 배심원에게 자신의 남편이 되려던 남자를, 그리고 기소

가 교수대에 보내려던 남자를 요구하러 올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마틸드 스탕제르송이 곧 정신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글랑디에의 끔찍한 신비 속에 잠시 가라앉았던 이성이요.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형집행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정신을 잃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바로 우리가 상대할 배심원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두 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끔찍한 사법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을요.

물론, 끔찍한 우연의 일치와 피고인을 지목하는 흔적들, 피고인의 설명할 수 없는 침묵,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시간표, 그리고 그 어떤 알리바이도 없다는 사실은 검찰의 신념을 굳혔습니다. 검찰은 '다른 곳에서 진실을 찾지 못했음'을 이유로, 결국 그곳에서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 가해 있는 혐의들은 겉보기에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프레데리크 라르상 경감처럼 예리하고, 지능 높으며, 보통 성공적인 경찰관조차도 그 혐의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졌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증거들은 조사 단계에서 다르자크 씨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법정에서 그를 변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심원단 앞에, 글랑디에의 모든 수수께끼를 환하게 밝힐 만큼 강력한 빛을 가져다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이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간 침묵을 지켰던 것은,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이익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우리가 『오베르캉프 거리 왼쪽 발』, 유명한 『크레디외니베르절 도난 사건』, 그리고 『파리 주조국 금괴 사건』에 대해 보도한 익명의 충격적인 수사 기사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기사들은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놀라운 재치가 진상을 완전히 밝히기 전부터, 이미 진실을 예견하게 해 주었다.

이 일련의 조사는 우리 신문사에서 가장 어린 기자, 열여덟 살의 조제프 룰타비유가 주도했다. 그는 내일 당장 이름을 날릴 인물이다.

글랑디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우리 젊은 기자는 현장으로 달려가 모든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리고 언론인 모두를 쫓아낸 그 성에 들어갔다. 그는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함께 진실을 추구했다. 그는 소름 끼치는 눈으로, 유명 경찰관 전체의 재능이 빠져들고 있던 오해의 심연을 목격했다. 그가 그 거물을 잘못된 추리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위대한 프레드'는 이 어린 기자에게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로베르 다르자크 씨를 어디로 이끌었는지는, 이제 모두 안다.

"그런데 프랑스가 알아야 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체포된 바로 그날 밤, 젊은 조제프 룰타비유가 우리 사장의 사무실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오래 떠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한 달일 수도, 두 달일 수도, 세 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편지가 있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중죄재판소에 서는 날,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증인 심문 후에 그 편지를 열어보십시오. 이를 위해 로베르 다르자크의 변호사와 미리 연락해 두십시오. 로베르 다르자크는 무죄입니다.

이 편지에는 살인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증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제가 직접 찾아낼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유죄를 반박할 수 없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여드레 전, 한 낯선이가 찾아와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제프 룰타비유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이 편지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1월 15일. 드디어 중범죄재판소의 심리 날이 밝았습니다. 조제프 룰타비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언론도 또한 의무의 희생자가 되는 영웅들을 세어 봅니다. 모든 의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업적 의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그 의무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원수를 갚아 주겠습니다. 우리 사장은 오늘 오후 베르사유 중범죄재판소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쥐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살인자의 이름을 담은 편지'라고 적힌 편지 말입니다."

기사 머리에는 룰타비유의 초상화가 실렸다.

그날 베르사유로 '노란 방의 비밀' 재판 관중으로 몰려든 파리 시민들은, 생라자르 역에서 벌어진 그 믿을 수 없는 혼란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이다. 기차 안에는 자리가 더 이상 없었고, 급히 추가 열차를 편성해야 했다.

『레포크』지의 기사가 모든 사람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고, 논쟁에 대한 열정은 격렬함의 한계까지 치달았다. 조제프 룰타비유를 지지하는 측과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열렬히 옹호하는 측 사이에서는 주먹다짐이 오갔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의 열정은 어쩌면 무고한 사람이 유죄로 판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노란 방의 비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누구든 자기만의 해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옳다고 믿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이들은, 이 인기 있는 경찰관의 통찰력을 의심할 수 없다고 단호히 믿었다. 반면 라르상의 설명과는 다른 해답을 제시한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해답이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조제프 룰타비유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포크』지 한 장을 손에 쥔 '라르상파'와 '룰타비유파'는 베르사유 법정의 계단 위까지, 심지어 법정 안까지 다툼과 말다툼을 벌였다. 특별한 치안 유지 부대가 동원될 정도였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무수한 군중은 밤늦게까지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 군대와 경찰이 간신히 통제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소식을 갈망하며 가장 기이한 루머조차도 받아들였다.

한때 법정 심리 도중 스탕제르송 씨 자신이 딸의 살인범임을 자백하며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것은 미친 소리였다. 사람들의 신경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모두 룰타비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안다고 주장하며 그를 알아보려 했다. 한 젊은이가 출입증을 들고 법정 앞의 넓은 마당을 가로지르자, 군중들은 들끓었다.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룰타비유다! 룰타비유가 왔다!" 『레포

크』지에 실린 초상화와 어렴풋이 닮은 이들이 나타나자 군중은 그들을 향해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레포크』지 사장의 도착은 또 다른 시위의 신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치고, 어떤 이들은 야유했다. 군중 속에는 여성들도 많았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판장은 드 로쿠 씨이었다. 그는 법조계 특유의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증인 소명이 있었다. 당연히 나도 증인석에 섰다. 그 외에도 글랑디에의 미스터리를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간에 엿본 이들은 모두 증인으로 불려왔다.

스탕제르송 씨는 열 년을 더 먹은 듯 노쇠해져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라르상, 늘 얼굴이 붉게 상기된 아서 W. 랜스 씨, 자크 신부, 그리고 두 명의 헌병 사이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온 마티외 신부, 눈물바다가 된 마티외 부인, 베르니에 부부, 두 명의 간호부, 집사, 성의 모든 하인들, 우편국 40번 직원, 에피네 철도 직원, 스탕제르송 부부의 몇몇 친구들, 그리고 로베르 다르자크 변호를 위한 무죄 증인들까지.

나는 운이 좋게도 초기 증인 중 하나로 심문을 받았다. 덕분에 나는 재판의 거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법정의 계단 위까지 변호사들이 앉아 있을 정도였다. 붉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 뒤로는 인근의 모든 검찰청 대표들이 자리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헌병들 사이로 피고인석에 나타났다. 그는 너무도 평온했고, 키가 크며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동정보다는 감탄의 숨소리를 터뜨렸다.

다르자크는 곧장 자신의 변호사인 앙리-로베르 변호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앙리-로베르 변호사는 당시 초보였던 첫 비서 안드레 헤스의 도움을 받아 이미 사건 파일을 넘기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스탕제르송 씨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러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고, 증인들은 그 어떤 파격적인 장면 없이 모두 법정에서 물러났다.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그들은 레포크 사장과 앙리 로베르가 나누었던 짧은 대화에 깊은 관심을 보인 듯했다. 사장은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 관중석 앞줄에 앉았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증인들을 따라 특별 대기실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기소장 낭독은 평소와 다름없이, 별 탈 없이 끝났다.

다르자크 씨의 장장 이어진 심문 과정은 여기서 자세히 생략한다. 그는 대답할 때는 가장 자연스럽고, 침묵할 때는 가장 신비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말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자연스러웠고, 그가 침묵한 모든 것은 그에게, 그리고 그의 무고함을 '느끼는' 사람들 눈에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들에 관한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를 역공했다. 그 침묵이 필연적으로 그를 짓눌러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재판장 및 검찰 측의 간곡한 설득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곧 죽음과 다름없다고 그들은 그를 협박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죄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재주로 명성을 떨친 앙리 로베르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클라이언트의 침묵 그 자체를 통해 그의 품격을 한 층 더 높여 보인 것이다. 그는 영혼이 용감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를 암시하며, 그런 말을 꺼냈다.

이 명망 높은 변호사의 주장은 이미 다르자크 씨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해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휴회 선언이 내려졌다. 이어 증인 심문이 시작되었지만, 룰타비유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문마다 열릴 때마다 모든 시선이 그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무표정하게 앉아 있던 『레포크』 지의 사장으로 시선이 돌아왔다.

드디어 그가 주머니를 뒤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 순간, 거대한 웅성거림이 법정 전체를 뒤덮었다.

내가 여기서 이 재판의 모든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 사건의 전 과정을 충분히 되새겼으니, 독자들에게 신비로움에 싸인 새로운 사건들의 행렬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잊을 수 없는 하루의, 진정으로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빨리 다다르고 싶다.

그때, 앙리-로베르 변호사가 증인석에 선 마티외 신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마티외 신부는 두 형사 사이에서 "녹색 옷 입은 남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소환되어 그와 대면했다. 그녀는 통곡하며 자신이 그 경관과 "사귄 사이"였으며, 남편이 그 사실을 눈치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자신의 친구" 살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앙리-로베르 변호사는 즉시 이 점에 대해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증언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변호사가 선언했다.

"방금 휴정 중에 제가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라르상이 제게 말하길, 가드의 죽음은 마티외 신부의 간섭 때문이 아니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가설을 듣는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법정으로 불려 들어왔다. 그는 매우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일에 마티외 영감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가 말했다.

"그건 드 마르케 씨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살인적 언동은 예심판사님 심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저는 생각합니다. 스탕제르송 피살 사건과 경비원 살해 사건은 같은 사안이라고요."

"스탕제르송을 죽인 살인자가 중정으로 달아날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자를 맞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죽였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성채 오른쪽 날개 뒤로 사라지려다 살짝 넘어진 것뿐이었죠."

"그곳에서 살인자는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도주를 막으려 했겠죠. 살인자는 아직 스탕제르송을 찌르던 칼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

다. 그 칼로 경비원의 심장을 찔렀고,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설명은 이미 글랑디에의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동의했던 만큼,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다. 일동에게서 동의의 웅성거림이 새어 나왔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분명히 이 마당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다가, 시신을 나르는 성 안 사람들의 발길이 떨어진 뒤, 조용히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때, '서 있는 관중석' 깊은 곳에서 한 청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경악 속에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심장을 찔린 사건에 대해서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마당 끝에서 어떻게 도망쳤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법정의 집행관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침묵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성이 난 듯 목소리를 높인 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즉시 그 침입자를 퇴거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입니다, 재판장님. 바로 저, 조제프 룰타비유입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었다. 기절하는 여성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의의 위엄'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미친 듯이 사람들이 밀쳐대며 뒤섞였다. 모두 조제프 룰타비유를 보고 싶었다.

재판장은 법정 퇴장을 명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 사이 룰타비유는 자신과 착석한 방청객을 가르던 난간을 뛰어넘었다. 팔꿈치로 사람들을 밀어내며 길을 뚫었다. 그는 자신의 신문사 국장 곁에 다가가, 국장이 열렬히 포옹하는 사이 그에게서 편지를 빼앗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법정 안쪽의 특별석으로 들어가 증인석까지 도달했다.

밀치고 밀리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기쁨에 찬 그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둥근 얼굴은 크고 둥근 두 눈에서 뿜어 나오는 지혜로운 광채로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떠날 때 입었던 그 영국식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맙소사, 그 옷은 어떤 꼴이었던가!

그는 팔에 울스터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여행용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대서양 항로가 지연됐습니다. 방금 아메리카에서 도착한 조제프 룰타비유입니다!"

청중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소년의 등장은 모두를 기쁘게 했다. 그들을 짓누르던 막중한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듯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룰타비유가 진실을 가져왔다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분노에 차 있었다.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아, 자네가 조제프 룰타비유인가?" "좋아, 젊은이. 내가 너에게 정의로운 법정을 조롱하는 대가를 가르쳐 주마. 법정이 너의 사건을 심의하기 전까지, 나는 재량권을 발휘해 너를 법정의 감시 하에 두겠다."

"하지만, 재판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만약 제 입장이 조금 소동을 일으켰다면, 법정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판장님, 저보다 사법을 더 존중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도 함께 웃었다.

"이 사람을 데려가라." 재판장이 명령했다.

하지만 앙리-로베르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먼저 그 젊은이를 변명해 주었고, 그가 가장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에게, 그 젊은이가 신비로운 일주일 내내 글랑디에에서 묵었던 증인이라는 점, 특히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고 살인자의 이름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증인이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살인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소?" 재판장이 물었다.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의장님. 제가 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법정 안에서는 박수칠 뻔했지만, 법집행자들의 날카로운 '쉿!' 소리가 다시 고요를 되찾게 했다.

"조제프 룰타비유는 정식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없소. 하지만 재판장님께서 재량권을 발휘하시어 그를 심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소."

"좋소. 우리가 심문하겠소. 하지만 먼저 이를 마무리합시다." 재판장이 말했다.

검찰총장이 일어섰다.

"아마도 이 젊은이가 우리가 원하는 살인자의 이름을 즉시 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검찰 측 대표가 지적했다.

재판장은 빈정대듯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검찰청의 고위 간부가 조제프 룰타비유의 증언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둔다면, 증인이 '자신의' 살인자 이름을 당장 우리에게 말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방 안은 죽을 듯이 고요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도 들릴 듯 말 듯했다.

룰타비유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로베르 다르자크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다르자크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초조하고 불안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 다시 말하오. 당신을 듣고 있소, 조제프 룰타비유 씨. 우리는 살인자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소."

룰타비유는 태연하게 주머니 속을 뒤적였다. 그는 커다란 회중시계 하나를 꺼내 시간을 확인한 뒤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살인자의 이름을 여섯 시 삼십 분에나 돼서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 네 시간이나 더 남아 있거든요."

법정은 놀람과 실망이 섞인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몇몇 변호사들은 소리를 높여 말했다.

"우리를 장난으로 여기는군!"

재판장은 기쁜 듯이 보였다. 반면 앙리 로베르와 앙드레 헤스는 답답한 기색이었다.

재판장이 말했다.

"이런 농담도 이제 충분하다. 당신은 증인 대기실로 물러가시오. 우리는 당신을 필요할 때까지 붙잡아두겠소."

룰타비유는 항의했다.

"재판장님, 제가 확신합니다!"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인자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왜 그时刻이 오후 여섯 시 반이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정직자의 맹세요, 룰타비유의 신조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경비원 살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랑디에에서 제가 '수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프레데리크 라르상이라면, 제가 이 사건을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라르상과 의견이 다릅니다. 로베르 다르자크를 체포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라르상은 제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발견이 그의 발견을 종종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말했다.

"재판장님, 조제프 룰타비유 씨의 발언을 듣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특히 그가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찰의 말에 찬성의 속삭임이 일었다. 그는 선량한 선수처럼 이 대결을 받아들였다. 같은 비극적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 왔고, 결국 서로 다른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 두 지성 사이의 논쟁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었다.

의장이 침묵하자,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계속 말했다.

"따라서 스탕제르송을 살해한 범인이 경비원에게 심장을 찔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마당 끝'으로 도망친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니, 룰타비유 씨가 이 도주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당연하지, 내 친구, 정말 흥미진진할 텐데!"

청중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재판장은 즉각 선언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그는 방청객 퇴거를 명령하는 자신의 위협을 주저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정말, 이런 사건에서 웃을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재판장은 그렇게 말을 맺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손수건을 입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자, 젊은이, 방금 프레데리크 라르상 씨가 한 말을 들었지? 너는 그 살인자가 '마당 끝'에서 어떻게 도망쳤다고 생각해?"

룰타비유는 마티유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마티유 부인이 이 경비원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기꺼이 밝히셨으니…"

"저 여우 같은 녀석!" 마티외 영감이 외쳤다.

"마티외 영감을 밖으로 내보내시오." 의장이 명령했다.

마티외 영감은 끌려나갔다.

룰타비유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가 자백했으니, 이제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밤마다 탑 1층에 있는, 전례실이었던 방에서 경비원과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마티외 영감이 류머티즘으로 누워 있을 때, 그 대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모르핀 주사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았을 때, 마티외 신부에게 평정과 안식을 주었고, 그의 아내가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티외 부인은 밤마다 성채로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감추고, 때때로 자크 신부의 밤을 괴롭히던 그 어둠의 유령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큰 검은 숄로 몸을 감쌌다.

그녀의 친구인 경비병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마티외 부인은 생트제네비에브데부아에 사는 노부인 아제누아 부인의 고양이가

내는 그 음산한 울음소리를 흉내 냈다. 그녀가 그 불길한 소리를 내자마자, 경비병은 그의 탑에서 내려와 작은 쪽문을 열어주었다.

최근에 탑의 수리가 시작되었지만,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탑 안의 옛 경비병 방에서 만났다. 새로 지은 방은 불쌍한 이 하인에게 잠시 내어준 것이었고, 성채 오른쪽 날 끝자락에 있었다. 하지만 그 방은 하인장과 요리사의 부엌과 너무 얇은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옛 방을 선택했던 것이다.

"마티외 부인이 멀쩡히 살아 있던 감시병과 막 헤어졌을 때 '작은 마당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마티외 씨와 감시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함께 성탑을 나왔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성의 중앙 마당에 남은 발자국을 조사한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지기 베르니에를 총을 들고 성탑 뒤에서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니에는 성의 중앙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총소리에 이끌려 도착했고, 그제야 총을 쐈습니다.

이제 밤과 침묵이 감도는 성의 중앙 마당에서 감시병과 마티외 씨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별 인사를 나눕니다. 마티외 부인은 안뜰의 열린 철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감시병은 성의 오른쪽 날개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가 문턱에 다다르려던 순간, 권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몸을 돌렸다. 불안한 심정으로 다시 발걸음을 되돌렸다. 성의 오른쪽 날개 끝자락에 다다르려던 그때, 그림자가 그에게 덤벼들어 그를 내리쳤다. 그는 곧 숨을 거두었다.

곧이어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수습했다. 그들은 자기가 살인자를 잡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것은 살인자가 아니라, 살해당한 시체뿐이었다.

그 사이, 마티유 부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폭음과 안뜰을 뒤덮은 혼란에 놀란 그녀는, 어둠과 안뜰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가능한 한 작아지려 애썼다. 안뜰은 넓었다. 그녀는 철문에 가까이 서 있었기에, unnoticed(발각되지 않은) 채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시체가 옮겨지는 것을 목격했다.

깊은 불안에 가슴이 조여오고, 비극적인 직감이 그녀를 재촉했다. 그녀는 성의 현관까지 걸어갔다. 자크 신부가 켜둔 작은 등불이 비추는 계단을 한 번 훑어보았다. 그곳은 그녀의 친구의 시체가 놓여 있던 곳이었다. 그녀는 '보았다'. 그리고는 도망쳤다.

그녀가 자크 신부의 주의를 끌었을까? 어쨌든 신부는 이미 신부에게 며칠 밤을 뜬눈으로 새우게 했던 그 검은 유령을 쫓아갔다.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짐승'이라고 불리는 비명 소리에 깨어났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검은 유령의 형체를 목격했다. 그는 급히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병의 시체를 들고 왔을 때, 그가 이미 차려입은 채 현관으로 들어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영예의 안마당에서 유령의 얼굴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다. 그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자크 신부는 마티외 씨의 오랜 친구다. 마티외 부인은 그에게 자신의 밤중 교제를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을 것이다.

마티외 부인의 상태는 처참했을 것이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친구가 죽은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자크 신부는 불쌍히 여겨 마티외 씨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참나무 숲을 지나 공원을 벗어났고, 연못 가장자리 너머까지 갔다. 에피네로 가는 길에 도착했다. 거기는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몇 미터만 더 가면 되는 곳이었다.

자크 신부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경비병의 정부가 성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법적 중요성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를 최대한 숨기려 했다. 이미 많은 사건이 있었던 그 밤이었다.

룰타비유는 덧붙였다. "저는 마티외 씨와 자크 신부에게 이 진술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어난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라르상 씨의 기억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두 가지 흔적이 함께 여행하는 이중의 흔적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크 신부의 발자국과 마티외 부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때 룰타비유는 증언대에 서 있던 마티외 부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부인의 발자국과 살인자가 남긴 '우아한 발'의 자국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마티유 부인이 놀라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야생의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젊은 기자를 노려보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가?

"부인의 발은 우아합니다. 길고, 여성치고는 다소 큰 편이죠. 하지만 그 부츠의 뾰족한 끝부분만 빼면, 바로 살인자의 발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룰타비유가 손짓으로 그 소동을 멈추게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치 법정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이것이 무슨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형사가 이런 외형적인 흔적들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 없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다면, 그는 곧바로 잘못된 판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발자국도 살인자의 것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르자크 씨가 살인자는 아닙니다."

청중석에서 다시금 소동이 일었다.

마티외 부인에게 재판장이 물었다.

"마티유 부인,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보였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룰타비유 씨가 우리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는 줄 알겠어요."

"살인자가 오른쪽 날개 끝까지 도망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부인?"

"네. 그 후 한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비병의 시신이 옮겨지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중정에서 혼자 계셨으니, 그때 그를 보셨을 법도 하지요……. 그는 당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테고,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마티유가 비명처럼 탄식했다. "그때 밤은 이미 아주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룰타비유 씨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군요." 재판장이 말했다.

"물론이지요!" 그 젊은이가 즉각 대답했다. 그의 태도가 그토록 확고해서, 재판장조차도 억누르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룰타비유가 다시 입을 열었다.

"범인이 그 안뜰에 들어갔다면, 정상적인 경로로 도망친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를 보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의 몸은 우리 손에 닿았을 겁니다. 그곳은 별것 아닌 작은 안뜰이었어요. 해자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공간이죠. 범인이 우리를 밟거나, 우리가 그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 네모난 공간은 '노란 방'만큼이나 해자와 철조망, 그리고 '우리들 자신'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남자가 그 공간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서 그를 찾지 못했단 말입니까? … 저는 지난 반 시간 내내 오직 그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룰타비유는 다시 한 번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회중시계를 꺼냈다. 그는 차분한 눈길로 그것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재판장님, 그 질문을 세 시간 삼십 분 동안 계속 받으셔도 저는 여섯 시 삼십 분이 돼야 이 점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군거림이 적대적이지도, 실망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룰타비유를 믿기 시작했다. '그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재판장에게 시간을 정한다는 그 당당함이, 마치 동료에게 약속 시간을 정하듯 여겨져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재판장은 잠시 화를 낼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장난감 삼아 놀아주기로 마음먹었다. 룰타비유는 애정이 가는 소년이었다. 재판장은 이미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마티외 씨의 역할을 그 사건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했는가. '그날 밤' 마티외 씨가 취한 각 행동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그 덕분에 로쿠아 씨도 그를 거의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좋소, 룰타비유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지만 오후 여섯 시 삼십 분까지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룰타비유는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큰 머리를 흔들며 증인용 작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나는 나를 에워싼 군중 사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룰타비유와 거의 동시에 법정에서 나왔다.

그 훌륭한 친구는 열렬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말이 많았다. 그는 환희에 찬 표정으로 내 손을 힘차게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여, 제가 당신에게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러 갔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분명 대통령에게 그랬듯, 여섯 시 삼십 분에야 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테니까요."

"아니요, 친애하는 생클레르, 아니요! 당신 같은 친구이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인자의 두 번째 반쪽의 이름을 찾아갔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두 번째 반쪽의 이름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랑디에를 마지막으로 떠났을 때, 저는 이미 살인자의 두 반쪽 중 한쪽을 알고 있었고, 그 한쪽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쪽의 이름을 찾기 위해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증인 대기실로 들어섰다. 증인들은 모두 룰타비유에게 다가가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기자는 매우 친절했지만, 아서 란스에게는 뚜렷한 냉대만 보였다.

그때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방에 들어섰다. 룰타비유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고통스러운 비결이 담긴 듯한 악수를 건넸다. 그 악수는 손마디가 부러질 정도로 세차게 쥐는 것이었다. 룰타비유가 이렇게까지 우정을 보이려면, 라르상을 완전히 속였다는 확신이 서 있어야 했다.

라르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룰타비유에게 미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룰타비유는 여전히 친절하게 그의 팔을 잡더니, 여행 중 일어난 열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떴다. 나는 예의 바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법정 안으로 돌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는 증인 심문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나는 곧장 깨달았다. 청중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오직 6시 30분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6시 30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조제프 룰타비유가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군중이 그가 증언대로 나아가는 것을 눈으로 좇으며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죽은 자처럼 창백'했다.

재판장이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에게 선서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monsieur! 당신은 정식 소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입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는 위협하는 투로 덧붙였다.

"이 말씀의 중요성 말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는, 아니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요…!"

룰타비유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네, monsieur!"

"자, 보자고." 의장이 말했다. "우리는 방금 살인자가 숨어 있던 그 작은 뒷마당에 대해 이야기했고, 당신은 여섯 시 삼십 분에 살인자가 어떻게 그 마당을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살인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지. 지금 여섯 시 삼십 오분이야, 룰타비유 씨.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각하!" 내 친구가 말을 시작했다.

그 순간의 침묵은 너무도 장엄해서, 나는 그런 침묵을 본 적이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그 작은 뒷마당이 폐쇄되어 있었으며, 살인자가 그 사각형 공간에서 빠져나갈 때 그곳을 뒤지고 있던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고는 불가능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뒷마당 사각형 안에 있을 때, 살인자도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를 보지 못했다고요! … 그것이 기소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두 그를 보았습니다! 재판장님." 룰타비유가 외쳤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체포하지도 않았다고요! …"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나에게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이성'뿐이었죠. 네, 오직 나의 이성이 그 살인자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형사법정에 '모두를 만족시킬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각하! 살인자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그분은 그 작은 마당에 있던 사람들 이름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그는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

청중석에서는 조바심이 커져만 갔다.

"이름을 대라! 이름을!"

사람들은 속삭였다.

룰타비유는 따귀를 한 대 갈기고 싶을 만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이 진술, 제 진술을 조금 길게 끌고 갑니다. 판사님, 저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름을 대라! 이름을!" 군중이 되뇌었다.

"조용히!" 법집행관이 비명처럼 외쳤다.

판사가 말했다.

"당장 이름을 대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 작은 마당에 있던 이들은 이렇습니다. 죽은 경비원. 그분이 범인입니까?"

"아닙니다, 판사님."

"자크 신부요?"

"아닙니다, 판사님."

"관리인 베르니에?"

"아닙니다, 판사님."

"생클레르 씨요?"

"아닙니다, 판사님."

"아서 윌리엄 란스 씨, 맞습니까? 이제 남은 건 란스 씨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란스 씨를 지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 작은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래층에도 없었지만, 위층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는 창문에 몸을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프레데리크 라르상!" 의장이 외쳤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룰타비유가 맑고도 힘찬 목소리로 되받았다.

그리고 이미 항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군중을 돌아보며, 그는 내가 그에게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힘으로 이렇게 외쳐 뱉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범인입니다!"

그 소란은 당혹감, 절망, 분노, 불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작은 남자가 그런 비난을 감히 할 수 있었던 용기에 대한 열광이 섞인 것이었다. 그 소음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의장은 그 소음을 진정시키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 소음이 스스로 잦아들자, 즉각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단호하게 '쉿!' 하고 조용히 시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로베르 다르자크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말도 안 돼! 그는 미쳤어!"

의장은 재차 강조했다.

"당신은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비난하다니! 그런 비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시오… 로베르 다르자크 본인조차도 당신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고요, 선생님! 증거를 원하신다니요! 아, 제가 하나 드리죠, 증거를 하나요……"

룰타비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불러라!"

재판장이 명령했다.

"집행관,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부르시오!"

집행관은 작은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더니 사라졌다. 작은 문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문에 고정되었다. 잠시 후 집행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법정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 말했다.

"재판장님,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없습니다. 그는 네 시쯤 떠났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룰타비유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내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하시오. 어떤 증거란 말씀인가?" 재판장이 물었다.

"저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르상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십니까? 저는 그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방 안 깊은 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만약 당신이 사법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왜 라르상이 당신 옆에 서 있던 그 순간, 그를 정면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는 당신에게 대답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사 각하? '그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르상이 살인자라고 나는 고발했다. 그런데 그는 도망쳤다! 이것이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라르상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도주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주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그를 비난할 것이라고 그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직접 그에게 알려주었으니까요."

"당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라르상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다니요!"

"네, 재판장님. 제가 한 일입니다." 룰타비유가 자부심 가득한 어조로 대답했다.

"저는 '사법부'도, '경찰'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기자일 뿐이죠. 제 일은 사람을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진실을 위해 봉사할 뿐입니다. 그것은 제 일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를 보호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사형집행인에게 죄수의 목을 가져다주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섯 시 삼십 분 전에는 제가 살인자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오후 네 시 십칠 분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야 했으니까요. 파리에 가면 그는 안전하게 숨을 수 있을 테니까요.

파리에 도착하는 데 한 시간. 그가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한 시간 십오 분. 이렇게 계산하니 오후 여섯 시 삼십 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룰타비유는 로베르 다르자크를 똑바로凝視하며 선언했다.

"여러분은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다시는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너무 영리하니까요. '그는 늘 당신을 피해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헛되이 뒤쫓았던 그자죠.'

룰타비유는 큰 소리로 웃으며 덧붙였다.

"그는 저보다 힘이 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경찰들보다 더 강합니다. 지난 사 년 동안 형사국에 잠입해, 잘 아시다시피 다른 이름으로 명성을 떨친 그 남자. 프레데리크 라르상, 재판장님. 그는 바로 발마이어입니다!"

"발마이어!" 재판장이 외쳤다.

"발마이어!" 로베르 다르자크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발마이어! … 정말로 사실이었군요."

"아, 아! 다르자크 씨, 이제야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시겠군요!"

방 안에는 '발마이어'라는 이름만 울려 퍼졌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 공판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그 소동은 얼마나 컸던가. 군중은 할 일이 많았다. 발메이어! 그 소년은 분명히 '놀랍다'고 평가받았다. 발메이어! 그의 사망 소문이 몇 주 전부터 돌았기 때문이다. 발메이어는 죽음을 피했으며, 평생 경찰을 피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발메이어의 업적을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그는 지난 20년간 사법 기록과 사건 기사에 오르내렸다. 몇몇 독자들이 '노란 방' 사건을 잊었을지라도, 발메이어라는 이름은 그들의 기억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발메이어는 상류 사회의 사기꾼의 전형이었다. 그보다 더 신사적인 신사는 없었으며, 손재주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 오늘날 '아파슈'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도 그보다 더 대담하고 무서운 자는 없었다. 그는 최고의 사교계에 받아들여졌고, 가장 폐쇄적인 클럽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는 가문의 명예와 부자들의 돈을 전무후무한 솜씨로 훔쳤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칼을 쓰거나 양뼈로 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의 힘에 넘치는 일은 없었다.

법정에 한 번 잡혔을 때, 그는 재판 날 아침에 법정으로 가는 감시원들의 눈에 후추를 뿌려 탈출했다. 나중에 그가 도망친 날, 사법부의 가장 정예 요원들이 그를 쫓고 있을 때, 그는 화장도 하지 않고 프랑스 국립극장의 초연에 조용히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프랑스를 떠났고, 오하이오 주 경찰이 어느 날 그 비범한 범죄자를 체포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또다시 탈출했다.

발메이어, 발메이어에 대해 말하려면 한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가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되었다! 그리고 룰타비유의 그 어린 소년이 그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발메이어의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다시 한번 사회를 속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점에서는 나는 룰타비유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의도는 그 산적이 입을 열지 않게 하면서 그를 제거하여 로베르 다르자크와 스탕제르송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충격적인 진술이 드러난 직후였기에, 우리는 아직 그 여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일부는 재촉하듯 외쳤다.

"가정하건대 살인자가 프레데리크 라르상이라 해도, 그가 어떻게 노란 방에서 빠져나왔는지 그건 전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때, 심문이 다시 이어졌다.

즉시 룰타비유가 증인석으로 불려나갔다. 그는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문을 받는 형국이었다.

재판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마당 끝에서는 도망칠 수 없다고요. 물론 동의합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당신들 위쪽 자기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으니, 그는 여전히 그 마당 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문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그 마당 끝을 떠나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는 결국 도망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내가 말했지,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망칠 수 없었다고. 그러니 그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망친 것이야. 내가 앞서 말했듯, 마당의 끝부분은 '거의' 막혀 있을 뿐이지. 반면 '노란 방'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

벽을 타고 오를 수 있었어. 노란 방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지. 그는 테라스로 뛰어내렸고, 우리가 경비원의 시체 곁에 몸을 굽고 있는 사이, 테라스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왔을 거야.

라르상은 방으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됐어. 자신의 창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었지. 이런 일은 힘센 곡예사 발마이어에게는 장난감 같은 일일 뿐이야.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말한 바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룰타비유는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더니, 그 안에서 작은 목재 못을 꺼냈다.

"재판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 못은 오른쪽 '코벨(받침대)'에 아직 남아 있는 구멍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 코벨은 내쌓기로 테라스를 받치고 있지요.

라르상은 모든 것을 예상했고, 방탈출 수단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게임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는 미리 이 못을 그 '코벨'에 박아두었습니다.

성 모퉁이에 있는 표석에 한 발을 올리고, 그 못 위에 다른 발을 올리면 됩니다. 한 손은 경비실 문 처마(코니스)에, 다른 한 손은 테라스에 닿으면 됩니다. 그러면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그가 발이 매우 가볍고, 그날 밤 마약에 취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쉬웠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도록 하려고 마약에 취한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디저트 시간, 그는 잠이 들어버리는 척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도 마약에 취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날, 제가 라르상과 함께 저녁을 먹고 마약에 취했다는 의혹이 제게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당했으니, 의심은 그에게 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죠.

대통령 각하, 저는 정말로 마약에 취했습니다. 라르상 자신이 저를 마약에 취게 했죠. 정말로요!

만약 제가 그처럼 처참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라르상은 그날 밤 스탕제르송 씨의 방에 침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음 소리가 들렸다. 다르자크 씨였다. 그는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자, 이제 아시겠죠?" 룰타비유가 덧붙였다. "내가 그의 곁에서 잤으니, 그날 밤 내가 특히 라르상에게 방해가 됐단 말입니다. 라르상은—또는 적어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죠—'그날 밤 내가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라르상이 나를 의심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방을 나서 스탕제르송 씨 방으로 향하는 순간을 엿볼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내가 잠든 상태이고, 내 친구 생클레르가 내 방에서 나를 깨우느라 바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스탕제르송 씨 방에 침입했습니다.

그로부터 십 분 후, 스탕제르송 씨가 죽음을 부르는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재판장님, 제 이성의 옳은 쪽이 그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자를 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무척이나 힘이 세었고, 마약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 수법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

니다. 네, 맞습니다. 제 이성의 옳은 쪽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에 잡힐 듯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이성의 끝에서 본 그자를, 눈의 끝에서도 다시 보고 싶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당신이 말하는 '이성의 옳은 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재판장님. 이성은 양끝을 가집니다.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것이죠. 그중 단단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옳은 쪽'뿐입니다. 그 옳은 쪽은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밀어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복도' 사건 다음 날, 저는 마치 이성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고,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비참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속임수 같은 흔적들만 더듬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성의 옳은 쪽을 받치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쫓아온 살인자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든 비정상적으로든' 복도를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성의 올바른 부분으로 문제를 한데 모아 원을 그리고, 그 원 주변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글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살인자가 원 밖에 있을 수 없다면, 그는 안쪽에 있다!'"

"그렇다면 그 원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성의 올바른 부분이 가리키는 바는, 원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살인자 외에도 네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자크 아저씨, 스탕제르송 씨, 프레데리크 라르상, 그리고 저

자신! 살인자를 합치면 모두 다섯 명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 안을, 혹은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복도를 샅샅이 뒤져보았을 때, 발견한 인물은 고작 네 명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도망칠 수도, 원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 안에는 '두 명의 인물이 하나인' 인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인물 자신이면서 동시에 '살인자의 역할'도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왜 저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그 '인물의 중복' 현상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 안에 갇힌 네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살인자가 중복되었을까요? 제게 어느 순간 '살인자와 분리되어' 나타난 인물들과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도 안에서 스탕제르송 씨와 살인자, 자크 아저씨와 살인자, 저와 살인자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스탕제르송 씨도, 자크 아저씨도, 저 자신도 될 수 없습니다. 설마 제가 살인자라면, 대통령 각하, 제가 알 리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살인자를 동시에 목격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살인자를 잠시 잃었던 '2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제가 기록해 둔 바와 같이, 스탕제르송 씨, 자크 아저씨, 제가 도착하기 '2초' 전에 두 복도의 교차점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라르상은 회전 복도에 숨어들어, 손끝 하나로 가짜 수염을 벗겨내고 돌아서서, 마치 우리를 쫓아오는 양 우리를 마주쳤던 것입니다."

"발메이어는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붉은 수염을 달고 스탕제르송 씨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갈색 수염 목걸이를 달아 다르자크 씨와 닮은 우체국 직원처럼 변장하기도 했으니, 그것은 그에게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르자크 씨의 파멸을 맹세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성의 올바른 부분이 저에게 이 두 인물을, 혹은 '동시에' 보지 못했던 이 두 인물의 반쪽을 이어주었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과 제가 쫓던 미지의 인물. 저는 이들을 하나로 합쳐, 제가 찾고 있던 그 신비롭고 가공할 존재, 곧 '살인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를 뒤흔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헛갈리게 했던, 감지할 수 있는 흔적들과 외부의 징후들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이성의 올바른 선으로 그어진 원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날 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살인자라는 내 생각에서 나를 멀어지게 했던 주요한 외부 징후들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나는 스탕제르송 씨의 방에서 미지의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방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잠에 푹 빠져 부어오른 얼굴의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발견했다.

둘째, 사다리였다.

"3. 나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회전 갤러리의 끝자락에 배치해 두었다. 그리고 내가 스탕제르송 씨의 방으로 뛰어들어 살인자를 잡으려 한

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다시 스탕제르송 씨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미지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의 외적 징후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스탕제르송 씨의 방에서 미지의 남자를 본 후 사다리를 내려왔을 때, 그 남자는 이미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을 것이다. 그러자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는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방으로 돌아가 두 번 세 번의 동작으로 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내가 그의 문을 두드리자, 그는 고의적으로 졸린 표정을 지어 프레데리크 라르상처럼 보이게 했다."

두 번째 단서인 사다리는 내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살인자가 라르상이라면, 그는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사다리가 필요 없었다. 라르상은 내 옆방에서 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다리는 살인자가 '바깥'에서 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라르상의 계획에는 그 점이 필수적이었다. 그날 밤 다르자크 씨는 성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다리는 라르상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세 번째 외부적 징후는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라르상을 회전 갤러리의 끝자락에 배치해 둔 나는, 그가 내가 성의 왼쪽 날개로 가서 스탕제르송 씨와 자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사이를 타서

스탕제르송 씨의 방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는 적발될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적발될 뻔했다. 그가 분명히 기대했던 대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방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즉각적으로 떠오른 매우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권총을 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나로써는, 자크 아저씨를 오른쪽 갤러리의 끝으로 보냈을 때, 라르상이 여전히 회전 갤러리의 끝자락에 제자리에 서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자크 아저씨 자신도, 내가 그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에, 제자리로 이동하며 두 갤러리가 교차하는 지점을 지날 때 라르상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자크 아저씨는 그때 내 명령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라르상을 다시 한 번 방으로 이끌었던 그 예기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이 그의 행적을 드러내는 분명한 흔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방에서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그 물건을 다시 찾았을까?

나는 바닥에 놓인 촛불과 구부정한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방을 정리하던 베르니에 씨에게 찾게 했다. 그녀는 안경을 하나 찾아냈다.

"이 안경이요, 재판장님!"

룰타비유는 작은 소포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 안경을 꺼냈다.

그 안경을 본 순간, 나는 경악했다.

라르상이 쓰는 안경은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가 평소에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필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움직임이 그에게 그토록 귀중했던 순간이라면, 더더욱 필요 없었을 터였다.

그렇다면 이 안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 추리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면, 이 노안용 안경이 아닐까?'

나는 갑자기 외쳐버렸다. 사실, 나는 라르상이 글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읽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가 노안일 가능성은 충분했다.

만약 라르상이 노안이라면, 경찰청(슈레테)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의 안경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노안인 라르상의 안경.’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사건 이후, 스탕제르송 씨의 방에서 이 안경이 발견되었다. 이는 라르상에게 있어 지독한 함정이 되었다.

이것이 라르상이 방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실 라르상-발마이여는 노안이며, 경찰청에서 ‘아마도’ 식별될 이 안경은 분명히 그의 것이다.

“보십시오, 선생님, 이것이 제 방식입니다. 저는 외형적인 단서들이 제게 진실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 이성의 가장 확실한 부분이 이미 지목해 둔 진실에 위배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라르상에 대한 진실을 완전히 확신하기 위해,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르상이 살인자라는 점은 예외적인 경우였기에,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 저는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큰 벌을 받았습니다.

‘불가사의한 복도’ 사건 이후, 저는 이성의 가장 확실한 부분을 굳건하고, 확고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라르상의 유죄를 증명할 다른 단서들을 훌륭하게도 무시한 채, 오직 제 이성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성이 제 실수를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탕제르송 부인이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룰타비유는 말을 멈췄다. 코를 풀었다. 심정이 몹시 동요한 듯했다.

"라르상이 도대체 그 방에서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의장이 물었다. "왜 스탕제르송 씨를 두 번이나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가 스탕제르송 씨를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각하."

"그것 참 명백한 이유로군요…"

"각하, 그것은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어떤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탕제르송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연히, 자신을 쫓아오는 그 남자가 프레데리크 라르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라르상이 성에 들어와 살았을 리도 없고, '알 수 없는 복도 사건'이 있던 밤, 우리와 함께 스탕제르송 씨 방에 들어왔을 리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라르상은 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얼굴을 낮추고 있었죠. 잃어버린 안경을 찾는 눈빛이었을 겁니다.

사실 스탕제르송 씨는 라르상의 추격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라르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과 분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녀는 이미 그 정체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다르자크 씨!" 재판장이 물었다. "이 일과 관련해 스탕제르송 씨로부터 어떤 비밀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탕제

르송 씨는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약 그 사실을 알렸다면, 형사들이 살인자의 흔적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죄라면, 죄인으로 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스탕제르송 씨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말했다.

"젊은이의 이 말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스탕제르송 씨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룰타비유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살해당한 경비원의 밤, 범인이 왜 스탕제르송 씨에게서 훔친 서류를 다시 가져다 바쳤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스탕제르송 씨의 자물쇠가 채워진 방에 침입할 수 있었는지요."

"음, 마지막 질문에는 답하기 쉽다고 봅니다. 라르상-발마이어 같은 남자가 필요한 열쇠를 구하거나 만들어내는 건 쉬웠을 테니까요."

"문서 도난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라르상이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을 감시하며, 그녀가 로베르 다르자크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은 그는 어느 날 루브 백화점에서 두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스탕제르송 부인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빼앗긴 그녀의 작은 가방을 손에 넣었죠."

"그 가방 안에는 구리 머리 달린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라르상은 그 열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성은 스탕제르송 부인이 신문에 실은 광고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고의 요청대로 우편사서함으로 스탕제르송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 가방과 열쇠를 쥐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녀를 짝사랑해 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면담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편국 40번 사서함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미 다다른 편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라르상은 다르자크의 옷차림과 태도를 최대한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기로 결심한 그는, '만약에라도 일이 꼬여도 스탕제르송 부인이 사랑하고, 자신이 증오하고 파멸시키려는 다르자크가 범인인 척'하게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라르상이 이미 살인까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릴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는 다르자크로 위장하여 스탕제르송 부인을 곤경에 빠뜨릴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라르상은 다름아니라 다르자크와 키가 거의 같고, 발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다르자크의 발바닥 자국을 그린 뒤 그 도안을 바탕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습니다. 라르상에게 이 정도 속임수는 아이들 장난 같은 쉬운 일입니다."

"결국, 그에게 답장이 없었고, 약속도 없었지.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귀중한 작은 열쇠를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었어. 음, 만약 스탕제르송 부인이 그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그가 그녀에게로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지. 그는 글랑디에와 별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 어느 오후, 스탕제르송 부녀가 산책을 나가고, 자크 아저씨까지 떠난 사이, 그는 현관 창문을 통해 별장 안으로 숨어들었지. 그 순간, 그는 혼자였어. 여유도 있었지… 그는 가구를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주 특이한 가구가 하나 있었어. 금고처럼 생겼고, 아주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 오호! 흥미롭군! 그는 그 자물쇠에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 구리 작은 열쇠를 지니고 있었지… 그래서 그는 생각이 미쳤어. 아이디어의 연결고리가 생긴 거야. 그는 그 열쇠를 자물쇠에 대보았지. 문이 열렸어… 서류들이 나왔어! 이런 특별한 가구에 서류를 넣어 둔다는 건, 그 서류가 아주 귀중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가구를 여는 열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도 말이야… 어휴! 이 서류들은 언제든 유용할 수 있어… 작은 협박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의 연애 계획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는 서둘러 이 서류들을 한 뭉치로 싸서 현관의 화장실에 숨겨 두었지."

"별장을 떠난 후, 경비원 암살의 밤까지 라르상은 이 서류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시간이 있었어. 그는 이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서류들은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지… 그날 밤, 그는 이 서류들을 성으로 다시 가져갔어… 아마도 그는 스무 해에 걸친 노력의 결실인 이 서류들을 돌려줌으로써 스탕제르송 씨에게서 어

떤 보답이라도 받기를 바랐을지도 몰라… 그런 자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든 가능한 법이지!… 어쨌든,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는 서류들을 다시 가져갔고, '그는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지!'"

룰타비유가 기침을 했다. 그 기침이 무슨 뜻인지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명 당황하고 있었다. 라르상이 스탕제르송 씨에게 보인 끔찍한 태도의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이었다.

그의 추론은 너무 불완전해서 누구도 만족할 수 없었다. 만약 룰타비유가 원숭이처럼 교활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분명 그 점을 지적했을 것이다. 하지만 룰타비유가 갑자기 외쳤다.

"이제 우리는 '노란 방'의 수수께끼를 풀 설명에 도달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와 가벼운 부딪힘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힘차게 '쉿!' 하는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재판장님, 룰타비유 씨의 가설에 따르면 노란 방의 비밀은 이미 다 풀린 것 같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누가 범인인지에 대해서만 속였을 뿐, 자기 자리에 로베르 다르자크를 갖다 놓은 것이죠.

노란 방의 문은 스탕제르송 교수가 혼자 있을 때 열렸을 것입니다. 교수는 딸의 방에서 나온 남자를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뒀습니다. 멈추

지 않았죠. 아마도 딸의 간청에 따라, 어떤 스캔들이라도 피하기 위해 말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젊은이가 강하게 항의했다. "당신은 스탕제르송 부인이 쓰러진 뒤에는 간청할 수도, 문빗장을 걸거나 자물쇠를 잠글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또한 스탕제르송 씨가 사경을 헤매는 딸의 머리에 대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맹세했다는 사실도 잊고 있군요."

"하지만 그것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생. '노란 방은 금고처럼 단단히 잠겨 있었다.' 당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인자가 '정상적으로든 비정상적으로든' 방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전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각하."

"어떻게 그런 말씀이냐?"

"그가 방 안에 없었다면, 탈출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청중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물론 없었죠!"

"그가 있을 수 없었다면, 그는 없었던 겁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항상 이성의 올바른 면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요!" 재판장이 반박했다.

"재판장님, 그것은 이성의 잘못된 면입니다!" 룰타비유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성의 올바른 면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이 자신의 방문을 잠근 순간부터 문이 부수어질 때까지, 살인자가 그 방에서 도망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 안에서 그를 찾지 못했으니, 문이 잠긴 순간부터 부수어질 때까지 '살인자는 방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자취는요?"

"저기, 재판장님. 이건 '감각적 흔적'입니다.사법에서 수많은 오심을 낳는 바로 그 감각적 흔적이죠. '그것이 당신에게 원하는 대로 말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추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감각적 흔적이 당신의 추론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는 작은 진리의 원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자는 노란 방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가 방 안에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그가 방에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히 말하

자면, 그는 '반드시' 이전에 그곳을 지났어야 합니다. 제 이성에게 그가 그곳을 지나갔다고 말하죠. '반드시' 지나갔다고요.

자, 흔적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정황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흔적들이 '스탕제르송 부인이 아버지와 자크 아저씨 앞에서 방문을 잠그기 전'의 그 '선행 통과'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탱」지의 기사가 나오고, 파리에서 에피네쉬르오르그로 가는 길에서 심문 판사와 나눴던 대화 이후, '노란 방'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따라서 스탕제르송 부인이 자정 무렵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인자는 이미 그곳에서 사라져 있었음이 분명했다.

외부의 흔적들은 나의 이성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혼자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 흔적들은 자살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살인자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렇다면 스탕제르송 부인은 어떻게 나중에야 살해당한 것일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나중에야 살해당한 것처럼 보였을까?

물론 나는 이 사건을 두 단계로 재구성해야 했다. 서로 몇 시간의 간극을 둔, 명확히 구분되는 두 단계였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스탕제르송 부인을 살해하려던 시기였다. 그녀는 그 시도를 숨겼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가 악몽을 꾸고 나서였다. 그 악몽 때문에 실험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살해당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아직 '노란 방'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스탕제르송 양의 상처는 어땠을까? 목을 조른 자국과 측두부에 가해진 강력한 타격.

목 조르기 자국은 내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 상처는 '먼저' 입혀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스탕제르송 양은 그것을 목걸이나 보아, 혹은 어떤 옷깃 아래로 숨겨두었을 뿐이다.

내가 사건을 두 단계로 나누어 해석해야 했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즉, 스탕제르송 양은 '첫 번째 단계의 모든 사건을 숨겼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녀가 그렇게 한 데에는 분명 강력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수사판사에게, 마치 그 공격이 두 번째 단계의 밤에 일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범인의 침입을 보고했다.

만약 그녀가 침입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냐? 그런 공격을 당하고도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녀는 목에 남은 남자 손의 자국을 숨겼던 것이다. 하지만 관자놀이에 가해진 강력한 타격은 어찌 된 일인가? 그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방 안에서 양뼈가 발견되어 그것이 범행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는 더더욱 그랬다.

그녀가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분명히 첫 번째 단계에서 입혀진 것으로 보

였다. 왜냐하면 그 부상을 입히려면 범인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처가 말한 것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물론 그 추측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스탕제르송 양이 관자놀이의 상처를 '앞머리 스타일의 머리장식으로 가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자국"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탕제르송 씨의 권총에 맞아 상처 입은 살인자가 벽에 남긴 그 자국은 분명히 '먼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즉 살인자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살인자의 발자국은 모두 첫 번째 단계에 남았습니다. 양 뼈, 검은 발자국, 베레모, 손수건, 그리고 벽과 문, 바닥에 튀긴 피 자국들 말입니다. 명백한 사실인데도, 만약 이런 흔적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면, 스탕제르송 양은 아직 그 흔적들을 치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렇게 되도록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사건의 첫 번째 단계를 두 번째 단계와 '매우 가까운 시간'에서 찾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즉 살인자가 도망친 뒤, 그리고 그녀가 급히 아버지를 만나러 일하는 실험실로 돌아간 뒤, 만약 그녀가 잠시나마 다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녀는 즉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양 뼈, 베레모, 손수건을 치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 이후, 그녀는 자정이 되어서야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열 시쯤에는 자크 영감이 들어와 매일 밤 하던 일을 마치고 창문을 닫으며 밤등불을 켰습니다.

실험실 책상 위에서 일하는 척하며 기절할 듯 쓰러져 있던 스탕제르송 씨는, 자크 영감이 자신의 방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자크 영감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이 내용은 '마탱(Matin)' 신문의 기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크 영감은 여전히 방에 들어갔고, '노란 방'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탕제르송 씨는 그곳에서 끔찍한 이 분간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살인자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후, 그녀는 목에 남았던 남자의 손자국을 숨기고 방을 빠져나갈 시간조차 겨우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바닥에 양 뼈, 베레모, 손수건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정이 되어 방에 돌아왔을 때 그것들도 치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등불의 불분명한 빛 속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정과 공포, 특히 그녀가 그 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최대한 늦추게 했던 공포에 짓눌린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극의 두 번째 국면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자가 방 안에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스탕제르송 양 홀로 그 노란 방 안에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추론의 범위에 외부의 흔적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했다.

하지만 설명해야 할 외부의 흔적은 또 있었다. 두 번째 국면 동안 권총이 발사되었다. "도와줘! 살인자야!"라는 비명도 울려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이성이 가리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비명에 관해서 말하자면, 방 안에 살인자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방 안에 악몽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가구가 뒤집히는 거대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스탕제르송 부인이 낮에 목격한 끔찍한 광경에 시달리며 잠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었고, 그 악몽은 붉은색 이미지들로 선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살인자를 다시 보았고, 비명을 질렀다.

"살인자다! 도와줘!"

그녀의 어수선한 손동작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권총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 손이 침대 옆 탁자를 너무 강하게 치면서 탁자가 넘어졌다. 권총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총성이 터져 천장에 박혔다.

처음부터 이 천장에 박힌 총알은 사고로 인한 총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고가 가능했음을 입증했고, 내 악몽 가설과 완벽하게

부합했다. 그래서 나는 이 총알이, 살인이 이미 발생했고 스탕제르송 부인이 보통이 아닌 강한 의지로 이를 숨겼다는 내 확신을 굳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악몽, 총성. 끔찍한 정신적 상태에 있던 스탕제르송 부인은 깨어났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빠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가구를 뒤집으며 신음소리까지 냈다.

"살인자다! 도와줘!"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그 밤, 두 번째 단계에서 권총이 두 발 발사되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내 가설, 이미 가설이 아닌 확고한 이론이 되었지만, 역시 두 발이 필요했다. 다만 마지막 단계에 두 발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한 발씩이어야 했다. 즉, 살인자를 다치게 하기 위해 앞선 단계에서 한 발,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악몽 같은 순간에 한 발.

그런데 정말 그 밤에 권총이 두 발 발사되었던 걸까? 권총 소리는 넘어진 가구들의 굉음 한복판에서 들렸다. 스탕제르송 씨의 심문 기록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고 했고, 이어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만약 그 둔탁한 소리는 대리석 야간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낸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이 설명이 바로 맞는 해답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해답이 맞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파빌리온 바로 근처에 살던 하인 부부, 베르니에와 그의 아내가 단 한 발의 권총 소리만 들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증언을 수사 판사에게도 밝혔다.

드디어 나는 그 비극의 두 단계를 거의 재구성해 냈을 때, 처음으로 '노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측두부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내 추론의 범위 밖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양뼈 조각을 든 범인이 입힌 것이 아니었다. 상처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스탕제르송 양이 이를 감출 수 없었고, 실제로 앞머리 빗어 올린 머리모양으로 숨기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상처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 즉 악몽이 찾아왔을 때 입혀진 것이었을까?

나는 그 답을 '노란 방'에 물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노란 방'은 나에게 답을 해 주었다.

룰타비유는 또다시 작은 꾸러미에서 네 군데로 접힌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 하얀 종이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꺼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낀 채 재판장에게 건넸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가 묻은 금발의 머리카락입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의 머리카락이죠. 저는 이 머리카락이 전복된 침대 옆 탁자의 대리석 모서리 하나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리석 모서리 역시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음, 붉은 사각형이라곤 아주 작은 자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 자국은 스탕제르송 부인이 침대에서 놀라 벌떡 일어났을 때, 그 대리석 모서리에 온몸을 부딪혀 강하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 모서리는 그녀의 측두부를 다치게 했고, 동시에 머리카락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앞머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카락은 그녀의 이마에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스탕제르송 부인이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양뼈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판사는 즉시 양뼈를 범행 도구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침대 옆 탁자의 대리석 모서리 또한 둔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나 수사판사는 그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 이성이 그 가능성을 미리 암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 안에서는 또 한 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다. 하지만 룰타비유가 곧장 증언을 이어가자, 장내가 다시금 즉시 고요해졌다.

살인자의 이름은 며칠 뒤가 돼서야 알게 되겠지만, 나는 그날 드라마의 첫 단계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스탕제르송 양의 심문 기록은, 비록 조사 판사를 속이기 위해 조작된 것이긴 했지만, 스탕제르송 씨(아버지)의 심문 기록과 더불어 그 해답을 줄 것이었다.

스탕제르송 씨는 그날 자신의 시간을 정확히 증언했다. 우리는 살인자가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별장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수와 그의 딸이 다시 작업을 재개했을 때를 오후 6시 15분쯤으로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범인은 5시부터 6시 15분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잠깐, 5시라면? 그 시각에는 교수가 딸과 함께 있다. 그러니 이 사건은 교수와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교수와 딸이 헤어졌던 순간을 찾아야 했다.

그 순간은 바로 스탕제르송 씨의 방에서, 스탕제르송 씨의 입회 하에 이루어진 심문 기록 속에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교수와 딸은 오후 6시쯤 실험실로 돌아왔다고 한다. 스탕제르송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경비가 나를 붙잡아 잠시 동안 말렸다."

즉 경비와 대화가 있었단 말이다. 경비는 나무 벌채나 밀렵 이야기를 하며 스탕제르송 씨를 붙잡았다. 스탕제르송 양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딸은 이미 실험실로 향했을 터였다. 교수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나는 경비를 떠나,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던 딸에게로 돌아갔다."

드디어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비극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당연한 결론이다. 스탕제르송 박사가 정자로 돌아와 모자를 올려놓으러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를 쫓는 강도와 마주쳤다는 것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강도는 이미 제법 오래전부터 정자 안에 숨어 있었다. 그는 모든 일이 밤에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앞서 검사에게 말했듯이, 그는 자크 신부의 발에 신겨진 신발을 벗겨냈다. 그 신발이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크 신부가 현관과 실험실을 청소하러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침대 밑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고 했다. 자크 신부가 떠난 뒤 그는 다시 일어나 실험실 안을 배회했고, 현관으로 나와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정자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밤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으니 하늘은 매우 맑았다.

"스탕제르송 박사님, 혼자이시다!"

그는 만약 스탕제르송 박사가 혼자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 시각에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혼자라고 느껴지게 하려면, 스탕제르송 박사와 그를 붙잡고 있던 경비 사이의 대화가 길에서 살짝 벗어난 어딘가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곳은 나무 한 무더기가 있는 곳으로, 그 악당에게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는 이제 더 안심할 수 있었다. 밤중에 다락방에서 잠든 자크 신부가 있는 상황보다, 이 정자 안에서 스탕제르송 박사와 둘이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는 현관의 창문을 닫았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스탕제르송 박사와 경관이 아직 정자에서 꽤 떨어져 있었음에도 총성 듣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가 다시 '노란 방'으로 돌아갔다.

스탕제르송 선생이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은 번개처럼 빨랐을 것이다.

스탕제르송 선생은 비명을 지르려 했을 것이다. 아니, 공포를 외치려다 멈췄을 것이다. 남자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녀를 질식시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선생의 더듬거리는 손이 침대 옆 탁자의 서랍에서 권총을 쥐었다. 그녀는 남자의 협박을 두려워한 이후부터 그 권총을 서랍에 숨겨둔 상태였다.

살인자는 이미 불행한 여성의 머리 위, 즉 라르상-발마이어의 손에서 들려졌던 양뼈를 휘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총을 쐈다.

총알이 날아갔고, 총을 들고 있던 손을 맞혔다. 그 손은 무기를 놓아버렸다. 양뼈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살인자의 상처로 피에 물들어' 있었다.

살인자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다. 그는 붉은 손가락으로 벽에 자국을 남겼고, 또 다른 총알을 두려워하며 도망쳐 버렸다.

그녀는 그가 실험실을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현관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드디어, 그는 뛰어내렸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닫았다.

이제, 그녀의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았을까, 들었을까. 이제 위험이 사라졌으니, 그녀의 모든 생각은 아버지를 향해 향했다. 초인적인 에너지를 지닌 그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아버지를 모든 것에서 숨기리라.

스탕제르송 씨가 돌아왔을 때, 그는 '노란 방'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실험실에서는 딸이 책상 위에 몸을 기울이고, 집중하여 '이미 일을 시작했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룰타비유는 그때 다르자크 씨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다.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는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르자크 씨가 대답했다.

"당신은 영웅이군요!" 룰타비유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여사가, 불행히도 당신이 혐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당신을 그 약속에서 풀어 줄 겁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이 당신에게 털어놓은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청했을 테니까요. 아니, 제가 뭘 말하려는 거죠. 그녀는 직접 당신을 변호하러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르자크 씨는 몸을 움직이지도, 입을 열지도 않았다. 그는 슬픈 눈으로 룰타비유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쨌든, 스탕제르송 여사가 여기 없으니," 룰타비유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르자크 씨, 제 말을 믿으십시오. 스탕제르송 여사를 구하고 그녀의 이성을 되찾아 주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무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에 이어 관중석에서는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장은 객석의 열기를 억누르려 하지도 않았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구원받았다. 배심원들의 표정만 봐도 그것이 확실했다. 그들의 태도는 확고한 신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의장이 다시 외쳤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신비한 일 때문에, 살해 시도의 대상이 된 스탕제르송 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범죄를 숨긴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하. 저도 모릅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의장은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부하고 있군요, 각하. 스탕제르송 씨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요?"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각하."

의장이 룰타비유를 바라보며 설명을 간청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결석이 스탕제르송 씨의 비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다르자크 씨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르상은 세 번의 시도 동안 모든 것을 조작해 다르자크 씨에게 혐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 모두, 다르자크 씨를 혐의를 살 만한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서 스탕제르송 씨의 비밀에 대해 논의해야 했을 테니까요."

"다르자크 씨는 스탕제르송 씨의 비밀과 관련된 어떤 것도, 조금도 밝히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라르상은 충분히 교활해서 이런 '계략'까지 짜냈을 테니까요."

의장은 흔들렸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다시 말을 건넸다.

"그런데 도대체 그 수수께끼가 뭐란 말인가?"

"아, 각하!" 룰타비유가 의장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하께서 아신 바가 충분하시다면 로베르 다르

자크 씨를 석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르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행복해하는 듯한 큰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모두가 그와 함께 웃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사." 의장이 말했다. "당신의 주장, 즉 라르상이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 혐의를 자크 신부에게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의 이익이라니요, 각하! 자기 자신이 쌓아 올린 증거들을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영리함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정말 치밀한 수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의심을 돌리기에 자주 써먹던 트릭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한 사람의 무죄를 증명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지목했으니까요."

"각하, 라르상이 이 같은 사건을 미리 장장하게 '숙성'시켰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인간 심리와 상황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동안 '안전보안국 연구소'와 스탕제르송 씨 사이에서 '실험'을 의뢰받으며 중개자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덕분에 그는 범행 전 두 차례나 별장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장을 완벽하게 해, 이후 자크 신부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르상은 자크 신부로부터 낡은 구두 한 켤레와 망가진 베

레모를 훔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탕제르송의 오랜 하인인 자크 신부는 그걸 손수건에 싸서, 아마도 에피네 가도의 숯장수인 친구에게 가져다주려던 참이었죠."

"범행이 발견되었을 때, 자크 신부는 혼자서 그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너무 유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우리가 그에게 그 물건들을 묻자 그가 당황했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라르상을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꺼이 자백했습니다. 비록 그는 도둑이자 범인이지만—이제 더 이상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죠—그는 또한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스타일입니다. '크레디트 유니버셀' 사건이나 '조폐국 금괴' 사건 때도 그는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각하, 이 사건들은 반드시 재심해야 합니다. 발마이어-라르상이 안전보안국에 소속된 이후, 감옥에는 몇몇 무고한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요."

소란이 일었다. 수군거리는 소리, 박수 소리!

앙리-로베르 변호사가 결론을 제시했다. 사건을 추가 조사를 위해 다음 심리 기일로 연기하자는 것이었다. 검찰도 이에 동의했다.

결국 사건은 다음 심리 기일로 미뤄졌다.

다음 날, 로베르 다르자크는 가석방되었다. 마티에 신부도 즉각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르자크의 무죄는 이미 입증된 상태였다. 그는 비로소 한순간 자신을 위협했던 끔찍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스탕제르송을 방문한 후, 그는 마틸드가 꾸준한 간호를 통해 언젠가 정신을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룰타비유라는 그 소년은 당연히 '그날의 인물'이 되었다.

베르사유 궁전을 나서자마자 군중이 그를 개선장군처럼 떠받들어 헹가래쳤다. 전 세계의 신문들이 그의 활약상과 사진을 실었고, 그는 수많은 유명인을 인터뷰해 왔던 만큼, 이제 자신이 유명인이 되어 인터뷰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그가 더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저녁을 '담배 피우는 개' 식당에서 매우 즐겁게 먹고 나서 함께 베르사유에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나는 식사 중에도 입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룰타비유가 식사 중에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참았던 수많은 질문들을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내 친구, 라르상 건은 정말 훌륭하군. 당신의 영웅적인 두뇌에 꼭 어울리는 사건이야."

그때 그가 나를 막으며 말했다. 더 평이하게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 같은 뛰어난 지성이 단지 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리석음이라는 혐오스러운 구덩이로 떨어질까 봐 그는 결코 마음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약간 기분이 상한 내가 말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은 당신 왜 미국에 갔는지 전혀 알려주지 못해. 내가 잘 이해했다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글랑디에를 떠날 때, 프레데리크 라르상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야? 라르상이 살인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살인을 시도했는지 그 방법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정확합니다." 그는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했나요?"

"아무것도요!"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친구,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철저히 숨겼잖아. 내가 어떻게 그걸 간파할 수 있겠는가? 내가 권총을 들고 글랑디에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라르상을 의심하고 있었나요?"

"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추론을 이미 끝냈습니다. 하지만 라르상이 스탕제르송 씨 방으로 돌아온 사연은, 노안경 발견으로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의심은 수학적일 뿐이었습니다. 라르상

이 살인범이라는 생각은 너무 거대해서, 저는 '물리적인 흔적'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생각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경관에 대해, 당신을 일깨웠어야 할 만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일단 저는 더 이상 그의 '성실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수사 방식을 비참한 것이라고 취급했고, 제가 보인 경멸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경관을 향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경관보다 제가 의심하는 범인을 향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르자크 씨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열거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형 프레드' 가설에 어느 정도 무게를 더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가 틀렸다고 믿는 바로 이 가설이 그를 그르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움을 자아내야 할 톤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가설은 정말로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자, 보세요!'라는 말들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줬어야 했소. 그 말들 속에는 나의 모든 의심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정말로 그를 그르치게 하는가?'라는 말은, 그 가설이 정작 그는 그르치지 못할지언정 우리를 그르치도록 되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때 당신을 바라보았소. 그런데 당신은 놀라지 않았소.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건 오히려 다행이었소. 왜냐하면 '노안경'을 발견하기 전까

지만 해도, 저는 라르상의 범행을 단지 터무니없는 추측 정도로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노안경'을 발견한 후, 라르상이 스탕제르송 씨의 방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설명되자… 오, 그 기쁨이여! 그 흥분이란! 아,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소. 저는 방 안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당신을 향해 외쳤소. '나는 프레드라는 거물을 무너뜨릴 거야. 아주 화려하게 말이지!'

그때 그 말은 바로 그 도적에게 던지는 것이었소. 그리고 같은 밤, 다르자크 씨의 부탁으로 스탕제르송 씨의 방을 감시하게 되었을 때, 저는 오후 10시까지 라르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소. '그가 내 앞에 있으니 안심이다'라고 말이지요.

그때도,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은 제가 오직 그 남자 한 명만을 경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요. 그리고 우리가 살인자의 도착을 논하며 '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반드시 오늘 밤 여기에 있을 거야'라고 말할 때, 저는…"

"하지만 범인을 단번에, 그리고 즉시 밝힐 수 있었을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지목하는 그 단서 말입니다. 그걸 우리 둘 다 놓치고 말았어요!"

"지팡이 이야기를 잊으셨나요?"

"물론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라르상을 지목했을 논리 외에도, '지팡이 이야기'라는 관찰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지목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죠."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게요 — Larsan이 심문 과정에서 Darzac 씨에게 불리하게 지팡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 지팡이는 범행当晚에 Darzac 씨와 생김새가 똑같은 남자가 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전, 사라지기 전 기차를 타기 직전 Larsan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팡이를 쓰지 않았냐고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요. 그 지팡이로 Darzac 씨를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피네의 주점 밤에 그에게 거짓말을 증명해 보였을 때, 그는 매우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이 지팡이를 런던에서 얻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 상표는 파리산이었어요! 왜 그때 우리는 '프레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는 런던에 있었으니 파리에서 산 지팡이를 가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왜 우리는 '프레드는 거짓말쟁이야. 그는 런던에 있지 않았어. 파리에서 이 지팡이를 샀으니까! 프레드는 범행 당시 파리에 있었어. 이것이 의심의 시작점이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Cassette 집에서 조사한 후, 이 지팡이가 Darzac 씨처럼 옷을 입은 남자가 샀다고 알려줬을 때, 우리는 Darzac 씨 본인의 증언에 따라 그 지팡이를 산 사람이 Darzac 씨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우편국 40번 사건 덕분에 '파리에 Darzac 씨의 모습을 한 남자가 있

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범행当晚 Cassette 집에서 지팡이를 사서 결국 Fred의 손에 들어간 남자가 바로 이 'Darzac 씨를 가장한 낯선 사람'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Fred 자신이 그 지팡이를 산 남자가 아닐까?

물론, 그가 Sûreté(치안국) 요원이라는 사실이 이런 가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Fred가 Darzac 씨에 대한 증거를 쌓는 데 얼마나 집착했는지, 불행한 Darzac 씨를 얼마나 열렬히 추격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Fred의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그가 런던에 있을 수 없는 파리에서 지팡이를 소유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이 지팡이를 찾았더라도, 런던에 있었다는 거짓말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런던에 있다고 믿었고, 그의 상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리에서 지팡이를 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지팡이를 'Darzac 씨 주변에서 발견된 지팡이'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Larsan은 Stangerson 씨의 총알로 손을 가볍게 다친 후, '단순히 포즈를 취하기 위해, 손을 계속 쥐고 있기 위해, 손을 벌려 상처를 보이지 않기 위해' 이 지팡이를 샀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Larsan이 이렇게 말했고, 저는 그에게서 자주 들었던 '그의 손이 이 지팡이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 함께 있을 때, 그는 이 지팡이를 놓자마자 칼을 집어 들고 오른쪽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제 생각이 Larsan에게로 향했을 때, 즉 너무 늦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Larsan이 우리 앞에서 잠을 가장한 날 밤, 저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가벼운 타프타스 밴드만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가벼운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처가 총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외부 신호가 제 추론의 원형에 추가되었습니다. Larsan이 방금 말했듯이, 총알은 그의 손바닥을 가볍게 스쳤을 뿐이며, 상당히 많은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라르상의 거짓말이 터진 순간, 더 날카롭게 보고 더… 위험하게 행동했다면, 그는 분명 우리들이 그를 위해 꾸며냈던 이야기, 즉 다르자크 주변에서 지팡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꺼내 의심의 화살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지팡이 이야기를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르상-발마이어를 무척이나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요."

"하지만 잠깐만요," 내가 끼어들었다. "그가 지팡이를 사면서 다르자크를 겨냥할 의도가 없었다면, 왜 그때는 다르자크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스틱색 코트요? 멜론모자요? 그 밖의 것들도요?"

"그가 범죄 현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그는 항상 그 범죄 행위에 동반해 온 다르자크의 변장을 다시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아시는 그 의도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상처 입은 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오페라 대로(avenue de l'Opéra)를 지나면서 지팡이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즉각 실현되었습니다! … 시각은 여덟 시! 다르자크의 실루엣을 가진 한 남자가, 라르상의 손에서 발견한 지팡이를 사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 나! 그 시각에 이미 '드라마가 이미 발생했다', '방금 발생했다'라고 직감했고, 다르자크의 무죄를 거의 확신하고 있던 내가 라르상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조차…"

룰타비유가 내 입을 막았다.

그가 다시 묻자, 나는 그가 더 이상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룰타비유는 잠들어 있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깨우려 온 힘을 다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에게 왜 미국으로 갔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베르사유행 열차 안에서의 대답보다 훨씬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대화의 초점을 사건의 다른 지점으로 돌렸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라르상의 진정한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왜 미국까지 가서 그걸 찾아야 했나요?"

그는 파이프를 피우며 내게 등을 돌렸다.

분명히 나는 '스탕제르송 씨의 비밀'이라는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다.

룰타비유는 생각했다. Larsan과 스탕제르송 씨를 끔찍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이 비밀은, 룰타비유 자신도 프랑스의 스탕제르송 씨 삶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찾지 못했던 그 비밀이었다.

그는 이 비밀이 '미국에서의 스탕제르송 씨 삶'에서 기원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탔다!

그곳에서 그는 Larsan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를 침묵하게 만들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필라델피아로 떠났다!

그렇다면 이제, 스탕제르송 씨와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 "침묵을 명령"했던 그 수수께끼는 무엇이었을까?

수년이 흘러, 스캔들 성향의 언론들이 몇 차례 기사를 내보낸 지금, 그리고 스탕제르송 씨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용서한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도 될 때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짧다. 그리고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어둠만 보던 비참한 자들이 스탕제르송 씨를 비난했기 때문이다. 스탕제르송 씨는 이 끔찍한 사건 전반에 걸쳐, '초반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였는데도 말이다.

그 시작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틸드가 아직 소녀였을 때,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다.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는 한 동포를 만났다. 프랑스인인 그는 매너와 재치, 다정함, 그리고 사랑으로 그녀를 유혹했다. 그는 부자라고 알려졌다. 그는 스탕제르송 교수에게 그의 딸의 청혼을 요청했다.

교수는 장 루셀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단번에 그가 산업 기사, 즉 사기꾼임을 알아챘다. 장 루셀 씨,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그는 프랑스에서 추적을 받으며 미국으로 피신한 유명한 발메이어의 수많은 변신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교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딸도 몰랐다. 그녀는 나중에야 비로소 그 진실을 듣게 된다. 스탕제르송 교수는 단순히 딸의 청혼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루셀 씨에게 자신의 집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사랑에 눈이 뜬 젊은 마틸드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존재로 여긴 장이었기에 이에 격분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녀를 진정시키라고 오하이오 강가, 신시내티에 사는 나이 든 이모 집에 보냈다.

장도 그곳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지만, 마틸드는 나이 든 이모의 감시를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장 루셀과 함께 도망치기로 했다. 그들은 미국 법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 루이빌까지 도망쳤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들의 문이 두드려졌다. 그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장 루셀 씨를 체포하려 했다. 그는 항변했고,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은 비명까지 질렀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동시에 경찰은 마틸드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녀의 '남편'은 바로 너무도 유명한 발메이어였다는 것이다.

절망에 빠진 마틸드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그녀는 신시내티의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는 마틸드를 다시 보자 기쁨에 겨워 죽을 뻔했다. 이모는 지난 여드레 동안 마틸드를 온갖 곳으로 찾아다녔지만, 아직 아버지는 알리지 못했다. 마틸드는 이모에게 스탕제르송 씨가 절대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도록 맹세하게 했다. 이모는 이 중대한 상황에서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마틸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 달 후, 마틸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돌아왔다. 그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희망을 버린 채, 오직 한 가지 소망만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 끔찍한 발마이어에 대해 다시는 듣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고, 끝없는 노동과 아버지에 대한 헌신으로 자신의 양심 앞에 서고자 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다. 그녀는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발마이어가 이미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랜 속죄 끝에,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결혼한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때, 운명은 그녀에게 젊은 시절의 연인, 장 루셀, 즉 발마이어를 되살려 놓았다.

발마이어는 그녀에게 로베르 다르자크와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슬프게도, 그것은 진실이었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망설임 없이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장 루셀-프레데리크 라르상-발마이어가 보낸 편지를 그에게 보여줬다. 편지에는 두 사람이 루이빌에서 빌려 살던 작고 사랑스러운 목사의 집에서의 결혼 초년이 회상되고 있었다.

"목사관은 여전히 그 매력을 잃지 않았고, 정원도 예전처럼 빛나고 있소."

이 비루한 자는 자신이 부자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그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는 오만한 주장을 펼쳤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다르자크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치욕을 눈치채게 된다면, 그녀는 자살할 것이라고.

다르자크는 이 미국인을 제압하겠다고 맹세했다. 공포를 주든, 힘을 쓰든, 비록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다르자크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만약 이 용감하고 작은 신사, 조제프 룰타비유가 없었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이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그 괴물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사전에 보낸 협박으로 그녀를 경계하게 만든 뒤, '노란 방'에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죽음까지 협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확실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 그녀의 곁에 숨어 지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와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40번 사서함에서 온 편지'로 요구된 그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란 방'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편으로 새로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정상적으로 그녀의 회복실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직접 그녀에게 찾아갈 것이며, 특정 밤 특정 시간에 그녀의 방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만남을 '도피'했습니다. 하녀들과 함께 안방에 틀어박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밤, 스탕제르송 부인의 빈 방을 떠나기 전, 라르상은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자신의 방에서 직접 작성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편지는 '실질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그는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서류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만약 그녀가 다시 도망친다면 그 서류를 불태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그 악당이 귀중한 서류를 손에 쥐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명한 절도 사건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가 '무의식적인 동조' 하에, 과거에 아버지의 서랍에서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서류를 훔쳤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토록 많은 노력과 과학적 희망이 곧 재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다시 한 번, 대면해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 가시죠? 마틸드의 간청, 라르상의 잔혹함……. 그는 그녀가 다르자크를 포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단두대로 보내겠다는' 확고한 생각으로요.

라르상은 교활합니다. 그는 라르상이라는 가면을 다시 얼굴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그를 구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번에도 자신의 시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발마이어의 대비책은 이미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감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룰타비유가 이미 간파한 바와 같았습니다.

라르상은 마틸드를 협박하듯 다르자크를 협박한다. 같은 무기를, 같은 신비로움으로 말이다.

생각해 봐라. 라르상은 명령처럼 긴급한 편지를 보낸다. 그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의 연애편지 전체를 건네주겠다고 한다. 특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한다. 단, 대가를 치르겠다는 조건 하에 말이다.

다르자크는 라르상이 정한 장소에 가야만 한다. 내일 아침이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협박 때문이다. 마틸드가 라르상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발마이어가 마틸드를 살해하는 순간, 로베르가 에피네에 도착한다. 라르상의 동조자, 이상한 존재, "다른 세계의 생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로베르를 억지로 붙잡아둔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내일의 피고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우연한 일치가 그를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발마이어는 조제프 룰타비유를 계산에서 빼먹었다!

이제야 비로소 '노란 방의 비밀'이 해명되었다. 지금 우리가 룰타비유의 미국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젊은 기자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이마 양쪽 볼록한 부분에는 강력한 정보 수집 능력이 숨어 있었다. 그 힘으로 그는 스탕제르송 씨와 장 루셀의 사건 전말을 쫓아갈 수 있었다.

필라델피아에서 룰타비유는 아서 윌리엄 란스에 대한 정보를 곧바로 입수했다. 란스의 헌신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 대가로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과거 스탕제르송 씨와의 결혼 소문이 필라델피아 살롱을 떠돌았던 적도 있었다. 젊은 과학자의 경솔함, 유럽에 있을 때부터 스탕제르송 씨를 피곤하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쫓아다닌 행위, 그리고 '슬픔을 잊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아서 란스를 룰타비유에게 호감 가는 인물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가 증인석에서 란스를 맞이할 때 차가웠던 것은 당연했다.

룰타비유는 곧장 란스 사건이 라르상-스탕제르송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는 루셀과 스탕제르송 씨 사이의 거대한 연애 정사를 발견했다. 루셀은 대체 누구인가?

룰타비유는 필라델피아를 떠나 신시내티로 향했다. 마틸드가 갔던 길을 되짚어 가는 것이었다. 신시내티에서 그는 늙은 이모를 만나 그녀가 입을 열게 만들었다. 체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과 같았다.

그는 루이빌에서 '목사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작은 크기의 아름다운 집으로, 옛식 콜로니얼 양식이었다. 실제로 그곳은 '매력'을 조금도 잃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탕제르송 씨의 발자취를 버리고 발마이어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했다. 감옥에서 감옥으로, 형무소에서 형무소로, 범죄에서 범죄로. 드디어 뉴욕 부두에서 유럽행 배를 타려 할 때, 룰타비유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이 부두에서 발마이어가 5년 전 승선했다는 사실을. 그는 주머니에 어느 라르상이라는 인물의 서류를 넣고 있었다. 라르상은 뉴올리언스의 존경받는 상인이었고, 발마이어는 그를 방금 전 살해한 뒤였다.

"이제 스탕제르송 부인의 모든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스탕제르송 부인은 남편 장 루셀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노모인 이모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모는 치밀하게 일을 처리해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죠. 그 소년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후, 나는 법원 정원에 앉아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룰타비유를 만났다.

"어떻게 지내나, 친애하는 친구여?" 내가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느냐? 얼굴이 많이 어둡군. 친구들은 잘 지내나?"

"당신을 빼곤, 정말 친구가 있는 걸까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르자크 씨는 친구이길 바랍니다만…"

"물론이지."

"그리고 스탕제르송 부인도요. 스탕제르송 부인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훨씬 나아졌습니다… 훨씬…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럼 슬퍼할 일은 아니지…"

"슬픕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향수를 생각하다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향수! 자꾸만 그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향수에 얽매여 사는지, 이제야 좀 설명해 주시겠소?"

"아마도 언젠가… 언젠가, 아마도…"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